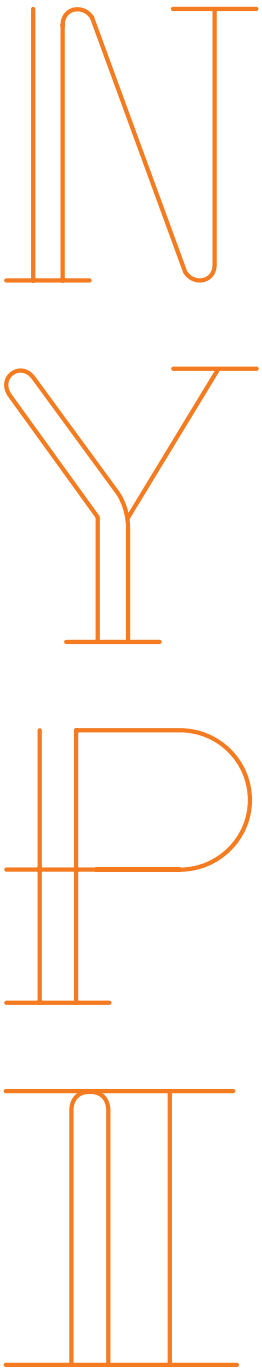
연구보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정숙

공동연구원
조혜영 **이덕난** **이태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 교수)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이태주(한성대학교 · 교수)
▸ 연구보조원 : 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 대표되는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무상의 원조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에서의 공여국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같은 해 10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 참여 및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정부의 대외원조 사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고,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나 해외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참여 수준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술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지닌 의의와 시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계기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내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실태 및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청소년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상술한 연구내용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문헌조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조사와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의 정신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활동 진흥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면담조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해외자원봉사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자원봉사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에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이라는 4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11가지 세부 추진내용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 국제개발협력,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자원봉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새천년개발목표(MDGs)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실태 및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다음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청소년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음. 또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향후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문헌조사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개과정과 관련 제도, 법령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음. 또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 정책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ODA 사업 추진과정과 내용을 검토하였음. 아울러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례를 통해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2) 설문조사

○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 만 15~18세의 전기청소년과 만 19~24세 후기청소년 2,210명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수준을 조사하였음.

3) 면담조사

○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참여 동기 및 사전 교육에 대해 파악하고, 현지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경험의 실태 파악을 통해 당면과제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음. 또한 활동 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음. 면담조사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4) 전문가 정책협의회 및 자문조사

○ 전문가 정책협의회에서는 연구 방향과 분석틀을 수립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졌음.

○ 학계와 현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자문조사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음.

3. 주요결과

1) 국내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법령 현황과 외국 사례 고찰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점차 주요 공여국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책무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의 정신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ICS는 청년들에게 국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동시에 협력국가의 빈곤문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봉사의 주제와 봉사단의 파견 기간 및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호주는 정부 차원의 통합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인 AVID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AVID에서는 해외자원봉사단의 현지 활동이 끝난 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자원봉사자 간 소통을 돕는 워크숍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VC는 대표적인 장기 해외자원봉사자 파견기관 중 하나로 해외자원봉사 활동 이전

6개월 동안 문화적응, 세계시민의식, 지역사회개발과 리더십 등 6개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청소년의 성장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국국제협력단법」에도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한계점이 있음.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으나,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활동 진흥과 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2) 국제개발협력 관련 청소년 인식 및 참가 실태 분석 결과

○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련 인지 및 참여 정도

-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의 약 60%는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약 40%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응답자의 약 90%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는 '참여 기회가 없어서', '참여 비용 부담이 커서'의 순서대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편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 1순위로는 '저소득층 참여경비 보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의 순서대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따라서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82.8%)으로 나타났음.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약 67%는 교육 이수 경로로 학교 수업을 꼽았으며, 청소년들 중 약 94%는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정도

- 청소년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92.5%). 그러나 설문대상 청소년 중 약 40%는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약 80%는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약 60%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들은 자국 빈곤층과 타국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약 80%, 약 70%), 개발도상국 문제 중 질병, 빈곤, 보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약 70%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음.
-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홍보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 경험과 실태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직접 참가자들은 모집 공고나 가족 혹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전교육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인식한 것은 현지 언어교육이었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준비 과정에서 현지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단위 봉사단의 경우 사전 교육을 위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비교적 장기간 현지에 파견되는 KOICA 일반봉사단원의 경우 활동 과정에서 개인 역량을 발휘하여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대사협 자원봉사단의 경우에는 문화교류 등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꼽았음. 또한 관리자들은 팀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깨닫는 한편, 팀원들은 팀 내에서 상호학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민국청소년 자원봉사단의 경우 참여한 청소년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지인들과의 더 많은 교류시간을 제안하였음.

○ 이들 중 대부분은 자원봉사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특히 자신의 존재 의미나 행복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도 하였음. 또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도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사후 유사 지역에 파견되는 단원들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했고, KOICA 봉사단원의 경우에는 귀국 직후 한국사회 재적응이나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향후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음. ① 참가 기회 확대, ② 청소년을 위한 인식 교육 확산, ③

홍보 확대, ④ 해외자원봉사 내용의 개선, ⑤ 효율적인 사전 교육, ⑥ 해외자원봉사의 근본 취지에 대한 교육, ⑦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수행된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영역의 정책과제와 11가지 세부 추진내용을 제안하였음.
- 첫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으로 ①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담조직 마련, ②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성, ③ 관련 법제 개선을 세부 추진내용으로 제안하였음.
- 두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으로 ①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 ②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반영, ③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를 세부 추진내용으로 제안하였음.
- 세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으로 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② KOICA ODA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③ 여성가족부 고유 청소년 ODA 사업 개발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세부 추진내용으로 제안하였음.
- 네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으로 ①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② 청소년지도자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를 세부 추진내용으로 제안하였음.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8
4. 연구 추진 체계 ····· 10

Ⅱ. 선행연구 고찰 ····· 11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개 과정 ····· 13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현황 ····· 18
3. 외국 사례 고찰 ····· 44
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분석 ····· 67

Ⅲ. 국제개발협력 관련 청소년 인식 및 참가 실태 ····· 91
1. 설문조사 개요 ····· 93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 95
3. 요약 및 소결 ····· 125

Ⅳ.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 경험과 실태 ····· 129
1. 면담조사 개요 ····· 131
2. 면담조사 내용 분석 ····· 136
3. 요약 및 소결 ····· 191

Ⅴ. 결론 ····· 199
1. 요약 ····· 201
2. 정책 제언 ····· 203

참고문헌 ····· 233

부 록 ····· 241
부록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설문지 ····· 243
부록 2. 청소년지도자 면담지 ····· 248
부록 3. 청소년 면담지 ····· 250

Abstract ····· 253

표 목 차

〈표 Ⅱ-1〉 WFK 해외봉사단 통합 현황 ····· 19
〈표 Ⅱ-2〉 정부 해외인턴 파견 현황 ····· 21
〈표 Ⅱ-3〉 해외인턴파견사업 개요 ····· 22
〈표 Ⅱ-4〉 청소년교류 대상 국가 ····· 23
〈표 Ⅱ-5〉 2013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현황 ····· 24
〈표 Ⅱ-6〉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 ····· 25
〈표 Ⅱ-7〉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 만족도 총합 ····· 26
〈표 Ⅱ-8〉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만족도의 사업별 비교 ····· 27
〈표 Ⅱ-9〉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이유 ····· 29
〈표 Ⅱ-10〉 성인과 청소년의 ODA 관련 인식 비교 ····· 30
〈표 Ⅱ-11〉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인지 여부 ····· 31
〈표 Ⅱ-12〉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 평가, 연구 관련 예산 추이(2009-2013) ····· 32
〈표 Ⅱ-13〉 2013년 KOICA 홍보사업 예산 내역 ····· 32
〈표 Ⅱ-14〉 ODA교육원 교육과정 ····· 34
〈표 Ⅱ-15〉 OECD DAC의 국제개발협력 지원 영역 중 교육 영역 일부 ····· 41
〈표 Ⅱ-16〉 KOICA 해외자원봉사단의 국내 주요 교육내용 ····· 42
〈표 Ⅱ-17〉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자원봉사단의 국내 주요 교육내용 ····· 43
〈표 Ⅱ-18〉 대한민국청소년해외봉사단의 사전교육 내용 ····· 43
〈표 Ⅱ-19〉 OECD 회원국의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현황(2006년 기준) ····· 45
〈표 Ⅱ-20〉 영국 ICS의 해외봉사자 선발 수 ····· 50
〈표 Ⅱ-21〉 영국 ICS의 연간 예산 및 지출현황 ····· 51
〈표 Ⅱ-22〉 영국 VSO의 해외봉사자 및 파견 국가 수 ····· 53
〈표 Ⅱ-23〉 영국 VOS 예산규모 중 DFID 지원 비율 ····· 54
〈표 Ⅱ-24〉 일본 JOCV의 해외봉사자 수 ····· 56
〈표 Ⅱ-25〉 2013년 기준 JOCV의 주요 활동 지역 ····· 56

〈표 Ⅱ-26〉 JOCV를 포함한 일본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지원 예산 규모 ····· 57
〈표 Ⅱ-27〉 호주 AVID의 해외봉사자 및 파견국가 수 ····· 59
〈표 Ⅱ-28〉 아일랜드 VC의 해외봉사자 및 수혜자 수 ····· 61
〈표 Ⅱ-29〉「국제협력개발기본법」 개정 연혁 ····· 75
〈표 Ⅱ-30〉 제19대 국회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법률안 분석 ····· 79
〈표 Ⅱ-31〉 시행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예산 현황(2011～2012년) ····· 82
〈표 Ⅲ-1〉 연구대상의 성별/연령/권역별 분포 현황 ····· 94
〈표 Ⅲ-2〉 설문조사 내용 ····· 95
〈표 Ⅲ-3〉 해외자원봉사단 인지 여부 ····· 96
〈표 Ⅲ-4〉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 97
〈표 Ⅲ-5〉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 ····· 99
〈표 Ⅲ-6〉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 ····· 101
〈표 Ⅲ-7〉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의 개발도상국 도움 정도 ····· 102
〈표 Ⅲ-8〉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3순위) ····· 103
〈표 Ⅲ-9〉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순위 ····· 104
〈표 Ⅲ-10〉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106
〈표 Ⅲ-11〉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 107
〈표 Ⅲ-1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 109
〈표 Ⅲ-13〉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 110
〈표 Ⅲ-14〉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 ····· 111
〈표 Ⅲ-15〉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 112
〈표 Ⅲ-16〉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 114
〈표 Ⅲ-17〉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 115
〈표 Ⅲ-18〉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 117
〈표 Ⅲ-19〉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 118

〈표 Ⅲ-20〉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 119
〈표 Ⅲ-21〉 자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 120
〈표 Ⅲ-22〉 타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 122
〈표 Ⅲ-23〉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 시급성 ····· 123
〈표 Ⅲ-24〉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 125
〈표 Ⅳ-1〉 면담조사 내용 개요 ····· 132
〈표 Ⅳ-2〉 자료 수집 방법 ····· 133
〈표 Ⅳ-3〉 자료 분석 방법 ····· 133
〈표 Ⅳ-4〉 면담 참가자 개요 ····· 134
〈표 Ⅴ-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내용 ··· 204
〈표 Ⅴ-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 205
〈표 Ⅴ-3〉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거와 필요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 207
〈표 Ⅴ-4〉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을 위한 학교급별 교육내용 ····· 217
〈표 Ⅴ-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내용 발굴 방안 ····· 219
〈표 Ⅴ-6〉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사업 개선 방안 ····· 222
〈표 Ⅴ-7〉 여성가족부 ODA 예산 ····· 228
〈표 Ⅴ-8〉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해외자원봉사 관련 예산 내역 ····· 22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 10
【그림 Ⅱ-1】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 만족도 총합 ····· 26
【그림 Ⅱ-2】 ODA 교육원 일반교육프로그램 과정 ····· 35
【그림 Ⅱ-3】 영국 ICS의 해외봉사자 출신 지역 분포 ····· 50
【그림 Ⅱ-4】 영국 ICS의 해외봉사자 연령대 분포 ····· 51
【그림 Ⅱ-5】 2013/14 영국 VOS의 예산 구성 ····· 53
【그림 Ⅱ-6】 영국 VOS의 활동분야별 지출내역(2013/14) ····· 54
【그림 Ⅱ-7】 아일랜드 VC의 2013 예산내역 ····· 62
【그림 Ⅱ-8】 아일랜드 VC의 2013 지출내역 ····· 62
【그림 Ⅱ-9】 아일랜드 VSO의 2012/13 예산 구성 ····· 64
【그림 Ⅱ-10】 아일랜드 VSO의 2012/13 지출내역 ····· 65
【그림 Ⅱ-1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파견 인력 정보 관리체계 ····· 88
【그림 Ⅲ-1】 해외봉사단 인지 여부 ····· 96
【그림 Ⅲ-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 97
【그림 Ⅲ-3】 해외봉사단 활동 참여 이유 ····· 98
【그림 Ⅲ-4】 해외봉사단 활동 불참여 이유 ····· 100
【그림 Ⅲ-5】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의 개발도상국 도움 정도 ····· 102
【그림 Ⅲ-6】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3순위) ····· 103
【그림 Ⅲ-7】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105
【그림 Ⅲ-8】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 107
【그림 Ⅲ-9】 해외봉사단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 108
【그림 Ⅲ-10】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 109
【그림 Ⅲ-11】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 ····· 111
【그림 Ⅲ-12】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 112
【그림 Ⅲ-13】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 113
【그림 Ⅲ-14】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 115

【그림 Ⅲ-15】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 116
【그림 Ⅲ-16】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 118
【그림 Ⅲ-17】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 119
【그림 Ⅲ-18】 자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 120
【그림 Ⅲ-19】 타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 121
【그림 Ⅲ-20】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 시급성 ····· 123
【그림 Ⅲ-21】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 124
【그림 Ⅳ-1】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 경험과 참가자 제안 ····· 196
【그림 Ⅴ-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협의체 ····· 209
【그림 Ⅴ-2】 여성가족부 고유 청소년 ODA 사업 개발의 예 ····· 227

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추진 체계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수준 및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2차 대전 후 지구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전쟁피해국 및 신생독립국의 재건 지원에서 비롯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수립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의 핵심목표로 절대빈곤퇴치가 공식 채택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로부터 나아가 2010년 이후로는 기후변화, 국가간 분쟁, 공정무역 등 범지구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조체계에 대한 구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 대표되는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상, 무상 원조 사업으로 한국의 경우 1987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설립, 1991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에서의 공여국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책무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는 국내의 여러 부처와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의지를 보였다. 또 2010년 10월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권율・이주영, 2012: 1). 특히,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 이 장은 조혜영 교수(공주교대)가 집필하였음.

중 130번째 과제인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133번 과제인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 및 국가간 협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4.2%로 나타났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6.8%, ‘전혀 모른다’ 17.4%). 즉,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대외원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ODA 정책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11). 특히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의 대상 연령인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 및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글로벌 인턴 사업 등에 참가 대상인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 및 역할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당면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모색과도 관련이 높다고 할 것이다.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ODA에 대한 지역별 지원 방향이 수립되어 있고, KOICA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원봉사 파견, 청년인턴 파견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파견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참여 기간 이후의 후속 대책, 현지에서의 실태 및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중장기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하여 관련 논의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박숙경·김소희·오세정(2011), 윤철경 외(2011)의 연구에서는 2010년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이해증진도 및 글로벌 역량을 조사하는 한편 국제교류 참여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국제교류 사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최희선(2010)의 연구 역시 KOICA의 청소년 개발분야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한계점이 있다.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들(서홍란·박정란, 2014; 이창호·김연우, 2012; 황기우, 2010) 역시 그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국제개발협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해외자원봉사에

관한 논의는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과 청소년 분야의 연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요구 및 한국사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전기 및 후기청소년 세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상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전지구적 이슈와 현안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해외자원봉사 및 국제협력사업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과 타 국가 사례, 기존 참가자의 경험 등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청소년 세대의 글로벌 사회 참여 및 청소년정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전개과정, 관련 제도 및 법령 분석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등) 전개과정과 관련 제도, 법령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한국이 전쟁 후 해외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변화과정을 살펴보았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추진체계, 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2)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현황 및 실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개과정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왔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부분을 고찰하였다. 그간 이루어져왔던 청소년정책 분야에서의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분야 정책 영역이 ODA 사업과 연계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영역에서 이루어져왔던 국제교류사업,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 청소년해외자원봉사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 및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3) 국내 및 외국사례 검토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 영역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내의 유관 정책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ODA 사업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외자원봉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지원해왔던 영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및 참가 실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직접적인 참여형태인 해외자원봉사 사례에 보다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참여 외에 일시적인 캠페인이나 성금 모금, 기부 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취지로도 볼 수 있지만 단발성 이벤트로 간주될 수 있어 제외하였다.

(1) 전반적인 인식 및 참가 실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국이 해외 원조 공여국 모임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지구촌 사회에서의 국제적인 이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전반적인 인식 수준 파악과 함께 직접 참가 경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참가 의사와 관련한 교육 희망 정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2) 직접 참가 사례에 대한 분석

① 참가 동기 및 사전 교육 파악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가 이전, 현지 경험, 참가 후의 활동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가하게 된 계기, 참가하기 위해 정보를 접하는 경로 및 선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참가하기 전 가지고 있던 의도와 참가 목적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이 참가를 결정하고 난 뒤 이루어지는 사전교육 내용, 교육방식, 교육의 유용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현지 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내용, 상호작용 방식 등이 향후 현지 주민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활동 이전 참가자들의 태도와 사전교육 이후의 인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개인적, 실리적 동기 차원, 단순한 이력관리 차원의 참가 태도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② 현지 활동 경험 실태 파악

현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참가 이전의 기대에 활동 경험이 부응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당면과제와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활동 국가 및 지역, 활동 내용, 활동 성격에 따라 부딪히는 당면과제와 향후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도 파악하였다.

③ 사후 관리 실태 파악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는 사후 관리 방식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들의 현지에서의 활동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역량과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회자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참여 인력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5)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의 대외적 위상이 증진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세대들의 글로벌 역량과 국제사회에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영역에 대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중 교육분야에서의 청소년개발 및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계 방안 모색, 현재의 국제교류사업과 해외자원봉사 사업의 방향성 전환과 영역 확대, 청소년 세대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해외자원봉사 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개과정과 현재 실태 등에 대해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청소년 참가 분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대학생 해외봉사, 글로벌 인턴 참여 관련 연구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각 부처 및 주요기관에서 실시해 온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추진 및 전개과정 등을 파악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추진되어왔던 국제교류 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정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와 인식 수준 등에 대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해외자원봉사 직접 참가 신청 연령인 만 15세부터

만 2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총 2,21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면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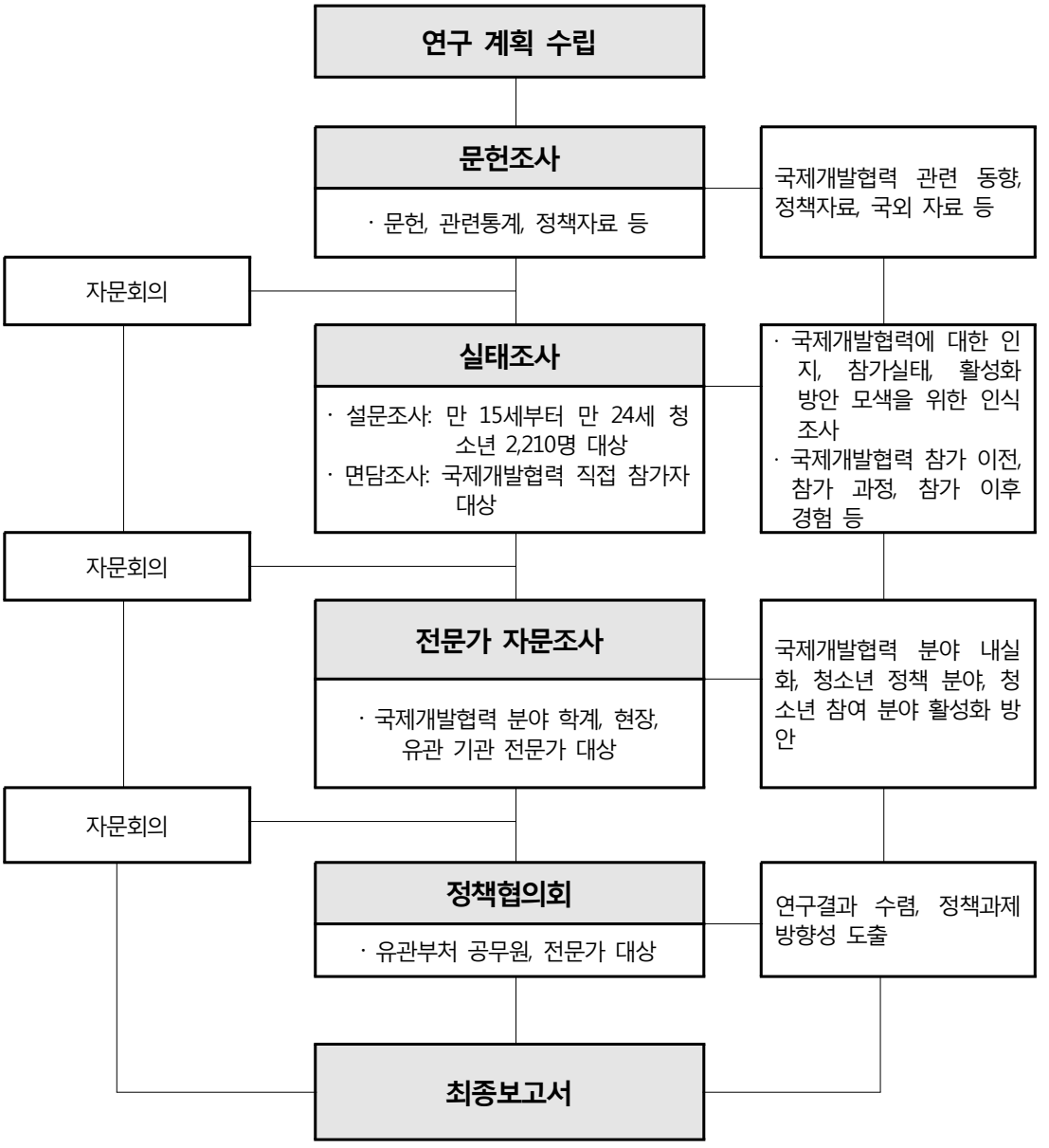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우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면담 대상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KOICA의 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 대사협 주관의 해외자원봉사 참가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참가 경험 청소년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참가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인솔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과도 면담을 실시하여,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조사의 참가 대상 규모와 조사 내용은 Ⅳ장에 제시하였다.

4) 전문가 정책협의회 및 자문조사

연구 초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참여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학계 인사,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현장의 전문가,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 등을 통해 연구 방향 수립 및 실질적인 자료 수집, 협력 방안에 대한 자문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영역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 분야의 학계, 유관 부처 공무원,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의 학계, 현장, 기관 및 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분야와 국제개발협력 연계 방안 및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총 20인의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반영하였다.

4. 연구 추진 체계



【그림 Ⅰ-1】연구 추진 체계

제 Ⅱ 장

선행연구 고찰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개 과정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현황
3. 외국 사례 고찰
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분석

제 II 장
선행연구 고찰*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개 과정

1)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내외 환경

먼저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현실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한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최빈국으로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1960년대 이후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점차 OECD 국가의 반열에 오르며, 주요 공여국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책무성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과 함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참여과정 및 국제개발협력의 근본 취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ODA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를 비롯하여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수출신용, 민간투자와 같이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는 공여국이 수원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적 관점보다는 상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원조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협력방식의 필요성을 함의한다.[1] 국제개발협력 백서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b).

---

* 이 장의 1~2절은 조혜영 교수(공주교대)가 집필하였고 3절은 이태주 교수(한성대), 4절은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집필하였음.

1)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4년 2월 13일 인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를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빈곤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개발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원조(Aid)와 관련해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a: 8~9).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2)]

(2)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2000년 UN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로, 다차원적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절대빈곤과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가지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고 달성 기한이 구체화되었다. 8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3)]

2)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http://law.go.kr/lsInfoP.do?lsiSeq=115231#0000 2014년 2월 14일 인출.
3)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①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Eradicate extreme poverty & hunger)
②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③ 남녀평등 및 여성 인권 신장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④ 아동 사망률 감소 (Reduce child mortality)
⑤ 모성 보건 향상 (Improve maternal health)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⑦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⑧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과정

한국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최빈국의 상황에서 미국, 일본, UN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던 수원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서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여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는 해외로 전문가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4)]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우리 경제가 성장하자 개도국으로부터의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점차 우리 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가 확대되었다. 1975년 노동부가 개도국 기능공 초청연수를 시작했고, 1977년에는 외무부가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5)]

1980년대에 들어서는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

4)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5)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된다.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되었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ODA 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 재무부가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기금의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게 된다. 1989년 EDCF은 나이지리아에서 최초의 차관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1989년 정부는 UNESCO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을 시작한다.[6)]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7)]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KOICA는 1992년 프로젝트사업과 1995년 국제협력요원파견 및 민간원조단체(NGO)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및 1993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조융자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95년에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국제협력연수센터(ICTC)를 개원하였다. 1996년에는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빈곤저개발 상태의 신생 도상국 중에서 최초로 경제협력체 회원국에 합류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국제 원조 사회에 한걸음 다가서게 된다.[8)]

2000년대 들어, 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원조공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입으로 다자간 원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7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또한 2006년 최초로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

6)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7) KOICA: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KOICA를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1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23&efYd=20140117#0000 2014년 3월 18일 인출.
EDCF: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촉진(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865&efYd=20110502#0000 2014년 3월 18일 인출.
국제보건의료재단: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1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8639&efYd=20100319#0000 2014년 3월 18일 인출.

8)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경험을 전수하고, 한국과 아프리카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한다. 2006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단일 브랜드 "World Friends Korea"가 출범하였다. 2010년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여,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9)]

한국이 다른 공여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ODA 규모를 늘려왔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ODA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2012년 OECD의 ODA 지원 실적에 따르면, 한국의 ODA 규모는 약 16억불로 28개 DAC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집계되어 22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ODA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 이후 해마다 ODA 규모를 증가시켜왔으나, 당초의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는 ODA/GNI 비율이 0.16%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적용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향후 ODA 규모 확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135).

(4)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기반 및 근거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0년대 들어 개별 주관부처에서 ODA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1년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에 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개별 법률은 전체 ODA의 이념이나 철학, 핵심가치에 대한 언급보다는 사업대상으로써 개발도상국과 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104).

이러한 가운데 2006년 1월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유·무상 원조기관들의 정책조율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법적 권한 미비와 부처간의 갈등관계로 위원회가 통합조정체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명확한 목적 구조와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9) ODA 코리아(2012).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 2014년 2월 17일 인출.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한국 ODA의 이념 및 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추진체계와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에 집중하였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모호한 정의를 내려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104~105).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현황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후기청소년 연령대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 사업과 청소년 연령대 전반에 걸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국제개발협력과 청소년 직접 참여

해외자원봉사의 경우는 주로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해외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어왔다. 한국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은 199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에 장기 자원봉사자 44명을 파견한 이래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출범하면서 유네스코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조문영, 2013: 54). 이와 함께 1996년 9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창립되어, 1997년부터 전국의 207개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로 해외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참가해왔다(이재득, 2011).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늘어나면서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여러 차원의 세계화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해외 방문과 체류 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이태주, 2011: 35).

(1) World Friends Korea 해외자원봉사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개발협력 차원에서의 해외자원봉사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5년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에서 'Voluntary'라는 용어가 언급된 이후 UN은 사회개발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실은 2002년 UN총회에서 결의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권고(Recommendations on support for volunteering)로 나타났으며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협력의 하나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0)]

한편, 지난 정부는 2008년 4월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방안 중 하나로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해외자원봉사자 2만명을 파견하기로 계획하였다. 같은 해에 "청년 해외봉사사업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의 단일브랜드화가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KOICA의 해외봉사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한국연구재단의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등 각 행정부처에서 분산 시행하던 해외봉사단 사업이 하나의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로 통합되었고, 이후 2010년 5월 KOICA의 중장기자문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퇴직전문가, 세계태권도봉사재단의 태권도평화봉사단이 추가적으로 통합되면서 봉사단 별로 수립되던 예산이 통합되었다. 2011년에는 태평양아시아협회(PAS)의 대학생봉사단이 WFK-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으로 추가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개 부처, 7개 시행기관, 7개 봉사단이 통합되었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2).

표 II-1 WFK 해외봉사단 통합 현황

주관 부처	시행기관	WFK	주요 내용	파견 기간	파견 대상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WFK-한국해외봉사단 (Korea Overseas Volunteers, KOV)	사업목표: 개도국 현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대개도국 우호협력관계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증진, 그리고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사회환원 일반봉사단원[11)]: 일반, 시니어, 새마을, 산학 일정수준의 자격을 가진 20세이상 62세 이하 남녀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	2년	20-62세 국민

10) 월드프렌즈코리아(2014). http://www.worldfriendskorea.or.kr/view/voluntary.about.do 2014년 11월 1일 인출

주관 부처	시행기관	WFK	주요 내용	파견 기간	파견 대상
			NGO봉사단원: NGO 전문성 활용 개도국 지원		
		WFK-중장기자문단 (World Friends Advisors, WFA)	퇴직전문가의 지식 및 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빈곤퇴치에 기여 국내 퇴직 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 도모	6개월-1년	퇴직가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WFK-대한민국 IT 봉사단 (Korea IT Volunteers, KIV)	정보화 진행이 느린 개도국 대상 대학생, 졸업생, 일반인 등으로 구성	4-12주	청년층
교과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KUCSS)	WFK-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 (Korea University Volunteers, KUV)	방학 중 2-3주간 활동하는 단기 해외봉사 프로그램 교육봉사: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영어교육, 태권도 교육 특화봉사: 로봇교육, 컴퓨터 교육, 농업 교육, 의료 및 보건 교육, 재활치료 교육	2-3주	대학생
	태평양아시아협회 (PAS)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태평양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파견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육 등의 활동 위주 사업 진행	1년	
	한국연구재단 (NRF)	WFK-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Korea Techno Peace Corps, TPC)	이공계 전공으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전공 관련 과학기술 강의, 기술지도 및 컨설팅 위주의 활동	1년	이공계 학위 소지자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WFK-퇴직전문가 (Korea Senior Experts, KSE)	지식경제부 5대 산업자원정책분야인 산업기술, 정보통신, 지역발전,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분야를 위주로 전력시스템, 물관리 및 가뭄관리 시스템, 환경시스템, 정보통신, 전자정부 등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 포함	1개월-1년	퇴직자
문광부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WFK-태권도평화봉사단 (Korea Taekwondo Peace Corps, TPCorps			청년층

* 출처: 글로벌발전연구원(2012). 해외자원봉사단 종합평가. pp. 26~47, p. 98.

11) 일반봉사단원은 우리나라 해외봉사사업 역사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진 20세 이상 62세 이하의 남

(2)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청년세대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해외자원봉사 사업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확정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① 해외취업 5만 명, ② 해외인턴 3만 명, ③ 해외봉사 2만 명, 총 10만 명을 양성하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사업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청년 해외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K-Move』를 추진한다. 주로 글로벌 인재 해외진출 프로그램으로 해외취업, 해외창업, 해외인턴, 해외봉사를 포함하고 있다.[12] 고용・산업・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K-Move』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해당국 취업을 위한 현지 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13]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대한민국 대학생과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세계로 확대하고, 해외 기업 등에서의 인턴활동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감각과 해외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수요자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14]

표 II-2 정부 해외인턴 파견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	한미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340	379	375	373	403	1870
2	대학 글로벌현장학습	300	329	373	233	144	1379

녀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단신부임형태이며, 파견기간은 2년이지만 봉사단원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봉사단원은 다시 일반봉사단원, 시니어봉사단원, 새마을리더봉사단원, 산학협력봉사단원으로 나뉜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26).

12) K-Move(2014). http://www.worldjob.or.kr/kmove/usr/program/job/support/view01.do 2014년 2월 11일 인출.

13) 민간고용서비스포털(2013). http://www.knesa.or.kr/bbs/noticeView.do?bbsNo=2250&menuCd=060102 2014년 2월 11일 인출.

14) 국립국제교육원(2012). http://www.ggi.go.kr/html/intern/about/intern04.jsp 2014년 2월 11일 인출.

연번	프로그램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912	653	589	612	558	3324
4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	–	–	28	20	20	68
5	글로벌무역 인턴십	151	157	153	123	125	709
6	플랜트 해외인턴	402	402	400	280	243	1727
7	전시회 해외인턴	300	300	302	156	217	1275
8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	–	–	–	102	158	260
9	중소기업 해외인턴	–	–	186	237	214	637
10	해외관광 인턴십	–	105	95	104	51	355
11	외식기업 해외인턴	–	–	140	110	50	300
12	국제전문 여성인턴	27	24	29	32	39	151
13	물류인력해외인턴	–	–	–	60	61	121

* 출처: 국립국제교육원(2014). http://www.ggi.go.kr/html/info/archive/info01_v.jsp# 2014년 2월 11일 인출

표 II-3 해외인턴파견사업 개요

사업 구분	프로그램명	부처(시행기관)	인턴기간
글로벌 역량 강화	한미취업연수(WEST)프로그램	교과부(직접)	18개월 이내
	대학 글로벌현장학습	교과부(대교협)	4-6개월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교과부(전문대교협)	4-6개월
	예비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	교과부(유네스코아태교육원)	12개월
	국제전문 여성인턴	여가부(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6개월 이내
취업 연계 강화	글로벌무역 인턴십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6개월
	플랜트 해외인턴	지식경제부(플랜트산업협회)	3개월
	전시회 해외인턴	지식경제부(전시산업진흥원)	3개월
	해외한인기업 해외인턴	지식경제부(세계한인무역협회)	3개월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	6-8개월
	해외관광 인턴십	문체부(한국관광공사)	6개월
	외식기업 해외인턴	농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6-12개월
	물류인력 해외인턴	국토부(한국통합물류협회)	6개월

* 출처: 정부해외인턴사업평가단(2013)에서 일부 발췌 p. 21.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중 역량강화사업군은 대부분 선진국으로의 파견율이 높으며, 취업연계사업군은 대부분 ODA 대상국가・개발도상국가로의 파견율이 높다. 2012년의 경우 파견인원

2,440명 중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 파견된 인턴 수는 1,345명(55.1%)이며, 중남미, 아프리카 등 ODA 대상국가,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된 인턴 수는 1,095명(44.9%)으로 나타났다(정부해외인턴사업평가단, 2013: 28).

(3) 청소년정책 분야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영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최근에 시작되었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청소년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주도의 정책사업을 국제개발협력 차원과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시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청소년국제교류 현황

국제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그간 청소년분야에서 '국제교류활동'으로 통칭되어 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되며, 이 때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활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김민, 2011: 108).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1979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후 2012년에는 21개국과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21개국에 303명 파견, 317명 초청 등 총 620명과 교류를 실시하였다. 2012년 현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국은 총 32개국으로 아시아 10개국, 유럽 10개국, 중남미 3개국, 중동과 아프리카가 9개국이다(여성가족부, 2013: 112~116).

표 II-4 청소년교류 대상 국가

지역	국 가
아시아(10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유럽(10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남미(3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중동 · 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카메룬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다음으로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행사참가단과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이 있다. 국제회의・행사참가단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라는 모토로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왔다. 2013년에 이루어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5 2013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현황

구분	교류규모	시기 및 기간	주요내용	참가대상
국가간 청소년교류	- 총 623명 ・초청 18개국 304명 ・파견 22개국 319명	4~11월 (6~15일 내외)	교류활동, 기관예방, 세미나,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만16세~24세 청소년
한·중청소년 특별교류	- 총 485명 ・1차 중국파견 198명 ・2차 중국파견 287명	6·9월 (7박8일)	청소년기관예방, 교류활동, 가정방문, 문화체험 등	만16세~24세 청소년
국제회의·행사 파견	- 총 42명 ・동아리 4개팀 22명 ・개인 20명	2월~11월 (4~21일 내외)	해외의 국제회의·행사 파견으로 청소년 파견	만9세~24세 청소년
청소년해외 자원봉사	- 총 457명 ・9개국 23개팀	7~8월 (10일 내외)	마을시설보수, 교육 봉사 등 해외자원봉사 등	만15세~24세 청소년
총 계	1,607명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2013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p.18에서 재인용

②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중 해외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파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노력봉사, 교육봉사 등 저개발국 아동・청소년・지역주민 등을 위한 활동 및 문화체험 등이 주를 이룬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5세~24세 청소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청소년정책 사업 중 국제개발협력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아래와 같은 사업배경과 활동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사업 배경은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체득하기 위한 사회참여 현장을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 빈곤, 평화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2012: 19).

사업목적

-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활동에 참여
- 청소년의 직업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현장의 해외 확대
-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함양과 역량강화
-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 체득을 위한 인도주의적 세계관 배양
-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현실적 경험과 건강한 국가관 형성
- G20체제에 대응하는 한-아세안 관계증진을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협력 활성화

2013년까지 진행된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6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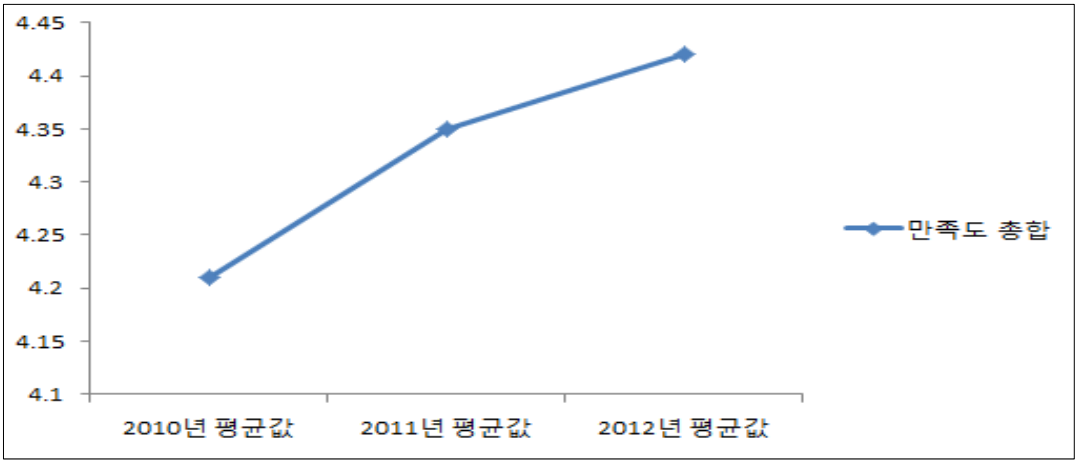
시기	시행국가	파견팀	파견인원	비고
2005	1개국	1개	35명	캄보디아
2006	14개국	23개	436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2007	16개국	32개	593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2008	12개국	41개	715명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2009	12개국	34개	630명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2010	12개국	34개	654명	태국,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2011	11개국	34개	704명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중국, 태국
2012	5개국	8개	160명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013	9개국	23개	457명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 출처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2012).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 2014년 5월 29일 인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청소년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운영, 활동, 시기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2010년에는 4.21점, 2011년에는 4.35점, 2012년에는 4.42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청소년 자원봉사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II-7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 만족도 총합 (단위: 5점 만점)

구 분	2010년 평균값	2011년 평균값	2012년 평균값
만족도 총합	4.21	4.35	4.42



*출처: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2012). 2012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 활동보고서.

【그림 II-1】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 만족도 총합

또한 2013년에 실시되었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유형에 대한 비교에서도 전체 프로그램 중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보면 사전워크숍, 파견국 현지의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 현지음식, 숙박시설,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인솔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만족도에 비해 높았다(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111~112).

표 II-8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만족도의 사업별 비교

만족도 영역	국가간 청소년교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한 · 중청소년 특별교류		국제회의 · 행사 파견	
	평균 (표준편차)	100점 만점 환산점수	평균 (표준편차)	100점 만점 환산점수	평균 (표준편차)	100점 만점 환산점수	평균 (표준편차)	100점 만점 환산점수
전반적 만족도	4.38 (.68)	87.5	4.57 (.72)	**91.3**	4.29 (.78)	85.7	4.47 (.76)	89.3
사전워크숍 프로그램의 내용	3.89 (.87)	77.7	4.26 (.90)	**85.1**	3.70 (1.05)	73.9	4.13 (.98)	82.5
사전워크숍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일정	3.82 (.88)	76.3	4.23 (.92)	**84.5**	3.64 (1.04)	72.7	3.95 (1.11)	78.9
파견국 현지 프로그램의 내용	4.20 (.73)	83.9	4.49 (.78)	**89.7**	3.97 (.93)	79.3	4.47 (.71)	89.3
파견국 현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일정	4.12 (.78)	82.3	4.45 (.81)	**88.9**	3.97 (.93)	79.3	4.19 (.91)	83.7
교류기간	3.93 (.97)	78.5	4.12 (.96)	**82.3**	3.88 (.95)	77.5	4.30 (.83)	85.9
현지 음식	4.01 (.90)	80.1	4.23 (.94)	**84.5**	3.89 (1.03)	77.7	3.88 (1.07)	77.5
현지 숙박시설	4.30 (.91)	85.9	4.35 (.86)	**86.9**	4.21 (.98)	84.1	4.23 (.92)	84.5
현지 교통수단	4.34 (.80)	86.7	4.50 (.74)	**89.9**	4.41 (.73)	88.1	4.34 (.67)	86.7
현지 통역안내 서비스	4.39 (.98)	87.7	4.30 (.95)	**85.9**	4.23 (.87)	84.5	4.12 (.74)	82.3
인솔자	4.18 (1.14)	83.5	4.70 (.77)	**93.9**	4.40 (.98)	87.9	4.47 (1.20)	89.3
전체점수	4.14 (.49)	82.7	4.38 (.61)	**87.5**	4.05 (.62)	81.0	4.23 (.49)	84.5

* 출처: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2013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p. v

2) 국제개발협력 관련 청소년 인식 실태 및 관련 사업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교육과 함께 2010년 ODA 교육원 출범으로 비로소 교육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식 실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면 차세대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조사는 권율・이주영・유애라(2014)의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일반인 대상 조사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일부 문항 비교를 위해 청소년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전국의 15세부터 18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반면, 성인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19세부터 60대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의 대규모 조사가 부재한 가운데, 청소년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포함하는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경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도는 젊은층과 학생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8년도 조사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20대는 36.7%, 30대는 51.7%, 40대는 52.6%, 50대는 62%를 보이고 있다(김은미・김지영・이재은, 2011: 121~122).

그리고 권율・이주영의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응답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1,000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후기청소년이 포함된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응답자 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참여 이유에서 보다 실리적인 이해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국제평화와 안정유지'(18.6%),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의적 책임과 의무'(19.9%)라는 이유보다는 '수출 및 투자확대 등 경제협력 확대'(24.4%)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권율・이주영, 2012: 18).

표 II-9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국제사회일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의무	수출및 투자확대등 경제협력확대	과거에 우리도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의 정치적 동맹강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법치실현	개발도상국의 지원요청에 대해돕기위해	개발도상국의 테러방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민을 억제하기위해	기타	계
전 체		1,000	21.6	21.1	20.1	17.3	6.7	5.7	3.1	3.0	1.1	0.3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6	19.9	24.4	12.2	9.5	6.8	4.5	2.3	1.8	0.0	100.0
	30대	205	24.9	19.0	22.0	12.2	7.8	7.3	2.9	2.9	1.0	0.0	100.0
	40대	218	21.6	22.5	20.2	18.8	6.9	4.1	2.3	2.3	0.9	0.5	100.0
	50대	186	23.7	19.9	18.8	19.4	4.8	5.9	2.7	3.8	1.1	0.0	100.0
	60대 이상	170	19.4	24.7	13.5	25.9	3.5	4.1	2.9	4.1	0.6	1.2	100.0

* 출처: 권율 · 이주영(2012).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p. 18.

한편 권율・이주영・유애라의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15세부터 18세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경우 역시 성인들에 비해 대외원조 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 중 84%로 일반인 응답자 중 긍정적 응답 비율 87.3%에 비해 약간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에 비해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ODA와 관련하여 성인과 청소년의 인식 정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인 대상 조사와 청소년 대상 조사의 문항이 동일하지 않고, 일부 문항만 같기 때문에 전체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책임 및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1.6%가 '매우 중요하다' 64.4%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 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6%가 개도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및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 중 90.8%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에 비해서 다소 높은 비율이다(권

율・이주영・유애라, 2014: 109).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는 청소년(45.8%)에 비해 성인(64%)이 훨씬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인(40%)에 비해 청소년이(79%)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79~285). 이러한 경향은 향후 청소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10 성인과 청소년의 ODA 관련 인식 비교[15)]

조사내용	결과(%)	
	성인	청소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36.3%	47.2%
개도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책임 및 참여의 중요성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94.7%	96%
한국정부가 개도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	87.3%	84%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	58.4%	77.6%
한국이 개도국에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	64%	45.8%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40%	79%

* 출처: 권율・이주영・유애라(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pp. 179-285 재구성.

대외원조 관련 국민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2.2%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22.4%,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5.4%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기청소년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는 19세부터 29세의 응답자의 경우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1.6%에 불과하여 더욱 낮았다. 더욱이 과거 3년 동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의 조사 결과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2012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15.7% 포인트 증가하였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40).

15) 성인대상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 실시하였고, 청소년대상 조사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21.4%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8.6%(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1.4%, 전혀 모른다 57.2%)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 연령대가 포함된 19세부터 29세의 조사 대상자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표 II-11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①+②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③+④	계
전체		1,000	2.8	18.6	21.4	21.4	57.2	78.6	100.0
성별	남자	502	3.0	19.3	22.3	23.1	54.6	77.7	100.0
	여자	498	2.6	17.9	20.5	19.7	59.8	79.5	100.0
연령별	19~29세	184	1.6	14.1	15.8	22.8	61.4	84.2	100.0
	30대	201	1.0	17.9	18.9	22.4	58.7	81.1	100.0
	40대	222	3.6	20.7	24.3	22.5	53.2	75.7	100.0
	50대	202	4.5	21.8	26.2	22.3	51.5	73.8	100.0
	60대 이상	191	3.1	17.8	20.9	16.8	62.3	79.1	100.0

* 출처: 권율 · 이주영 · 유애라(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p. 51.

결국, 국제사회의 MDGs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달성 노력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인식 제고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태는 관련 예산 집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ODA Watch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현상 유지나 소폭 증가에 불과함을 보이고 있다. 홍보, 평가, 연구 관련 예산은 비록 파트너국의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한국 ODA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사업 규모가

16) 권율 · 이주영 · 유애라(2014)의 2013년 ODA 국민인식 조사 연구에서 MDG에 대한 인지도와 한국의 DAC 가입 여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만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조사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의 인지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예산 배분 과정에서 홍보, 평가, 연구 사업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해나가는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들에게 ODA에 대해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KOICA의 홍보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구촌 체험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홍보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된다. EDCF의 경우 개발협력 인식증진을 위해 올해 6억원 이상을 쓸 계획이다.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제고를 위해 두 기관 모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17]

표 II-12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 평가, 연구 관련 예산 추이(2009-2013)

(단위: 백만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KOICA 전체 예산	**366,082**	**431,800**	**495,418**	**497,477**	**541,269**
홍보	1,200(0.3%)	1,440(0.4%)	1,796(0.5%)	1,796(0.5%)	1,796(0.5%)
사업평가	800(0.2%)	800(0.2%)	1,000(0.3%)	1,180(0.3%)	1,280(0.3%)
연구조사	1,220(0.3%)	1,390(0.3%)	1,710(0.3%)	1,900(0.4%)	1,900(0.4%)
EDCF 전체사업비				**627,689**	**682,375**
사업심사평가연구				891(0.1%)	1,130(0.2%)
개발협력인식증진				513(0.1%)	654(0.1%)

* 출처: ODA Watch 뉴스레터(2013)에서 재인용.

표 II-13 2013년 KOICA 홍보사업 예산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12(A)	2013(B)	증감(B-A)	%
계	17.96	17.96	-	-
대언론 홍보활동	3.50	2.78	△0.72	△20.6
홍보물 제작	4.95	4.64	△0.31	△ 6.3
홍보행사	0.90	1.36	0.46	51.1
지구촌체험관 관리	3.22	5.02	1.80	55.9
민간파트너십 홍보	2.83	1.60	△1.23	△43.5
사업행정비	2.56	2.56	-	-

* 출처: ODA Watch 뉴스레터(2013)에서 재인용.

17) ODA Watch 뉴스레터(2013). http://www.odawatch.net/32377 2014년 6월 11일 인출.

유럽의 선진원조 공여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대적인 원조자금 증액은 적극적인 대국민 인지제고 및 개발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1990~2000년 ODA 증액 시기에 홍보의 일환으로 ODA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고, 이 백서에 자국 국민들이 해외원조 및 국제개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 유럽 전반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ODA/GNI 0.7% 달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가능한 것은 지난 40년간 영국 내에 활성화된 개발교육의 영향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가 국제개발 및 개발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EU는 2005년에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일반적 합의(The General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에서 'EU는 EU 시민들에 대한 개발교육과 인지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다양한 개발교육 지원 펀드를 구축하여 EU 국가들의 개발교육 성장을 지원하여 왔다(KOICA · ODA교육원, 2014: 4~5).

(2)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 관련 사업

① KOICA ODA교육원의 개발교육

아일랜드의 정부원조기관인 Irish Aid의 경우 '개발교육과 시민사회(Development Education & Civil Society)' 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경우도 '교육과 파트너십 팀(Education & Partnership Team)'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정부원조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2010년 KOICA ODA교육원을 신설하여, 정부차원의 개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상황이다. KOICA의 개발교육은 크게 ODA교육원[18] 과 지구촌체험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차세대 대상의 개발교육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개별 학교의 요청에 의해 초, 중, 고로 KOICA 임직원들이 파견되어 ODA, 국제개발협력, 진로 등에 대해서 1~2시간의 강의를 제공하는 차세대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1회성 강의에서 벗어난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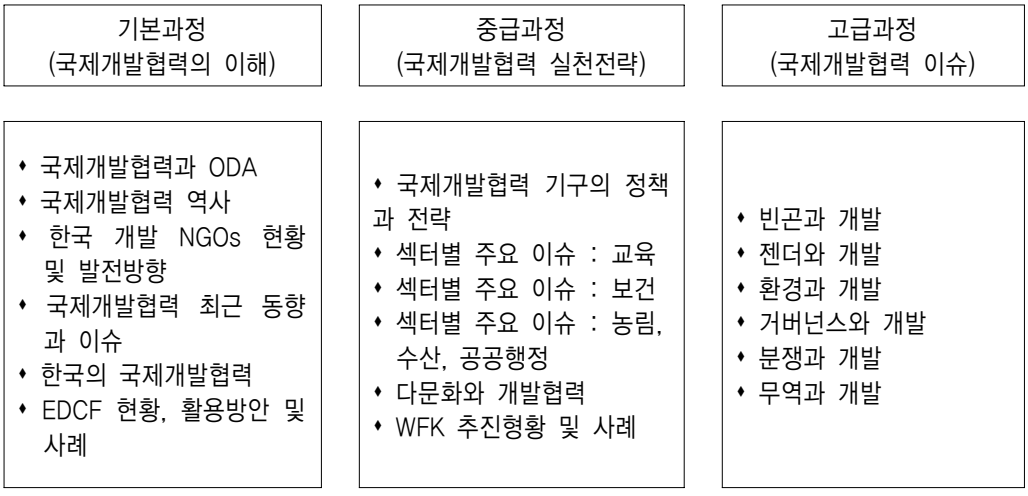
18) KOICA ODA교육원은 2010년 3월에 개원하였다. 개원초기에는 국제개발협력과 ODA,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KOICA 사업유형과 실행체계 등 일반교육과 사업관리교육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현재 범위를 확장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과정, 환경, 젠더, 인권 등의 범분야 교육과정, 교육, 보건, 건축과 같은 분야별과정 등 심도 있는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체 및 관련기관 대상 파견강의를 제공하는 맞춤교육,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TED형식으로 이루어지는 ODA 지식나눔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KOICA · ODA교육원, 2014: 9).

5차시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ODA동아리를 5개 시범학교를 통해 실시중이다. 이를 위해 KCOC(Korean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공동으로 초, 중, 고 대상의 개발교육 교재를 발간하였다. 차세대를 교육하는 초, 중, 고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ODA교육원은 2012년부터 교사대상의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을 시에는 하루 만에 정원 100명이 마감되는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으며, 2014년 교육의 경우도 35명 정원의 교육과정에 70명이 넘는 대기자를 보이는 등 개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었다(KOICA · ODA교육원, 2014: 9~10). 그러나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기회와 제도화는 부족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

표 II-14 ODA교육원 교육과정

교육명	대상	내용
정규교육과정	일반인, 사업참여자	국제개발협력 및 ODA 전반 (일반교육), KOICA사업관리교육, 주제별, 섹터별, 범분야별 교육 제공
맞춤교육	기업체 및 관련기관 대상의 맞춤파견강의	요청기관의 필요에 맞게 교과목 구성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대학생	대학교에 국제개발협력과목 개설 지원 및 강사파견
차세대특강	초, 중, 고	요청학교에 강사 파견하여 1-2시간 강의 제공
차세대교육 시범학교	초, 중, 고	5개 학교 ODA동아리 5차시 교육 제공
교원연수	초, 중, 고 교원	동계 및 하계 2박 3일간의 연수과정 제공
ODA 지식나눔강연회	일반인	연 1회 개최되는 일반인 대상의 강연회

* 출처: KOICA · ODA교육원(2014). 개발교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p. 10.



* 출처: ODA 교육원(2013).

【그림 II-2】 ODA 교육원 일반교육프로그램 과정

② KOICA 지구촌체험관의 개발교육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개발 및 글로벌 이슈를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KOICA 지구촌체험관도 한국 개발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일본의 경우 JICA Global Plaza와 아일랜드의 Irish Aid Volunteering and Information Center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구촌체험관의 개발교육 관련 활동에는 전시, 교육프로그램, 지구촌시민학교 등이 있다. 먼저 지구촌체험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상설 전시이다. 지구촌체험관은 몽골, 아프리카, 잉카,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등 국별 전시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민관협력, 사막화, 기후변화 등 개발 이슈를 다루는 글로벌 전시,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식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여행, 해외긴급구호, 환경 등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체험관은 2011년과 2012년에 총 2회에 걸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공동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구촌시민학교를 개설하여 글로벌 이슈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직접적인 개발교육은 아니지만,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교과서에 KOICA 및 해외봉사단원활동 및 국제개발협력내용 게시 노력 등이 있다(KOICA · ODA교육원, 2014: 11).

3) 청소년정책과 국제개발협력 과제

(1)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과정의 당면 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과 당면과제: 관련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현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전문성, 인적자원, 시설 및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지만 참여기회나 협력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여러 출연연구원이 개별적으로 OD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나아가 해외자원봉사 파견 등 국제개발협력 참가에 있어서도 국제기구 인턴 파견, UNV(United Nations Volunteers)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인턴 및 자원봉사자 파견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다(관계부처 합동, 2010). 20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Win-Win형 ODA 추진을 위해 해외봉사단(WFK) 4,735명 및 ODA 청년인턴 450명을 파견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또한 참여인력확대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기본 인식과 철학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② 공여국 위주의 개발협력 참여 개선 필요

국제사회는 원조를 주는 국가의 국익 중심 원조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자원과 식량 확보를 위한 원조, 상품 시장과 투자확대, 기술과 제도의 지배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조를 경계하고 비난하고 있다(이태주, 2012). 한국이 최빈국의 위치로부터 압축적 성장을 성취하고 이러한 가난 탈출의 비법을 이웃나라에 전수한다는 명목은 “한국형 ODA” 혹은 “한국형 원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었다(김지만・김예란, 2013: 12; Watson, 2012). 아시아 국가들의 ODA모델 연구에서도 한국형 원조가 수원국 중심의 원조가 아닌 한국의 원조 수혜 경험을 통한 개발 모델이 되어서는 안됨을 지적하고 있다(Watson, 2012). 한국형 원조라는 이름으로 개발국가 모델을 수출하거나, 환경과 인권,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물질 만능의 개발주의를 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조 사업이 현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현지 문화와 복잡한 정치, 경제, 지역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이태주, 2012). 즉, 수원국의 입장이 아닌 공여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한 자원 외교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김동훈, 2012; 이태주, 2012)

③ 참가자의 실리 추구 태도

국가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가와 함께 기업의 해외자원봉사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봉사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해외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적 신뢰 및 현지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다(조문영, 2013).

세계화와 글로벌화에 대한 담론은 이미 김영삼 정부에서 정책 구호였으며, 한국 청년들의 해외 경험에 대한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왔다. 한국 청년들의 유학, 여행, 해외봉사와 취업 등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에서 해외 자원봉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증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청년 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의 세계화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어왔다(이태주, 2011: 35). 결국 청년세대는 개인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향후 구직을 위하여 준비하는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취업스펙 5종 세트는 학점, 연수, 토익, 공모전, 해외봉사라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김지만・김예란, 2013: 13). 해외봉사활동은 참가자 개인의 스펙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체험으로 추가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조문영, 2013).

실제로 ODA Watch의 국제개발협력 전문 뉴스레터에서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태도는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개발협력의 철학이나 윤리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ODA Watch 실행위원회, 2012: 1~2).

④ 국제개발협력 홍보 및 교육, 참여기회 확대 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 및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중 77.6%가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 응답자의 58.4%가 대외원조 관련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청소년이 일반인에 비해 대외원조 관련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20).

대외원조 관련 인식이나 경험 정도는 대외원조에 대한 참여 의사의 적극성과 관련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외원조를 찬성하는 응답자의 경우 23.1%가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18.8%가 대외원조 관련 경험을 접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대외원조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56.5%)고 응답했다. 원조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2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21). 또한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단순히 정보를 접해본 응답자 수에 비해 대외원조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원조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14%로, 이 비율은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22.4%)보다 현저히 낮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26).

한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기부나 캠페인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비교적 다수 있었지만, 해외자원봉사 참가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도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67.4%가 재정적 기부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캠페인 활동에 36.2%, 물품 구호에 35.7%, 봉사활동에 16.7%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41). 반면에 청소년들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와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55.9%)와 봉사활동 참여(53.7%) 등 직접적인 참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50). 결국,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해외봉사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는 100% 원조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 방문기회 확대, ODA 활동 및 맞춤형 참여프로그램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180).

(2) 청소년정책 분야와 국제개발협력 연계

①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세대에 속하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참여는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개별 대학 차원이나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김용주, 2011; 김지만・김예란, 2013; 이석열, 2004; 이재득,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이환・조수연・김매이・정효경, 2011). 한편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청소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청소년정책영역과 관련하여 ODA사업으로 체계화시켜 개발하고자 하는 논의는 거의 없다.

청소년정책 영역에서도 명시적으로 ODA관련 사업 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아왔지만, 청소년정

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정부 차원의 국제청소년교류, KOICA가 운영하는 해외청소년봉사단 프로젝트, 국제기구 및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국제교류협력 활동도 증가 추세이다. 2010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KOICA, 삼성전자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국민은행과 한국 YMCA전국연맹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추진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라오스 방비앤 지역 푸딘댕 청소년센터 사업, 품청소년문화공동체의 네팔 베시 마을에서 추진 중인 해피 빌리지 프로젝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 프로젝트 등이 있다(김민, 2011: 108~110).

②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청소년정책 콘텐츠 접목 필요

청소년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에 비해 이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시킬 전문인력이 매우 적은 실정이며, 실제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청소년분야에서 최초로 수행된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KOICA의 ODA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병원과 보건소, 학교, 직업훈련원 HRD센터 등에 집중되어왔으나, 팔레스타인 정부의 2007년 국가발전계획, 2004년 팔레스타인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2007년 파리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고, 2009년 2월 팔레스타인의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규학교시설과 비형식교육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김민, 2011: 110~112).

청소년센터의 건립과 함께 한층 더 진전된 사업으로 인력을 통한 지식, 기술, 소양 전파 등 핵심교육 및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전수하고, 나아가 청년해외봉사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이 하드웨어 건립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였던 반면, 이제는 시설 건립을 넘어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김민, 2011: 130).

국제개발협력분야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국내의 청소년활동, 청소년시설 내의 활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국제협력활동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외연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계의 취약 부분으로 지적되는 해외협력 및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하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 등이 체계화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 ODA지원에 따른 청소년 분야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ODA예산 중 청소년 관련 시설 건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교부, KOICA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청소년시설 지원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에 핵심적인 정책과제 및 사업의 하나로 여겨지는 청년자원활동과 연계하여 해외협력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KOICA 해외청년봉사단 프로젝트 내의 세부 섹션에 청소년개발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립되는 해외 청소년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자원봉사인력 파견의 근거지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김민, 2011: 131~133).

더욱이 청소년정책 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방향성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다. 20여년이 넘게 이어져 온 방문단 파견 등의 방식을 넘어서서 사업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기존 사업에 추가해야 할 사업으로 개발협력(ODA)과 연계한 해외봉사활동이 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이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해 개발해야 할 1순위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윤철경, 2011: 192, 195).

③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교육분야와 연계한 청소년개발 분야 연계 및 활성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청소년개발 분야의 역할에 대하여 직접 현지 참여 경험과 면담을 통하여 그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최희선, 2010). 이 연구에서는 KOICA의 청소년개발 분야에서 활동했던 청소년지도자 9명, 타 분야 해외봉사단원 4명, 청소년개발 분야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라오스 현지 청소년 17명과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에 참여했던 5명의 현지 지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개발 분야는 KOICA에서 처음으로 파견한 분야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나 KOICA측에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현지 청소년들이나 지도자들은 KOICA 청소년개발 분야 사업이 라오스 현지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청소년개발 분야는 지원 영역 중 교육 분야의 기초교육 분야에서 초등과 중등교육 내의 비형식 교육분야, 기본 생활 기술 분야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15 OECD DAC의 국제개발협력 지원 영역 중 교육 영역 일부

지원 영역 코드	하위 영역	내용
교육분야(Education)		
(Education, Level Unspecified)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Education sector policy, planning and programmes; aid to education ministrie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s; institution capacity building and advice; school management and governance; curriculum and materials development; unspecified education activities.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Educational buildings, equipment, materials; subsidiary services to education (boarding facilities, staff housing); language training; colloquia, seminars, lectures, etc.
	Teacher training	Teacher education (where the level of education is unspecified); in-service and pre-service training; materials development.
	Educational research	Research and studies on education effectiveness, relevance and quality; systematic evaluation and monitoring.
기초교육 (Basic education)	Primary education	Formal and **non-formal primary education** for children; all elementary and first cycle systematic instruction; provision of learning materials.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for basic life skills for young people** and adults (adults education); literacy and numeracy train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mal and non-formal pre-school education.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Second cycle systematic instruction at both junior and senior levels.
	Vocational training	Elementary vocational training and secondary level technical education; on-the job training; apprenticeships; including informal vocational training.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Degree and diploma programmes at universities, colleges and polytechnics; scholarships.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Professional-level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in-service training.

* 출처: OECD(2014). http://www.oecd.org/dac/stats/dacandcrscodelists.htm 2014년 6월 12일 인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협력 분야 중 기초교육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않다. 현재 기초교육에 대한 담론이 없으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분야의 지원은 주로 하드웨어적 지원인 학교 건설이나 개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초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교육분야에서도 기초교육 지원계획이 단기, 중,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유성상, 2010: 240~241).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KOICA 해외자원봉사단으로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자원봉사단에 따르면 이들이 현지에서 수행한 역할 중 주요 내용이 청소년 개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결국, 국제개발협력 지원 분야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 수립에 청소년정책 영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OICA의 일반봉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현지에서의 아동과 청소년들과의 해당 업무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봉사단의 사전 교육시에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활동 지도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봉사단의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된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을 접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청소년개발 영역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 및 준비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표 II-16 KOICA 해외자원봉사단의 국내 주요 교육내용

교육과정	주요 교육내용
현지어 교육	- 국별 현지어 기초회화 및 문법 - 현지어 자율학습
봉사정신 함양교육	- 봉사의 개념 및 봉사자의 자세 확립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의 자세 - 저소득층 가정 연탄배달, 장애우 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실습 - 우리음식만들기 및 체육활동 등 외부활동을 통한 단합심 고취
소양교육	-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우리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글로벌이슈 토의 및 발표수업, 우리문화 익히기 및 봉사단 청렴교육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및 체험교육
안전관리교육	-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교육 - 보건위생 및 현지풍토병 예방 교육 - 예방접종(파상풍, A형간염, 독감, 장티푸스)
기타	- 입교식, 발단식 - 여권발급, 출국지원 등 행정업무

* 출처: KOICA(2012a), http://kov.koica.go.kr/hom/sub/info/info03/Hom_me_3020.jsp 2014년 5월 29일 인출

표 II-17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자원봉사단의 국내 주요 교육내용

교육과정		주요 교육내용
기본교육 및 1차 심화교육	주제강연	-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생
	소양교육	- 성인지 교육
	전문교육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현지어 기초교육 - 파견국별 문화 및 기초 지식 교육
	실무교육	- World Friends Korea 소개 - 봉사단 역할 안내 - 대사협 및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이해 - 해외봉사 실제 - 파견 실무교육 - 항공관련 제반 사항 등
	분임토의	- 파견 팀별 자체 모임 4회
2차/3차 팀별 심화교육	- 팀별 봉사활동 실무 및 파견교육 - 현지어 교육 등	

* 출처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2014). 2014년 하계 단기 28기 WFK청년봉사단 발대식 및 기본교육. pp. 5-13.

표 II-18 대한민국청소년해외봉사단의 사전교육 내용

	구분	구성	세부내용	비고
사전교육	1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꿈과 사람속으로 사업이해	- 여성가족부 본 사업에 대한 일반적 소개 및 주관단체 협력 현황	3회 의무시행
	2	성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강사섭외 진행 - 이성·동성 간 지켜야 하는 예의 - 성추행시 발생되는 상황·처벌 등	
	3	해외봉사 활동 시 필요한 청소년 참가자의 역할	- 협동심, 해당국에 대한 이해 - 참가자 이행사항(서약서)	
	4	봉사활동 예절교육	- 현지 나라, 지역, 시설, 등에 대한 이해 및 태도	
	기관별 교육		- 봉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 목적	
안전교육	1	응급처치요령	- 심폐소생술 - 응급대처 시뮬레이션	1회 의무시행
	2	비상연락망 구성 및 교육	- 시뮬레이션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4). 2014년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사업 길라잡이. p. 82.

(3)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효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나마 수행되었던 연구는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이 급속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고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해외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국내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편 미만이고, 그 중에도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이창호・김연우, 2012: 245).

일부 연구에서 보이는 해외자원봉사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여름 아시아, 아프리카 6개국에서 실시된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가했던 227명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활동 지속의지에서 각각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이창호・김연우, 2012: 264).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은 자기 자신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에 거주하면서 지구촌의 아동과 주민들을 돌본다는 점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기우, 2010).

한편 제개발협력 분야는 청소년 개인들의 글로벌 역량 증진 및 봉사정신 함양 등의 효과가 있는 동시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업과 민간단체의 해외 진출 증가와 청년들을 위한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후기)청소년들에게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태주, 2011).

3. 외국 사례 고찰

주요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영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국제동향

전통적 의미의 해외봉사활동의 시초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해외봉사활동의 시초는 '국제 워크캠프(International workcamp)'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국제 워크캠프는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공동의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모인 청년들이 프랑스 시골 작은 마을에서 2~3주간 돌담을 쌓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19]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차원 해외봉사활동의 시작은 1950년 호주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봉사단의 확산은 1961년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 캐나다, 일본 등도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였다. 1971년에는 유엔이 유엔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을 출범시켰고, 다국적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UNV 프로그램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에 봉사단원을 보내는 유일한 시도로서, 최근 해외봉사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남남협력", "남북협력"을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해외봉사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점점 다양해져, 정부지원 봉사단뿐만 아니라 민간 NGO 및 기업,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도 단기 혹은 장기해외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20] 여러 국가의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봉사단 뿐 아니라 민간 NGO, 종교단체, 대학 등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는 곳은 수없이 많지만, OECD 회원국의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을 중심으로 살펴 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9 OECD 회원국의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현황(2006년 기준)

유형	국명	감독기관	사업실시기관	봉사단명	설립 년도	봉사단 파견인원 (연간활동인원)
정부 기관 실시	미국	Peace Corps	Peace Corps	Peace Corps	1961	7,749명

19) KOICA(2012b). http://kov.koica.go.kr/hom/sub/info/info02/Hom_me_2040.jsp 2014년 5월 29일 인출.
20) KOICA(2012b). http://kov.koica.go.kr/hom/sub/info/info02/Hom_me_2040.jsp 2014년 5월 29일 인출.

유형	국명	감독기관	사업실시기관	봉사단명	설립 년도	봉사단 파견인원 (연간활동인원)
정부 산하 기관 실시	한국	외교부	KOICA	KOV	1990	1,650명 (2009)
	일본	외무성	JICA	JOCV	1965	2,496명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DED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1963	1,496명 (2005)
	룩셈부르크	외교부	Lux-Development	JTA (Junior Technical Assistant)	1978	7명
	벨기에	외교부	BTC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SVCD (L'idée du Service Volontaire à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2006	29명(2006) 100명 계획 (2007) *현 활동 (32명, 2007.3)
NGO 실시	그리스	외교부 대외원조실 (Hellenic Aid)	NGO 다수	별도 명칭 없음	1999	미파악
	노르웨이	외무부 산하FK (Fredskorpset) 영문: Peace Corps	국내외 정부기관, 기업, 대학, NGO	별도 명칭 없음	1963	243명 (2005)
	뉴질랜드	NZAID	VSA (Volunteer Service Abroad)	VSA	1962	152명
	네덜란드	외교부	SNV (Netherland Development Organization)	SNV	1963	937명 (2005)
			PSO41개 NGO 연합체	별도 명칭 없음	1980	매년 약 700명
	덴마크	외무부 산하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Agency)	MS (Mellemfolkeligt Samvirke) 영문: Danish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MS	1944 *봉사단 파견 (1963)	400명

유형	국명	감독기관	사업실시기관	봉사단명	설립 년도	봉사단 파견인원 (연간활동인원)
	미국	USAID	NGO 및 기업(220개)	VfP (Volunteer for Prosperity)	2003	21,000명
	아일랜드	Irish AID	APSO (Agency for Personnel Services Overseas)	APSO	1974	미파악
	영국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VSO (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	1958	1,748명 (2005/06)
			IS (International Service)	별도 명칭 없음	1953 *자선단체 전환 (1998)	미파악
	캐나다	외무부 산하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USO (Canadian University Services Overseas)	CUSO	1961	293명 (2005)
	프랑스	외교부	AFVP (Association Francaise des Voluntaros du Progres) 영문: French Association of Volunteers for Progress	AFVP	1963	320명
			DCC (Catholic Delegation for Cooperation)	별도 명칭 없음	1967	661명 (2005)
	호주	AUSAID	ABV (Australian Business Volunteers)	ABV	1981	매년 200~300명
			AVI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AVI	1951	765명 (전체 프로그램) 453명 (VP 프로그램)

유형	국명	감독기관	사업실시기관	봉사단명	설립 년도	봉사단 파견인원 (연간활동인원)
			Austraining International	VIDA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Australia)	2005	350명
				AYAD (Australian Youth Ambassadors for Development)	1998	매년 230명
	스위스	외무부 산하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UNITE (25개 개발협력기관 및 교회 연합단체)	별도 명칭 없음	1964	171(2006)
	스웨덴	외무부 산하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Forum Syd (약 200개 NGO연합단체)	별도 명칭 없음	1995	60명
	이탈리아	외무부	Voluntari nel mondo – focsiv (60여개 NGO연합체)	별도 명칭 없음	1972	3,463명 (2005)

* 출처: KOICA(2012b). http://kov.koica.go.kr/hom/sub/info/info02/Hom_me_2040.jsp 2014년 5월 29일 인출.

2) 주요국의 해외자원봉사 사례와 시사점

(1) 영국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봉사단 파견기관은 1958년에 설립된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와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ICS)이다. VSO에서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단은 25세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ICS(International Citizen Service) 프로그램과 25세 이상 75세 이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은 ICS로, 이 사업은 2012-2015년 3년간 7000명의 영국 청년들에게 국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민성을 개발하도록 하고 나아가 협력국가의 빈곤문제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의 주요 해외봉사단 운영 NGO, 협력국가의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어 영국 청년들이 개발사업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하고, 국제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사업이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76).

ICS는 정부가 주도하는 봉사단원이며, 봉사단원을 모집, 선발하는 과정에서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연소득 기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지역에 따른 배분, 인종간 배분, 성별 배분, 학력간 차별 금지 등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봉사단원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기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중상류층 자녀 위주 참가, 특정 국가와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달리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영국청년들의 세계시민성 고취에 있다. 하지만 12주라는 비교적 짧은 교육 훈련기간, 사업 추진기간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79).

ICS는 영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한 대표적인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국의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2-15년(3년)동안 국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봉사단원의 자기계발과 시민의식의 개발, 파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한 빈곤퇴치를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영국의 원조전담 기관인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기획과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운영은 9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ICS consortium[21]이 맡는다. VSO는 ICS consortium을 이끄는 주요기관으로서 DFID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2012년 3월 시작된 ICS는 2015년 8월까지 14,000명의 봉사자를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영국에서 7,000명의 봉사자를 선발하고 나머지 7,000명은 현지 파견국의 지역 봉사자로 선발한다. 선발된 봉사자는 12주의 기간 동안 파견 국가의 봉사자와 함께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ICS는 현재(2014년 3월 기준) 총 24개국에 3,644명의 봉사자를 파견하였고,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21) ICS consortium은 VSO(Voluntary Service Overseas), International Service, Progressio, Restless Development, Raleigh International, Tearfund, Islamic Relief, Catch 22, IFRC(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Crescent) 총 9개 단체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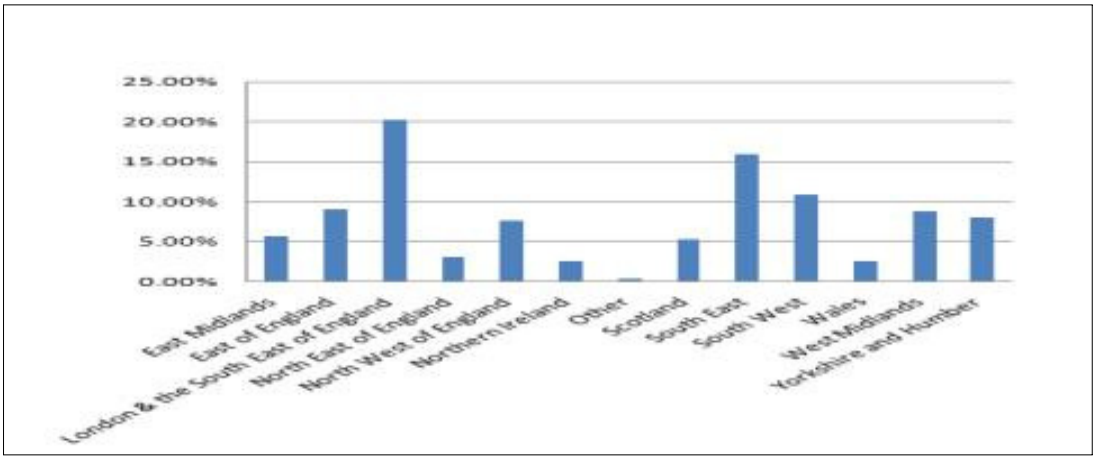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14개 국가[22] 46개 지역에 87개의 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ICS 프로그램의 봉사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표 Ⅱ-20> 참고).

표 II-20 영국 ICS의 해외봉사자 선발 수

(단위: 명)

	2011/12 (pilot)	2012/13	2013/14
영국의 봉사자 수	863	449	579
현지 파견국의 봉사자 수	863	478	361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특징에 대해 DFID에서 분석한 자료[23]에 따르면, 참여한 봉사자들의 출신이 영국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별 분포를 보이며([그림 Ⅱ-3]), 참여 연령대 또한 19-24세에 걸쳐 다양함을 알 수 있다([그림 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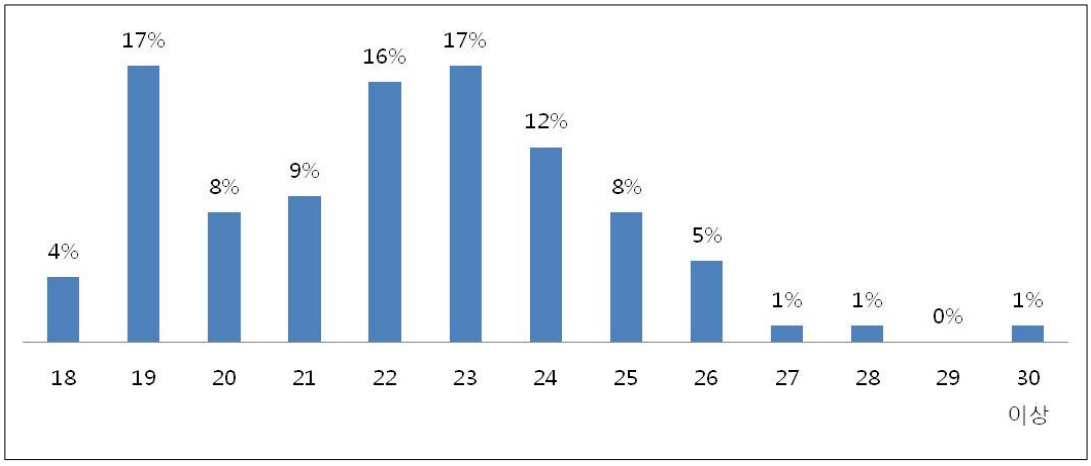


* 출처: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2014). volunteer statistics: 2013-2014

【그림 II-3】 영국 ICS의 해외봉사자 출신 지역 분포

22)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네팔, 나이지리아, 필리핀, 시에라리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잠비아와 짐바브웨.

23)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2014). volunteer statistics: 2013-2014.



* 출처: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2014). volunteer statistics: 2013-2014

【그림 II-4】 영국 ICS의 해외봉사자 연령대 분포

ICS는 재원의 90%를 DFID를 통해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봉사단원의 모금활동(fundraising)을 통해 충당한다. 2012년 3월 DFID는 3년 반 동안 ICS 프로그램에 대해 5,500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표 II-21>은 VSO 연간보고서에 나타난 ICS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과 지출 현황을 보여준다. 이 중 예산내역은 계약에 따라 VSO가 DFID로부터 제공받는 구속성 보조금(restricted grant)을 나타낸다.

표 II-21 영국 ICS의 연간 예산 및 지출현황

(단위: 만 파운드)

	2011/12 (pilot)	2012/13	2013/14
예산(보조금)	480	740	1690
지출	450	730	1530

ICS는 자격 요건에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VSO가 전문성과 경력을 강조한 반면, ICS는 18세 이상 25세 이하라는 나이 기준을 만족하면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거주지가 영국 내에 위치하며 적어도 12개월 동안 거주하는 참가자로 제한하고, 모금활동(fundraising)과 사전교육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참가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혹은 기관이 포함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그룹 면접(ICS group selection day)이 진행되고, 평가에서 통과되면 파견기관을 방문하여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봉사자로 선정되면 파견되기 전, 참가비용을 명목으로 800파운드 이상이 요구되는데 이는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한다.

ICS는 사전교육을 위한 현지 파견기관 방문에 사용되는 여행경비와 숙박비를 제공하고, 현지기관은 파견 봉사자에게 항공료, 교통과 의료보험, 숙소와 음식 등을 제공한다. ICS는 세계시민의식을 기르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적을 바탕으로 봉사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혹은 더 넓은 세계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한편, VSO는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해 '빈곤을 함께 퇴치하도록 사람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자선단체이다. 빈곤퇴치와 이를 통한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며, '사람이 먼저(People First)'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그들에게 해외봉사는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VSO 프로그램은 중요한 개발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빈곤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VSO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2014년 3월 기준) 15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봉사자를 파견하고 있다. VSO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48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었고, 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의 35개국 국가[24]에서 교육, 보건, HIV/AIDS, 참여와 거버넌스, 생계보장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년의 봉사자 수와 파견국가 수의 변화는 <표 Ⅱ-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2014년 봉사자 수는 1,48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파견국가의 수도 2010~2011년과 비교할 때 40개국에서 35개국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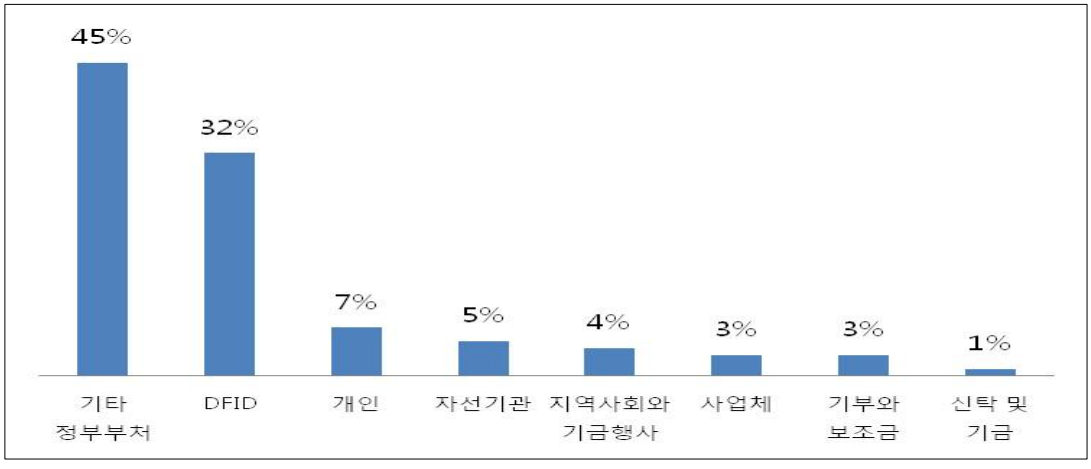
24)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남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바누아트

표 II-22 영국 VSO의 해외봉사자 및 파견 국가 수

(단위: 명(파견자 수), 개(파견 국가 수))

	2010/11	2011/12	2012/13	2013/14
봉사자 수	2,600	2,240	1,845	1,487
파견국가 수	40	40	34	35

2014년 VSO의 예산규모는 2013년 5,710만 파운드에서 20% 증가한 6,870만 파운드이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영국의 원조전담 기관인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전략적인 보조금(grant) 지급, 프로젝트의 입찰과 모금활동(fundraising expenditure)을 통한 수익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II-5]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기타 정부부처 45%, DFID 32%, 개인 7%, 자선기관 5%, 지역사회와 기금행사 4%, 사업체 3%, 기부와 보조금 3%, 신탁 및 기금이 1%로 나타난다.



* 출처: VSO(2014).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3/14.

【그림 II-5】 2013/14 영국 VOS의 예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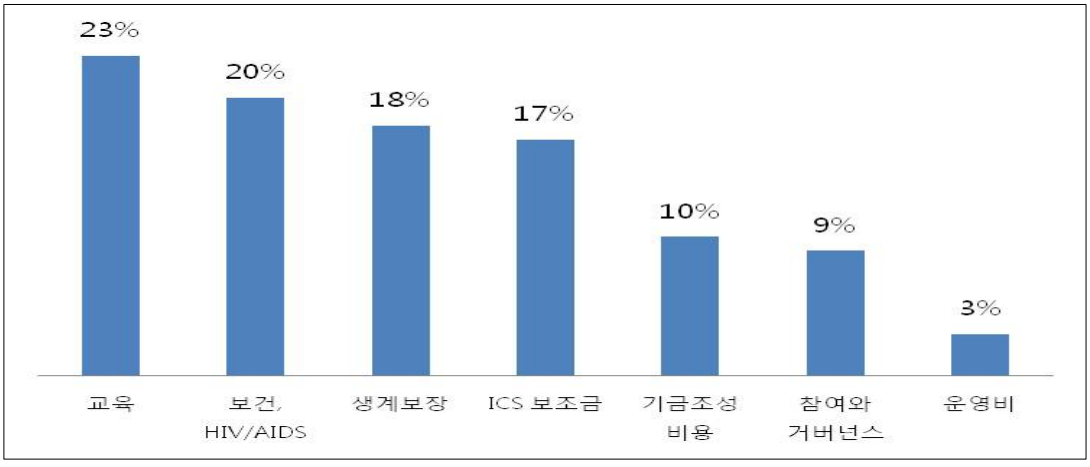
<표 II-23>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DFID의 지원율은 점차 감소하면서 다른 채널을 통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23 영국 VOS 예산규모 중 DFID 지원 비율

(단위: 만 파운드)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예산규모	5,470	5,600	5,710	6,870
DFID 지원율	52%	54%	46%	32%

2014년 VSO의 활동분야별 예산 지출을 살펴보면, 교육 23%, 보건, HIV/IDS 20%, 생계보장 18%, ICS(International Citizen Service) 17%, 기금 조성 비용 10%, 참여와 거버넌스 9%, 운영비 3%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II-6]).



* 출처: VSO(2014).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3/14.

【그림 II-6】 영국 VOS의 활동분야별 지출내역(2013/14)

VSO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농업, 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경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4세 이상 75세 이하로서 18개월 이내의 활동이 가능하고 전문분야에서 3~5년간의 경험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허가를 위한 공식적인 서류(학위, 범죄확인서, 의료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봉사자로 파견되기 전, VSO의 모금담당자(봉사자 전담)와 함께 985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VSO는 온라인을 통해 등록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평가한 후, 적격판정을 받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식 지원서를 작성하게 한다. 정식 지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파견 현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룹 활동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를 평가한다. 평가에 통과한 지원자에게는 파견 전 국내연수와 파견 후 현지연수가 제공된다. 선발 과정은 통상적으로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VSO에서 파견된 봉사자는 현지에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현지사무소의 관리를 받는다. 또한, 봉사자는 귀국 항공료, 근무지 숙소, 생활비, 봉사수당, 의료비용, 연간 3주 휴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VSO는 귀국 봉사자의 본국 적응을 돕기 위한 전담팀(Volunteer Return team)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의 인트라넷(Learning Hub)을 통해 본국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VSO의 직원, 전담팀, 프로그램 참여봉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Returned Volunteer Weekend)을 제공한다.

(2) 일본

일본의 ODA는 1954년 콜롬보 계획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고, 1962년 해외기술협력단(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OTCA)을 설립하여 전문 해외원조협력 기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해외협력봉사단(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CV)은 일본국제협력단보다 9년 앞선 196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의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은 1974년에 해외기술협력단과 일본이민국(Japan Migration Service)을 합병하여 창설되었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50~51).

일본의 해외봉사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반 봉사단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일본계 주민이 형성한 니케이 공동체로 파견하는 니케이 봉사단이다. 일반 봉사단은 나이에 따라 2종류의 봉사단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본 해외협력봉사단(JOCV)은 1965년 발족되었으며, 20~39세 사이의 봉사단원을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파견한다. 둘째, 시니어 봉사단(Senior Volunteer)은 1990년 발족되었으며 40~69세 사이의 봉사단원을 1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파견한다. 니케이 봉사단 역시 나이에 따라 2종류의 봉사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해외 일본공동체 봉사단(Youth Volunteer for Overseas Japanese Community)은 니케이 일본 해외협력 봉사단(Nikkei JOCV)이라고도 불리며 1985년 발족되어 20~39세 사이의 봉사단을 2년 동안 파견한다. 둘째, 시니어 해외 일본공동체 봉사단(Senior

Volunteer for Overseas Japanese Community)은 니케이 시니어 봉사단이라고도 불리며, 1990년 발족되었고 40~69세 사이의 봉사단원을 2년 동안 파견한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52).

JOCV는 20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2년 동안 파견되는 장기 봉사단과 1년 이하의 단기봉사단으로 나뉜다. "현지 지역사회와 함께(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현지 주민들과 생활하고 협력하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국과 일본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봉사단원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가 일본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1965년 3월 봉사단이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2013년 기준) 88개 국가에 총 38,294명의 봉사자들이 파견되었다.[25] 봉사단원들은 농업, 삼림, 어업, 교육, 보건 등의 상위 분야를 포함하는 9개의 파견 분야와 200여개의 세부 직종(sub-sector)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II-24>는 JOCV의 지난 4년간 봉사자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10년에 비해 절반가량이 줄어든 948명(71개국)이 파견되었다.

표 II-24 일본 JOCV의 해외봉사자 수 (단위: 명(파견자 수))

	2010	2011	2012	2013
봉사자 수	1,708	1,459	1,046	948

2013년 기준 JOCV의 주요 활동 지역은 <표 II-25>와 같다. 전통적으로 JOCV는 아프리카에 가장 대규모의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현재에도 역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봉사단 파견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5 2013년 기준 JOCV의 주요 활동 지역[26] (단위: 개(파견 국가 수), 명(파견자 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파견국가 수	19	6	26	22	10	5
봉사자 수(누적)	11,156	2,628	12,404	8,244	3,262	606

25) JICA(2013). Annual report 2013.
26) "青年海外協力隊派遣実績". JICAボランティア事業について (in Japanese). JICA. 2013-07-31. http://en.wikipedia.org/wiki/Japan_Overseas_Cooperation_Volunteers에서 2013년 9월 22일 인출.

또한 현재 JOCV 활동은 교육, 문화 및 스포츠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이 파견되는 분야는 교육으로 주요 업무는 수학 및 과학 교육이다.

JOCV를 포함하여 일본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지원 예산 규모를 회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Ⅱ-26>과 같다. 표의 JOCV 지급액은 JICA 연간 보고서에 나타난 JOCV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연도별 정부 지출액(distribution by type of JICA program by fiscal year)을 의미한다. <표 Ⅱ-26>을 통해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급 예산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맞춰 JOCV에 대한 지원금도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6 JOCV를 포함한 일본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지원 예산 규모[27)]

(단위: 백만 엔(예산), 백만 달러(미화 환산), 백만 엔(JOCV 지급액))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21,657	20,871	19,968	19,301	18,255
미화 환산	278	268	258	247	234
JOCV 지급액	15.9	14.7	12.5	9.9	8.3

JOCV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본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분야에 따라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과 능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일부 기술 분야에 제한된다.

JOCV는 장기봉사단은 매년 봄(4-5월)과 가을(10-11월) 두 차례, 단기봉사단은 연 4차례 JICA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1차 서류전형과 필기시험(해당자에 한함)을 통해 기술 능력, 어학 능력, 건강상태를 검토한 뒤, 도쿄에서 진행되는 2차 개인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현지 파견국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분야에서 결정된다. 선발된 지원자는 65일 동안 국내 사전교육에서 파견국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의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현지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이론에 관해 배운다. 기술 관련 분야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술 보완 연수를 실시하기도 한다. 장기봉사자의 경우 2년간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현지관리는 파견국의 JICA 해외사무소가 담당한다. 봉사자는 항공료와 숙박료 등의 부임 경비, 현지 생활비, 건강관리수당, 귀국경비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파견국에서 다양한 개발문제와 문화를 경험한 인적자원으로서 귀국 봉사자에 대한 JICA의

27) 글로벌발전연구원(2012).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종합평가, p. 53.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JICA는 봉사 경험을 통한 넓은 식견과 문제 해결 능력이 일본 내부의 지역사회 활성화와 육아지원 등의 문제에 협력하고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의 공공기업과 사기업 대다수는 귀국단원의 봉사활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한 예로 2013년 4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제정한 귀국 단원을 위한 특별 취업쿼터가 5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28] 또한 미취업(기졸업자, 실업자) 상태인 귀국 봉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3) 호주

1950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호주의 해외봉사활동은 1960년대 이후 호주 정부의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500명 이상의 봉사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해외봉사활동을 담당할 기관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각각의 해외봉사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정체성 하에 선발, 관리, 파견기관 간 비용을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AVID(Australian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설립하였다.[29]

정부 차원의 청년 대상 해외봉사활동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대사 프로그램 'AYAD(Australian Youth Ambassadors for Development)'[30]가 있었으나 2014년 7월 1일부로 AVID에 통합되었으며, AVID 내에 초기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early career opportunities'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AVI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AVID는 호주 정부 차원의 통합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 호주 해외봉사자들이 지역주민조직, NGO, 정부기관, 기업, 학술기관, 다자기구 등 파견기관(host organization)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호주 및 파트너 정부의 개발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호주 내에 정부 부처, NGO, 교육기관, 회사 등을 파트너 기관(Australian Partner Organizations)으로 두고,

28) JICA(2013). Annual report 2013, p. 107.

29) Australian Governmen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홈페이지 참조

30) AYAD 프로그램은 1998년에 처음 시행되어 총 23개국에 4300명 이상의 청년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호주의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evaluation(ODE)가 2014년 초에 발표한 연구(AVID Evaluation Report, www.ode.dfat.gov.au/publications/evaluations-reviews.html#vols)에서 초기경력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비중이 과거와 같지 않고 공개적으로 특정 할당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므로 굳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봉사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AVID로 통합되었다.

현지의 파견기관과 연계하여 봉사자들이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링, 자문 등을 지원한다.[31] AVID 프로그램은 호주 외교통상부의 관리 하에 현재 AVI(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Scope Global(前 Austraining International), Australian Red Cross 세 파트너 기관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원조집행기관인 AusAID에 따르면 2013-2014년 동안 총 2,006명의 해외봉사자가 파견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 아프리카 인근 43개 국가에서 거버넌스, 보건, 교육, 환경보호, 농업 및 삼림, 민간부문 사업지원,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AVID의 지난 3년 간 봉사자 및 파견국가 수의 변화는 <표 Ⅱ-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13~2014년도에는 2011~2012년도에 비해 봉사자 수는 대략 400명, 파견 국가는 6개국이 더 늘어났다.

표 II-27 호주 AVID의 해외봉사자 및 파견국가 수

(단위: 명(파견자 수), 개(파견 국가 수))

	2011/12	2012/13	2013/14
봉사자 수	1,631	1,800	2,006
파견국가 수	37	42	43

AVID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외교통상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AusAID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은 2011~2012년 6,310만 달러에서 2012~2013년 5,800만 달러로 봉사자 및 활동국가 범위가 확대된 것에 비해 지원은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VID는 AVI, Scope Global, Australian Red Cross 세 기관에 의해 실행되며 기관별로 운영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초기경력자 대상의 'early career opportunities' 제도가 포함된 Scope Global의 AVI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VID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Special Conditions 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포함)으로 지원 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활동분야에 따른 요구조건이 상이하고 각 세부활동에 따라 파견기관이 제시한 최소한의 수준이 요구된다. 주로 지원 분야와 관련한 경력이나 학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early career opportunities'

31) Australian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AVID) 홈페이지.

제도의 경우, 이와 별도로 3년 또는 그 이하의 전문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이면 특정 연령제한은 없다.

Scope Global의 선발은 온라인으로 지원서 제출 및 인적성 검사를 마친 후, 전화면접을 진행하고 추천인 확인 및 종합검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Australian Volunteers Brief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Briefing은 지정된 모집기간에 맞춰 1년에 5차례 개최되며, 참가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은 모두 AVID 프로그램이 부담한다. 총 5일에 걸쳐 실시되는 Briefing은 보험, 의학정보, 안전 및 긴급상황 절차, Scope Global 정책, 미디어 및 개발 프로그래밍, 역량강화, 아동보호 및 다문화에 관한 학습을 포함한다.

AVID 프로그램은 봉사자들에게 귀국 항공료, 종합보험, 의약품, Australian Volunteers Briefing, 초기 국내 오리엔테이션 및 언어교육, 주거 및 숙박비와 활동의 예산 및 기간에 따라 동행인(배우자 및 자녀)의 비용지원, 비자발급비 등을 제공한다.

AVID 프로그램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재정착비를 지원하고 봉사자의 현지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봉사자들과 만날 수 있는 2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3,000여명으로 구성된 귀국 봉사자 네트워크(Alumni network) 멤버로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오랜 해외생활을 한 봉사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역 문화쇼크(reverse culture shock)[32]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있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정부원조기관인 Irish Aid는 자국민에게 더 많은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사자를 파견하는 개발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Irish Aid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0월 자원봉사 이니셔티브(Volunteering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이는 새로운 온라인 툴(online tools)을 통한 자원봉사의 정보 개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조달,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VC(Viatores Christi)는 종교(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아일랜드 NGO로서 대표적인 장기 해외봉사자 파견기관 중 하나[33]이며 VSO Ireland는 해외봉사 활동에 주력하는 국제 NGO로 두 기관

32) 역 문화쇼크(reverse culture shock)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소외감을 의미한다.
33) 2014년 10월 11일 개최된 Irish Aid 자원봉사페어(Irish Aid Volunteering Fair)의 자료에 따르면, VC는 대표적인 장기 해외봉사자 파견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모두 Irish Aid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단체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VC는 1960년에 평신도선교사협회로써 설립되었고, 이후 선교 부문에 숙련된 봉사자들을 채용, 훈련, 배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단체로 변화하였다. VC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 평화, 정의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VC는 Comhlámh[34]의 모범사례강령(Code of Good Practice)에 서명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VC의 연간보고서[35]에 따르면 2013년에는 총 26명의 봉사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14개국[36]에 파견되었고, 이들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며 교육, 보건, 소득창출, 농촌개발, 소액금융, 환경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활동한다.

<표 Ⅱ-28>은 2013년 기준 VC의 전체 및 대륙별 봉사자와 수혜자 수를 나타낸다. 봉사자 수는 아메리카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수혜자 수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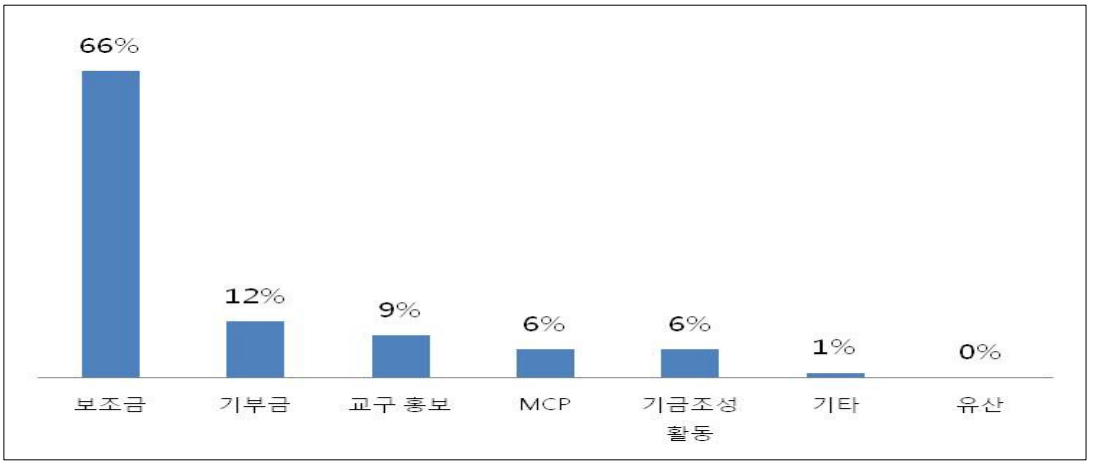
표 II-28 아일랜드 VC의 해외봉사자 및 수혜자 수 (단위: 명)

전체 수혜자	전체 봉사자	전체 파견국가	
37,480	26	14	
	수혜자		봉사자
	남성	여성	
아프리카	6,765	9,075	10
아시아	4,124	4,152	4
아메리카	6,214	7,150	12

2013년 VC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총 예산은 43만 유로, 지출은 41만 유로로 나타난다. [그림 Ⅱ-7]을 통해 살펴본 예산내역은 보조금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보조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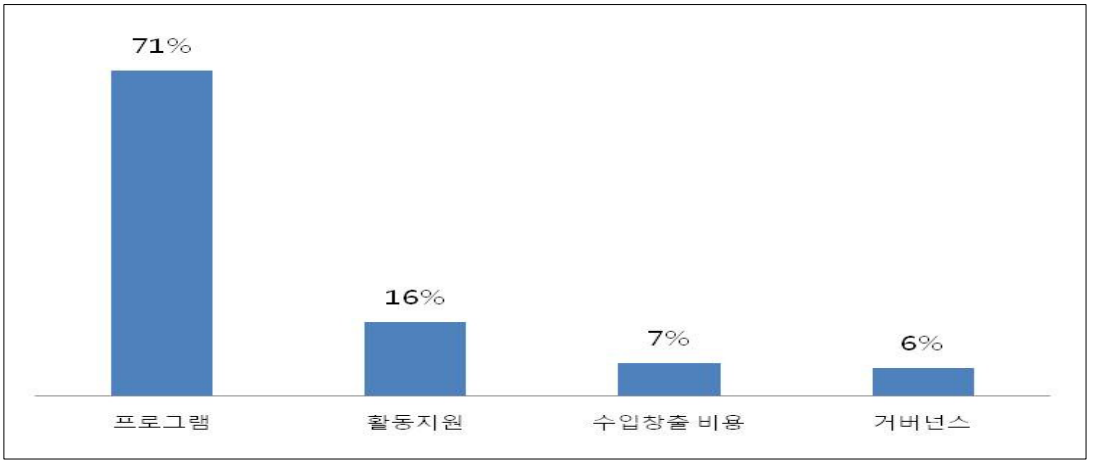
34) Comhlámh는 아일랜드 봉사자 및 개발관련 종사자들의 연합체이다.
35) 현재까지 발행된 VC 연간보고서는 2013년이 유일하므로, 본문에서는 2013년을 중심으로 VC 해외봉사 프로그램 현황을 서술하였다.
36) 아프리카(케냐,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캄보디아, 태국), 아메리카(아이티,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페루)

Misean Cara(Ireland 자선단체)와 Irish Aid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급받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 기부, 교구를 통한 홍보 등으로 조달된다. [그림 Ⅱ-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요 지출내역은 VC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71%로 압도적이다.



* 출처: Viatores Christi(2013). Annual Report 2013.

【그림 II-7】 아일랜드 VC의 2013 예산내역



* 출처: Viatores Christi(2013). Annual Report 2013.

【그림 II-8】 아일랜드 VC의 2013 지출내역

VC에는 21세 이상 75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발절차를 보면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 지원자들은 설명회(Information Sessions)에 참석하거나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설명회는 VC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지식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에 관해 소개하며 최근에 귀국한 봉사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다. VS는 해외봉사 교육 프로그램(Overseas Training Programme)을 통한 공개 채용(Open Recruit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는 설명회나 VS와의 면담에 참석하고 지원서 및 비용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봉사자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 및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개월 연속으로 월 1회, 4개의 주말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가지 분야(도전과 헌신 및 갈등, 지역사회개발 및 리더십, 문화적응, 세계시민의식, 건강, 미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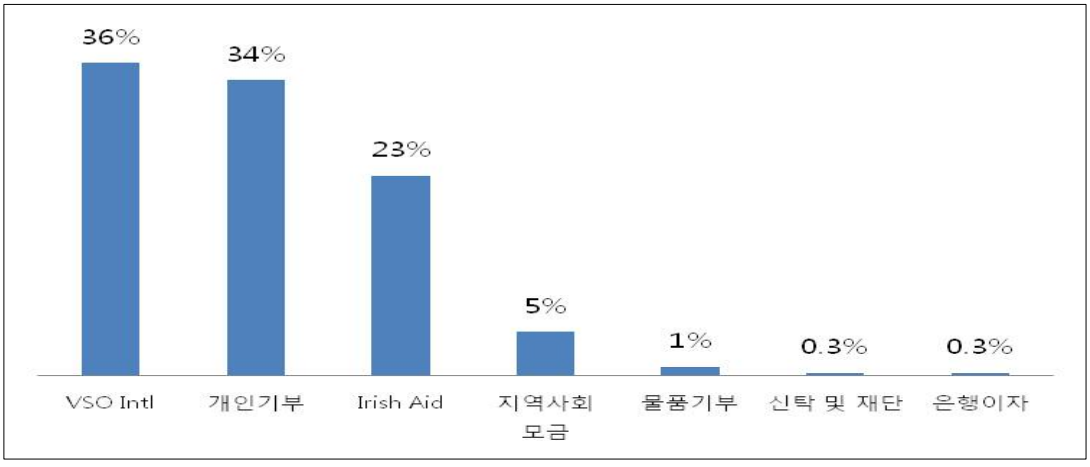
봉사자에게는 파견 전 교육이 제공되며, VC는 봉사자, 자문 및 안내 봉사자, 프로젝트 담당자와 보험 및 안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현지에서 봉사자들은 VC 사무국에 의해 관리되고, VC의 자금 확보 현황에 따라 월별 수당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는다. 모든 귀국봉사자에게는 VC 멤버가 될 자격이 주어지며, 귀국 후 VC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아일랜드에는 VSO Ireland 활동도 활발하다. VSO Ireland는 2004년 설립된 단체로 VSO 연맹(Voluntary Service Overseas Federation)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해 '빈곤을 함께 퇴치하도록 사람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VSO Ireland는 HIV/AIDS, 평화 및 생계 보장을 전략 방향으로 삼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일랜드의 봉사자가 파견국 주민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도록 한다.[37] 지식공유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한 지적 능력의 향상은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이는 최빈국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VSO Ireland는 2006년 봉사자를 모집한 이후 7년 만에 200번째 봉사자를 파견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략적인 봉사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VSO Ireland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에는 총 23명의 봉사자(장기 봉사자 17명, 단기 봉사자 6명)가 파견되었고 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10개국에서 교육, 보건, HIV/AIDS, 생계 보장 및 평화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견된 봉사자들은 교사 4명, 교육 관리자 2명, 강사 10명, 보건전문가 5명, 생계 보장 분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37) VSO(2010). VSO Ireland-Strategy 2011-2016.

2013년 VSO Ireland의 예산은 2012년 237만 유로에서 43% 증가한 340만 유로이다. VSO Ireland는 Irish Aid와 협력관계에 있고 2013년에는 Irish Aid로부터 VSO RAISA 프로그램[38]지원금으로 53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림 Ⅱ-9]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VSO Intl. 36%, 개인기부 34%, Irish Aid 23%, 지역사회 모금 5%, 물품기부 1%, 신탁 및 재단과 은행이자 각각 0.3%로 나타난다. 특이점은 개인기부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2013년 개인기부금은 2012년 290만 유로에 비해 175% 상승한 790만 유로이다. 이러한 개인기부금의 폭발적 증가는 전년대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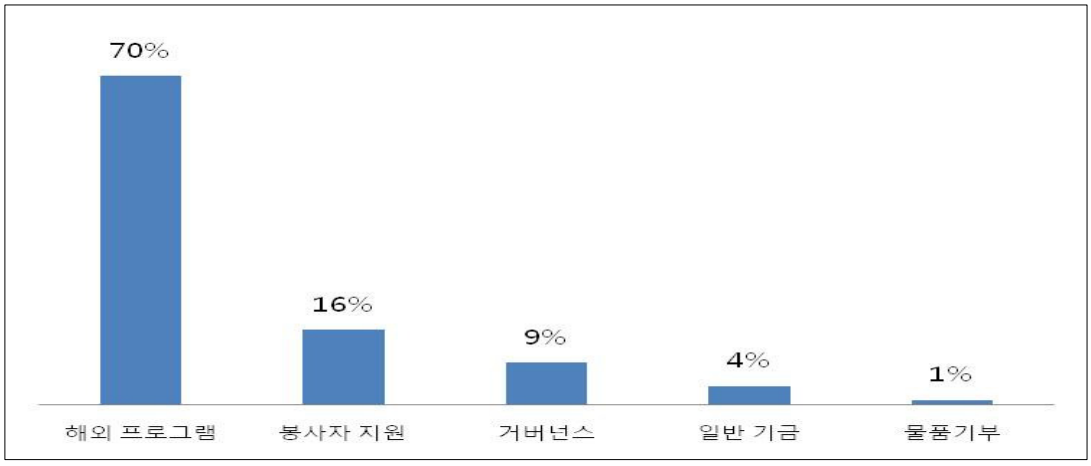


* 출처: VSO Ireland(2013).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그림 II-9】 아일랜드 VSO의 2012/13 예산 구성

[그림 Ⅱ-10]에 나타난 2013년 VSO Ireland의 지출내역을 통해 약 70%를 자선 활동(봉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지출 분야는 해외 프로그램 69%, 봉사자 지원 16%, 거버넌스 9%, 일반 기금 4%, 물품기부 1%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해외 프로그램의 지출 비용이 전년대비 47%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Irish Aid 프로그램 자금 및 파견 봉사자 지원을 위한 정기적 비용 지출 증가가 반영된 결과이다.

38) VSO-RAISA(Regional AIDS Initiative of Southern Africa)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지역의 HIV/AIDS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 프로그램이다.



* 출처: VSO Ireland(2013),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그림 II-10】 아일랜드 VSO의 2012/13 지출내역

VSO Ireland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농업, 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경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4세 이상 75세 이하로서 18개월 이내에 활동이 가능하고 전문분야에서 3~5년간의 경험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허가를 위한 공식적인 서류(학위, 범죄확인서, 의료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VSO Ireland 봉사자의 선발 절차는 영국의 VSO 선발 과정과 동일하다. VSO Ireland 봉사자에 대한 지원내역도 영국 VSO와 동일하다

VSO Ireland는 Comhlámh과 함께 귀국 봉사자의 본국 적응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봉사자들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Volzone Website를 운영한다.

(5) 주요국 해외자원봉사 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해외자원봉사 사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영국의 IC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자원봉사단의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층, 인종, 성별, 학력 등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일부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호한 집단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발 단원 모집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본의 JOCV 사례를 통해 청소년 해외봉사단원을 주제와 기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봉사단과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형성한 니케이 공동체로 파견하는 니케이 봉사단으로 구분된다. 니케이 봉사단은 일본 정부가 해외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 중 하나가 독립국가연합이다.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등 고려인 5~6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적 인식 및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한인들에게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JOCV의 사례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의 파견 기간을 차별화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JOCV는 20~39세 이하 단원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기봉사단과 2년 동안 파견되는 장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10일 전후의 단기봉사단과는 비교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봉사단 파견을 통해 현지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파견 기간이 1년 이하라 하더라도 적어도 2~3개월 이상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 상의 어려움으로 파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봉사단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가능할 수 있다.

셋째, 호주의 AVID 운영 사례는 해외자원봉사단의 봉사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봉사단 운영 이후의 사후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AVID에서는 해외봉사단의 현지 활동이 끝난 후에 봉사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봉사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봉사단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사후관리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포괄적 활동으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아일랜드 VC의 사례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사전교육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이전 6개월 동안 문화적응, 세계시민의식, 지역사회개발과 리더십 등 6개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사전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분석

1) 국제개발협력 관련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국제개발협력기본법」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은 2010년 1월 25일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근거 법률이 다르고, 분산 또는 중복 추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낮은 연계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는 무상원조사업에 관해 규정한「한국국제협력단법」과 유상원조사업에 관해 규정한「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기본법 성격의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이유
[시행 2010.7.26.] [법률 제9938호, 2010.1.25., 제정]

현행 공적개발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3.7.16. 개정)은 2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별 명칭과 규율 내용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추진체계에 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본계획, 주관기관, 시행계획안 등을 규율하고 있다. 시행기관의 기능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행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시행기관 중 국제협력단의 설립 및 조직,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국제협력단법」(1991.1.14. 제정,

2013.7.16. 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시행기관 중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및 출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1963.11.11. 제정, 2012.3.21. 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889호, 2013.7.16., 일부개정]	
조별 명칭	규율 내용의 성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총칙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추진체계 (위원회와 주관기관, 계획수립 등)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국민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체계 (평가와 대국민 홍보, 민간단체 지원, 관련 기관 연계 · 활용,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통계자료 작성 · 관리)
제20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부칙	보칙

셋째,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관리 및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대국민 홍보,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와 재외공관 등 관련 기관의 연계 · 활용,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운영, 통계자료 작성 · 분석 · 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에 관한 사항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지원(제14조)에 관한 사항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제13조)는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은 '무상협력'과 국제금융기구 이외의 '다자간 개발협력'의 범위에 포함되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참여 정신의 공유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한국국제협력단법」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중 가장 주요한 활동인 해외자원봉사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률은 1991년 1월 14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협력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각종 국제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전담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 운영" 하는 데에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약 20년 동안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해 온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의 제정이유
[시행 1991.1.14] [법률 제4313호, 1991.1.14, 제정]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협력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각종 국제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전담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은 3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39]의

39) 개발도상국가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를 의미한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제7조)은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앞의 3가지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 등 4가지로 규정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892호, 2013.7.16., 일부개정]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10.3.17.]

(3) 「청소년활동진흥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과는 별도로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9. 제정, 2014.5.20. 개정)은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 목적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항은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업에는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8. 청소년활동 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는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가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시설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에는 해외에 청소년활동 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해외에 설치된 청소년활동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에는 청소년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예시한 것처럼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청소년센터 건립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따른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그 원인은 현행「청소년활동진흥법」이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의 진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청소년활동진흥법」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구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시행 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00호, 2014.5.20., 타법개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10. 제18조의 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청소년활동진흥법」제54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시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 협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시행계획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 협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그러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에 국한된 지원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활동은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연혁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된 이후 4회 개정되었다. 타법 개정 1회를 제외하면 일부개정은 3회이다.

먼저, 2011년 7월 25일 제1차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제8조의 제목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으로 변경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40]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1조의 제목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으로 변경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41]이 작성하여 제출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작성 · 제출하는 분야별 연간 국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포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2013년 3월 23일 제2차 개정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 한 타법개정이다. 법률 체계나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2013년 7월 16일 제3차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을 "여성 · 아동 · 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정신에도 장애인

4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이다. 법적 성격은 행정기관 소속 법정 위원회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41)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며,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후기)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은 '무상협력' 과 국제금융기구 이외의 '다자간 개발협력' 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주관기관은 외교부이다.

의 인권향상이 포함된다.

한편 제3차 개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각 시행기관[42]은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후기)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인 2014년 10월 15일 제4차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도록” (제5조제 4항 신설) 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며” (제7조 제1항),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제13조 제5항 신설),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규정하였다.

앞에서 문제제기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제13조)는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과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에 관한 사항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한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 다만,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지원(제14조)에 관한 사항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참여 정신의 공유가 미흡하다는 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42)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8호). (후기)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기관은 외교부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일반 지자체 및 시 · 도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표 II-29 「국제협력개발기본법」 개정 연혁

구 분	개정사유
제1차 개정법률 (2011.07.25)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개정함.
제2차 개정법률 (2013.03.2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함.
제3차 개정법률 (2013.07.16)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함.
제4차 개정법률 (2014.10.15.) [2015.4.16. 시행예정]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함.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함.

3) 국제개발협력의 법규상 정의 및 기본정신

앞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국제협력단(2012: 105)은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의 이념 및 철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추진체계와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에 집중하였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모호한 정의를 내려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후기)청소년이 포함된 청년층(만 20-29세)이 성인 연령대에 비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한 자원외교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후기)청소년의 해외봉사활동이 참가자 개인의 스펙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체험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

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 으로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무상의 개발협력(이하 “무상협력”) 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 을 말한다(동법 동조 제5호).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규정한 ‘무상협력’ 또는 국제금융기구 이외의 ‘다자간 개발협력’ 의 범위에 포함된다.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은 청소년의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해외취업 연계 역량 강화 등의 의미도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규정한 국제개발협력은 해외자원봉사의 성격 등을 부각시키고, 청소년 성장 지원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의 이념 및 철학은 기본정신 및 목표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이다(법 제3조 제1항). 그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로는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법 제3조 제2항).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 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도 이와 같다. 다만, 현재 규정된 기본정신 및 목표는 주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의 입장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는 청소년의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해외 취업 연계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그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규정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기본정신 및 목표를 통해 이념과 철학을 제시하였고, 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가 규정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이념과 철학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기본정신 및 목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부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기본정신 및 목표에 관한 논란 가운데 '공여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 또는 '참가자 개인의 스펙 관리를 위한 해외봉사활동 활용'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가자 및 국민적 인식과 공유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려 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참가자에 대한 사전연수 활성화, 참여기간 중 지속적인 교육 제공,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제19대 국회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 법률안 분석

(1)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 제안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안a(2013.2.4.)와 이재영의원안(2013.2.14.), 심재권의원안(2013.2.15.), 안홍준의원안a(2013.2.22.), 안홍준의원안b(2013.4.4.), 외교통일위원장 대안(2013.6.25.), 우상호의원안b(2013.12.2.), 김영우의원안(2014.3.13.), 외교통일위원장 대안(2014.9.30.) 등 9건이다. 이 9건의 법률안은 모두 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는 형태로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외교통일위원장 대안(2013.6.25.)은 2013년 4월 24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를 통과(2013.6.25.)한 후 정부로 이송되었고 2013년 7월 16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안은 현행 법률에 반영되어 시행중이다. 우상호의원안a와 이재영의원안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2013.6.25.)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한편 우상호의원안b와 김영우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4월 2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4일에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본회의를 통과(2014.9.30.)한 후 정부로 이송되었고 2014년 10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안은 2015년 4월 16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상호의원안b와 김영우의원안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2014.9.30.)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회에 대안반영폐지하기로 의결된 대안은 6월 말까지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안과, 안홍준의원안a, 안홍준의원안b 등 3건이다.

2014년 6월 7일까지 제19대 국회에 제안된 9건의 법률안 중 계류 중인 3건의 법률안과 대안반영폐지하기로 의결되었으나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2건의 법률안 등 총 5건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Ⅱ-30>과 같다.

첫째, 5건의 법률안은 2013년과 2014년에 의원발의 형태로 제안되었다.

둘째, 5건의 법률안은 모두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심재권의원안과 안홍준의원안a는 외통위 심사중이고, 안홍준의원안b는 외통위 의결 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 중이다. 우상호의원안b와 김영우의원안은 외통위에서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셋째, 심재권의원안은 "민간 기업의 개발원조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지원"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다(안 제2조 제1호).

넷째, 안홍준의원안a는 "비구속성 원조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삼도록 규정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구속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고(안 제4조 제3항 신설),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침에 비구속성 협력 비율이 확대된 정도가 포함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안 제13조 제1항 후단 신설).

다섯째, 안홍준의원안b는 "개발협력의 집행주체가 다원화되고 자체 예산과 관련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행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주관기관이 조정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1조 제2항).

여섯째, 우상호의원안b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유·무상 원조의 통합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며,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7조 제1항),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안 제8조). 그리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과 선정 사유를 공개하게 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안하였다(안 제12조 제3항 신설, 제1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일곱째, 김영우의원안은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과 창업 및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안 제16조 제2항 신설). 그리고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안 제16조 제2항 신설).

여덟째, 5건의 법률안은 소요예산을 추계하지 않았고, 이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43] 김영우의원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시하였고, 그 사유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심재권의원안과 안홍준의원안a, 안홍준의원안b, 우상호의원안b 등 4건의 법률안은 소요예산 추계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표 II-30 제19대 국회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법률안 분석

구분	심재권의원안	안홍준의원안a	안홍준의원안b	우상호의원안b	김영우의원안
명칭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심재권의원안	안홍준의원안a	안홍준의원안b	우상호의원안b	김영우의원안
제안일	2013.2.15.	2013.2.22.	2013.4.4.	2013.12.2.	2014.3.13.
제안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안자 수	10인	10인	10인	15인	14인
소관 상임위 (심사 진행 단계)	외통위 심사중 (검토보고/ 소위회부)	외통위 심사중 (검토보고/ 소위회부)	외통위 수정가결 (2013.6.24.)/ 법사위 심사중	외통위 대안반영폐기 (2014.4.24.)	외통위 대안반영폐기 (2014.4.24.)
제안 이유	○민간 기업의 개발원조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비구속성 원조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함	○개발협력의 집행주체가 다원화되고 자체 예산과 관련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나,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유·무상 원조의 통합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설치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며,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과 창업 및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	○민간 기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포함 시키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1호) – 이 법 시행 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한 민간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안 부칙 제2조)	○ “비구속성 협력”을 협력대상국에 대한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국가는 각 시행기관이 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 제1항)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함(안 제8조) ○원조의 제공 및 제공된 원조의 활용과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신설)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

구분	심재권의원안	안홍준의원안a	안홍준의원안b	우상호의원안b	김영우의원안
		신설)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구속성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에 비구속성 협력 비율의 확대된 정도가 포함되도록 정함(안 제13조 제1항 후단 신설)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행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주관기관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주관기관이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후단 신설)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제4항 신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과 선정사유를 공개하게 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신설, 제1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신설)
소요 예산	○언급 없음 – 재정수반요인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언급 없음 – 재정수반요인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언급 없음 – 재정수반요인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언급 없음 – 재정수반요인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재정수반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항 검토

5건의 법률안에 제안된 주요내용 가운데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우의원안은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 수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2015년 4월 16일 시행 예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항에 신설되는 방식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행 법률	개정안 및 개정 법률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생 략)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략)

시행기관의 수와 기관별 2011~2012년 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각각 4억 9천 2백만 달러와 4억 4천 5백만 달러로 1, 2순위로 많고, 다음으로 한국은행, (구)외교통상부, (구)기획재경부, (구)교육과학기술부 순으로 많다.

표 II-31 시행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예산 현황(2011~2012년)

(단위: US$백만, 순지출)

	2011			2012		
	양자간	다자간	계	양자간	다자간	계
강원도	0.46	–	0.46	0.27	–	0.27
경기도	0.44	–	0.44	0.52	–	0.52
경기도 교육청	–	–	–	0.18	–	0.18
경상남도	–	–	–	0.11	–	0.11
경상북도	1.87	–	1.87	6.37	–	6.37
경찰청	1.29	–	1.29	1.13	–	1.13
고용노동부	1.89	5.16	7.05	1.84	12.43	14.27
공정거래위원회	0.10	–	0.10	0.15	–	0.15
관세청	0.10	–	0.10	1.86	–	1.86
(구)교육과학기술부	33.42	7.3	40.72	42.64	3.66	46.30
국가보훈처	0.05	–	0.05	0.05	–	0.05
국무조정실	1.82	0.57	2.39	4.42	0.81	5.22
국민권익위원회	0.03	–	0.03	0.04	–	0.04
국방부	1.44	–	1.44	0.81	–	0.81
(구)국토해양부	–	0.1	0.10	–	0.10	0.10
국회	0.20	–	0.20	–	–	–
금융위원회	0.14	–	0.14	0.02	–	0.02
기상청	0.06	0.07	0.13	0.59	2.14	2.72

	2011			2012		
	양자간	다자간	계	양자간	다자간	계
기획재정부	22.54	48.69	71.23	30.67	49.46	80.12
(구)농림수산식품부	10.19	8.63	18.83	11.15	8.67	19.82
농촌진흥청	7.13	0.32	7.45	9.33	0.33	9.66
대검찰청	0.30	–	0.30	–	–	–
대구광역시	0.03	–	0.03	0.05	–	0.05
대전광역시	0.01	–	0.01	–	–	–
마사회	–	–	–	0.11	–	0.11
문화재청	0.25	0.09	0.34	0.30	0.36	0.65
문화체육관광부	1.37	–	1.37	2.48	0.42	2.90
방송통신위원회	3.78	1.31	5.09	4.26	1.39	5.65
법무부	1.02	–	1.02	0.72	0.18	0.90
보건복지부	6.78	11.95	18.73	9.36	17.07	26.43
부산광역시	0.16	–	0.16	0.20	–	0.20
산림청	3.49	2.69	6.17	4.62	1.61	6.23
서울특별시	0.97	–	0.97	1.89	–	1.89
여성가족부	0.74	4.83	5.57	0.71	4.42	5.13
(구)외교통상부	22.02	53.94	75.96	80.41	69.89	150.30
울산광역시	0.01	–	0.01	0.04	–	0.04
인천광역시	2.63	–	2.63	–	–	–
전라남도	0.01	–	0.01	–	–	–
제주특별자치도	–	–	–	0.00	0.36	0.36
중소기업청	0.02	–	0.02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0.17	–	0.17
(구)지식경제부	–	0.16	0.16	6.96	1.58	8.55
충청남도	0.00	–	0.00	–	–	–
통계청	0.09	0.05	0.14	0.51	0.10	0.60
특허청	0.81	0.01	0.82	1.13	0.35	1.47
KDI	6.38	0.76	7.14	5.54	1.78	7.32
한국수출입은행	428.98	5.00	433.98	487.28	5.00	492.28
한국은행	–	176.56	176.56	–	228.03	228.03
(구)행정안전부	16.25	–	16.25	18.86	–	18.86
환경부	4.81	3.68	8.48	0.45	3.68	4.13
KIEP	0.64	–	0.64	0.44	–	0.44
KOICA	404.86	3.15	408.01	444.54	0.50	445.04
합 계	989.57	335.02	1,324.59	1,183.17	414.28	1,597.45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김영우의원 제출자료」, 2014. 김영우의원안에서 재인용.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는 교통, 교육, 보건, 농업, 산업, 공공행정 등 기초적인 분야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식량안보, 인도적 지원, 인권 및 양성평등 등 최근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까지 사업 분야가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분석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개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단계별 특성과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그 중요성이 크다(외통위, 김영우의원안 검토보고, 2014. 4: 2).

그러므로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44]를 두고 있고, 동 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45]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제15조[46]는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관기관이 필요 시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외통위, 김영우의원안 검토보고, 2014. 4: 4).

2015년 4월 16일 시행 예정인「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 및 제11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 · 조정기구에서 조정 및 심사 · 의결기구로 규정하였다.

---

4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위원은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안전행정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등으로 주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5)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파견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46)「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제15조(협의체)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③ 재외공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협력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행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	개정안 및 개정 법률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4. (생 략) ⑥ ~ ⑧ (생 략)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 제1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 조정"으로 규정하였으나,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위원회가 의결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도록"(제7조 제2항) 규정하였으므로 조정이나 의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이 조율 및 합의되어야 조정 또는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 · 조정기구에서 조정 및 심사 · 의결기구로 규정하더라도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및 합의의 실질적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개정 2011.7.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국회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능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안전행정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등 매우 많고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회에서 첨예한 이해 관련 사항을 조정 또는 의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협력 기관은 참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관기관은 외교부장관과 기재부장관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부처간 연계·협력을 논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주관기관이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는 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기관과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성격의 기구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협의체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되, 국가가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기구에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한국국제협력단의 현지 교육 및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참여 정신의 공유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김영우의원안은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2015년 4월 16일 시행 예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항에 신설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현 행	김영우의원안	개정 법률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생 략)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생략)	② (생략)
〈신 설〉	③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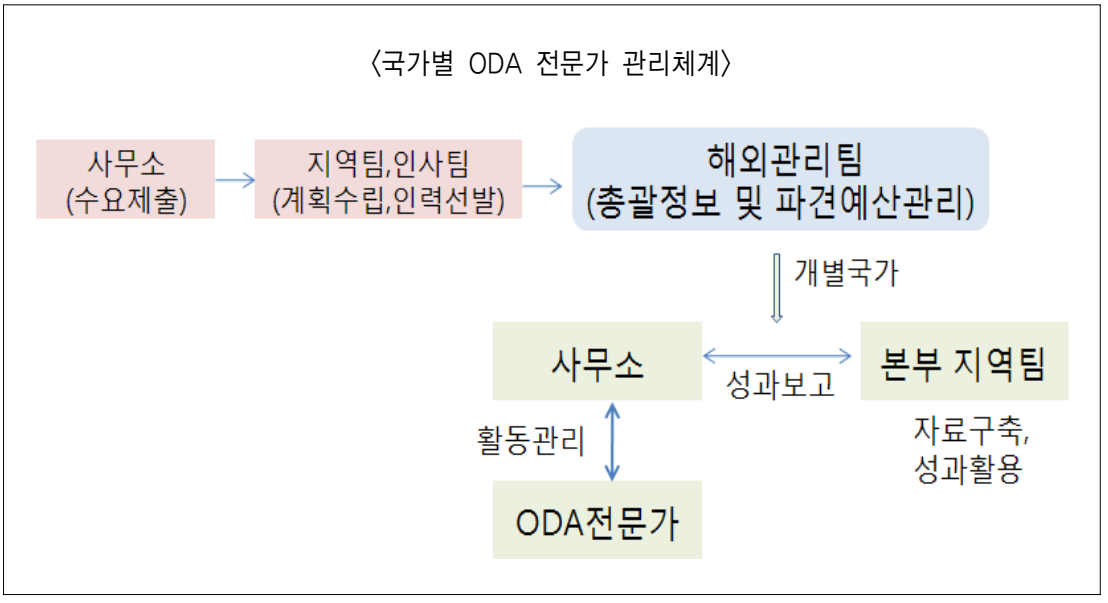
현재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47]과 관련하여, 개별 시행기관은 각 시행기관별로 인력 · 인사 관리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해외 인력에 관한 통합

47) 시행기관별 ODA 해외파견 인력 현황
- o KOICA : '14. 3월말 현재 36명 파견 중(해외봉사단 및 본부직원 제외)
- o EDCF : '14. 3월말 현재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에 직원 8명 파견 중(AfDB, IDB(2), IBRD, IFC, CGIF, ADB(2) 등, 파견기간은 통상 3년 내외)

* EDCF 해외 네트워크('14년말 21명 수준), ODA 인턴(상반기 17명 파견), F/S 수행 및 사업심사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단기 출장은 해외 전문인력 파견으로 보지 않은 수치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 인력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 운영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된다(외통위, 김영우의원안 검토보고, 2014. 4: 6~7).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및 '국가별 ODA 전문가 파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를 선발 및 관리하고 있다([그림 Ⅱ-11] 참조). 그리고 수출입은행(EDCF)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총 15개 분야(84개 세부분야)에 대해 1,688명의 전문가 및 540개의 분야별 전문기업 Pool을 보유하고 있다. 15개 분야는 토목, 관광, 금융, 행정 · 법, 교육, 경제, 경영, 환경, ICT, 전기전력, 기계, 보건, 건축, 자원개발, 농수산 등이다.



* 출처: 외통위(2014. 4: 11). 김영우의원안 검토보고.

【그림 II-1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파견 인력 정보 관리체계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개인 정보 범위의 설정, 공유 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 수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외통위, 김영우의원안 검토보고, 2014. 4: 7).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 ·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 · 공유하고,

관리 · 활용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에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앞에서 설명한 수행기관 협의체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 ·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심재권의원안은 민간기업의 개발원조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다.

현행 법률	심재권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 8. (생 략)	제2조(정의)----------.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이----------. 2. ~ 8. (현행과 같음)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민간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외통위, 심재권의원안 검토보고, 2013. 4: 3). 정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에 비하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수립, 공공서비스의 품질관리 등 보다 공공성이 높은 기능에 특화하여 재정지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사업관리 및 감독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각종 제도, 여건 등의 미비로 제약요인이 많은 개도국 진출 시 위험을 분산하고, 대규모 사업의 재원조달을 공공부문과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작업반, 2011. 8; 외통위, 심재권의원안 검토보고, 2013. 4: 3. 재인용).[48]

이에 대해 현행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상관관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이미 수립된 정책을 바탕으로 주관기관의 통제 하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각 시행기관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재원과 전문적 지식을 지원·협력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외통위, 심재권의원안 검토보고, 2013. 4: 4~5).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민간기업을 시행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시행기관들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이 주관기관의 통제 하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기관인 외교부장관 또는 기재부장관의 조정을 강제하거나 통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민간부문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수준의 범부처 계획단계부터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와 민관연계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의 경우에 자발적이고 조성적인 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와 민관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48)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작업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보고서, 2011. 8.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관련 청소년 인식 및 참가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 Ⅲ 장

국제개발협력 관련 청소년 인식 및 참가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관심도는 어떠하며 향후 참가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실태조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2013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ODA 국민인식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병행한 청소년 인식 조사가 유일하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15세부터 18세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샘플 수도 500명으로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청소년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대표적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세~18세, 만 19세~24세 이하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표집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별(남성, 여성), 지역(서울 및 수도권, 그 외 지역), 연령(만 15~18세, 만 19~24세) 등을 기준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하나인 할당표집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2014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2,264부가 취합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2,210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권역별 분포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Ⅲ-1 연구대상의 성별/연령/권역별 분포 현황

지역	성별	만 15~18세	만 19~24세	계
서울	남	80	137	217
	여	73	133	206
경기/인천	남	138	212	350
	여	127	194	321
대전/충청/세종	남	48	73	121
	여	43	63	106
광주/전북/전남	남	50	72	122
	여	45	63	108
대구/경북	남	46	75	121
	여	41	60	101
부산/울산/경남	남	72	115	187
	여	63	95	158
강원/제주	남	20	30	50
	여	18	24	42
합계		864	1346	2210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연령과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와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봉사단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참가 여부, 그에 따른 참가/불참가 이유를 물었다. 더불어 봉사단의 활동이 개발도상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와 그 경로를 확인하였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외원조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 및 우리나라가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개발도상국이 가진 각 문제들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예산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표 Ⅲ-2 설문조사 내용

범주	내용
인구학적 변인	• 연령, 성별, 거주지 등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련 인지 및 참여 정도	• 해외자원봉사단 인지 여부 •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여부 및 참여/불참여 이유 •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의 개발도상국 도움 정도 •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 해외자원봉사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관심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및 경로 • 국제개발협력 교육 필요성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정도	•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인지 여부 • 새천년개발목표 및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인지 여부 •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 자국 및 타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예산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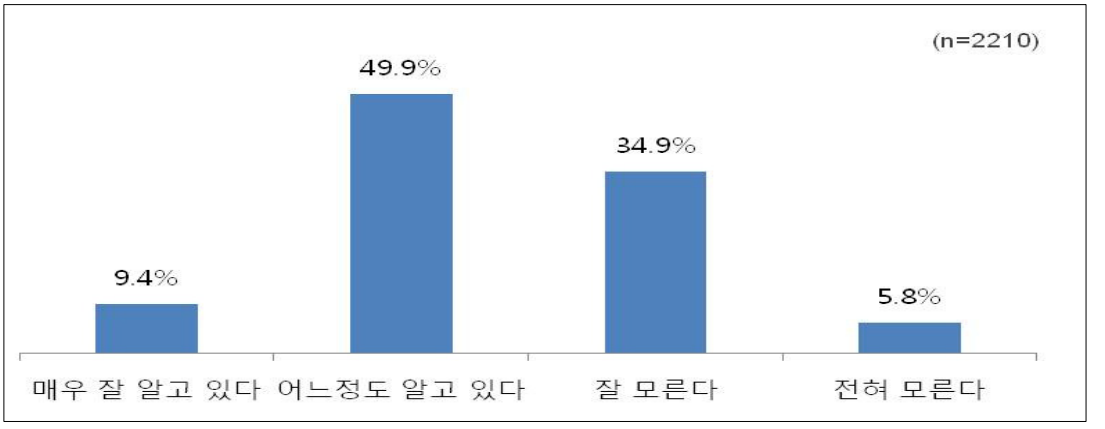
2. 설문조사 내용 분석

1)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련 인지 및 참여 정도

(1) 해외자원봉사단 인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파견하는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9.4%,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9%로 알고 있다(59.3%)는 응답이 모른다(40.7%)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해외자원봉사단 인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 19~24세는 알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63.0%, 만 15~18세는 긍정적 응답이 53.7%로 후기청소년의 해외봉사단에 대한 인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해외자원봉사단을 알고 있는 반면, 관심이 없는 응답자는 과반수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Ⅲ-1】 해외봉사단 인지 여부

표 Ⅲ-3 해외자원봉사단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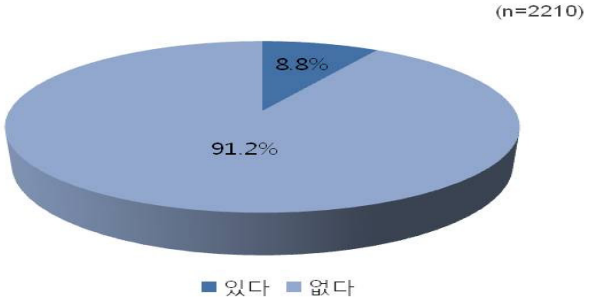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x^2
■ 전	체 ■	2210	206(9.4)	1105(49.9)	773(34.9)	126(5.8)	
성별	남성	1124	117(10.4)	536(47.7)	398(35.4)	73(6.5)	7.999*
	여성	1086	89(8.2)	569(52.4)	375(34.5)	53(4.9)	
연령	만 15~18세	876	58(6.6)	413(47.1)	329(37.6)	76(8.7)	38.998***
	만 19~24세	1334	148(11.1)	692(51.9)	444(33.3)	50(3.7)	
거주지	수도권	1124	108(9.6)	565(50.3)	395(35.1)	56(5.0)	2.328
	비수도권	1086	98(9.0)	540(49.7)	378(34.8)	70(6.4)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95(11.0)	968(54.5)	553(31.1)	61(3.4)	183.326***
	없음	433	11(2.5)	137(31.6)	220(50.8)	65(15.0)	

† <.1, *p<.05, **p<.01, ***p<.001

(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는 응답은 8.8%, 참여해 본 적 '없다' 는 응답은 91.2%로 나타나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Ⅲ-4>와 같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여성(7.6%)보다 남성(10.1%)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만15~18세(6.7%)보다 만19~24세(10.3%)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에(10.3%) 참여했다는 응답이 관심이 낮은 경우(3.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Ⅲ-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표 Ⅲ-4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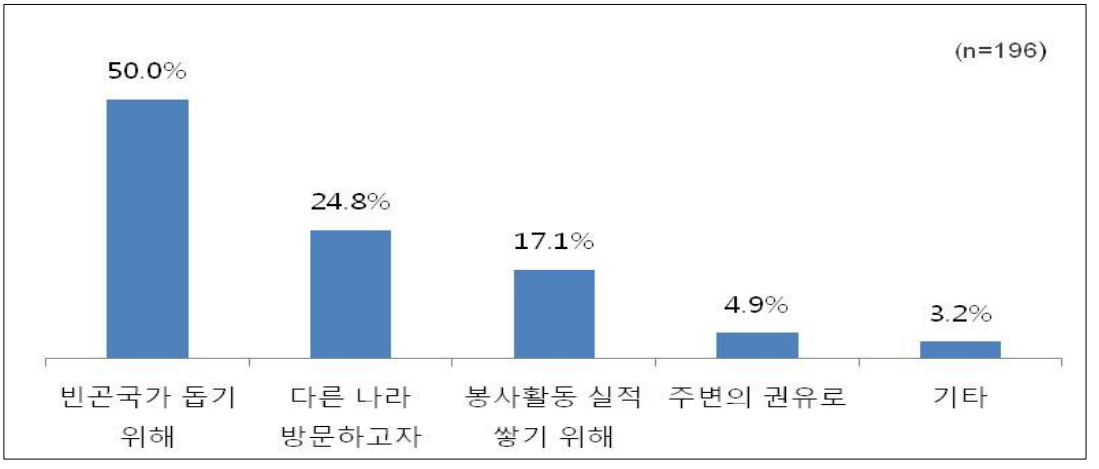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x^2
■ 전 체 ■		2210	196(8.8)	2014(91.2)	
성별	남성	1124	114(10.1)	1010(89.9)	4.590*
	여성	1086	82(7.6)	1004(92.4)	
연령	만 15~18세	876	59(6.7)	817(93.3)	8.174**
	만 19~24세	1334	137(10.3)	1197(89.7)	
거주지	수도권	1124	110(9.8)	1014(90.2)	2.383
	비수도권	1086	86(7.9)	1000(92.1)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83(10.3)	1594(89.7)	22.931***
	없음	433	13(3.0)	420(97.0)	

† <.1, *p<.05, **p<.01, ***p<.001

(3)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자 196명에게 참여 이유를 물은 결과,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서’ (24.8%),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하여’(17.1%), ‘주변의 권유로’(4.9%) 순이었고, ‘기타’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Ⅲ-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 이유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53.0%),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서’ (25.7%),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하여’(14.8%), ‘주변의 권유로’(4.4%) 순이었던 반면, 관심이 없을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하여’(46.2%)라는 응답이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7.7%)보다 월등히 높아 평소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 Ⅲ-3】 해외봉사단 활동 참여 이유

표 Ⅲ-5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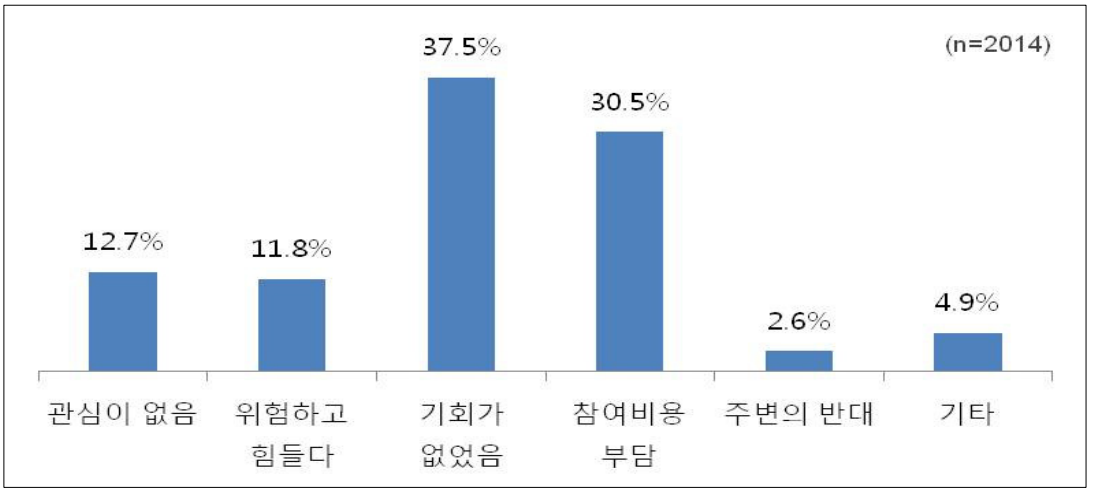
		사례수	빈곤국가 돕기 위해	다른 나라 방문하고자	봉사활동 실적 쌓기 위해	주변의 권유로	기타	x^2
■ 전	체 ■	196	98(50.0)	49(24.8)	33(17.1)	10(4.9)	6(3.2)	
성별	남성	114	55(48.2)	24(21.1)	24(21.1)	7(6.1)	4(3.5)	5.497
	여성	82	43(52.4)	25(30.5)	9(11.0)	3(3.7)	2(2.4)	
연령	만 15~18세	59	34(57.6)	12(20.3)	6(10.2)	5(8.5)	2(3.4)	5.856
	만 19~24세	137	64(46.7)	37(27.0)	27(19.7)	5(3.6)	4(2.9)	
거주지	수도권	110	57(51.8)	25(22.7)	18(16.4)	6(5.5)	4(3.6)	1.049
	비수도권	86	41(47.7)	24(27.9)	15(17.4)	4(4.7)	2(2.3)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87	97(53.0)	47(25.7)	27(14.8)	8(4.4)	4(2.2)	22.400***
	없음	13	1(7.7)	2(15.4)	6(46.2)	2(15.4)	2(15.4)	

† <.1, *p<.05, **p<.01, ***p<.001

(4)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2,014명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은 결과, '기회가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37.5%로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참여비용 부담'이 30.5%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동일하였으나, 세 번째로 높은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에서는 '기회가 없었음'과 '참여비용 부담'에 이어 '위험하고 힘듦'(11.0%)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에서는 '관심이 없음'(17.7%)이 세 번째로 높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만 15~18세의 경우 '기회가 없었음'과 '참여비용 부담'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관심이 없음'(14.1%)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19~24세에서는 '기회가 없었음'(38.3%)이 첫 번째로 높은 이유였고, '참여비용 부담'(29.9%)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위험하고 힘듦'(13.5%)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 19~24세 비해 만 15~18세에게서 해외자원봉사의 기회가 없는 점과 참여비용 부담이 참여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참여 이유는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는 '기회가 없었음'(36.9%)과 '참여비용 부담'(32.7%)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기회가 없었음'(38.8%)과 '참여비용 부담'(28.5%)간의 차이가 약 10%포인트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일수록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평소에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서'(45.3%)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관심이 없는 응답자에서는 '관심이 없어서'(37.6%)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참여비용 부담'과 '위험하고 힘듦' 순으로 대조를 보였다.



【그림 Ⅲ-4】 해외봉사단 활동 불참여 이유

표 Ⅲ-6 해외자원봉사 활동 불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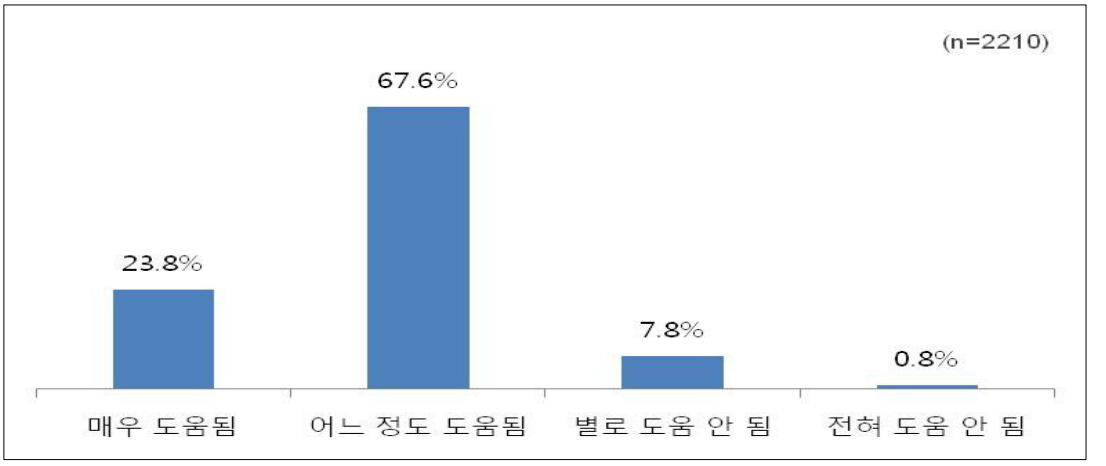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관심이 없음	위험하고 힘듦	기회가 없었음	참여비용 부담	주변의 반대	기타	x^2
■ 전	체 ■	2014	251(12.7)	235(11.8)	762(37.5)	617(30.5)	52(2.6)	97(4.9)	
성별	남성	1010	179(17.7)	125(12.4)	360(35.6)	275(27.2)	21(2.1)	50(5.0)	58.160 ***
	여성	1004	72(7.2)	110(11.0)	402(40.0)	342(34.1)	31(3.1)	47(4.7)	
연령	만 15~18세	817	115(14.1)	73(8.9)	303(37.1)	259(31.7)	22(2.7)	45(5.5)	13.815 *
	만 19~24세	1197	136(11.4)	162(13.5)	459(38.3)	358(29.9)	30(2.5)	52(4.3)	
거주지	수도권	1014	119(11.7)	129(12.7)	374(36.9)	332(32.7)	18(1.8)	42(4.1)	13.330 *
	비수도권	1000	132(13.2)	106(10.6)	388(38.8)	285(28.5)	34(3.4)	55(5.5)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594	93(5.8)	148(9.3)	722(45.3)	527(33.1)	39(2.4)	65(4.1)	442.979 ***
	없음	420	158(37.6)	87(20.7)	40(9.5)	90(21.4)	13(3.1)	32(7.6)	

† <.1, *p<.05, **p<.01, ***p<.001

(5)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의 개발도상국 도움 정도

사회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은 그 사회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23.8%),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67.6%), '별로 도움이 안 된다'(7.8%), '전혀 도움이 안 된다'(0.8%)로 나타났다. <표 Ⅲ-7>을 보면, 성별과 거주지에 따라서는 응답결과의 차이가 없고 연령과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만 15~18세보다 만 19~24세가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27.9%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봉사활동이 '매우 도움된다'고 인식하였으나,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7.9%만이 '매우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Ⅲ-5】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의 개발도상국 도움 정도

표 Ⅲ-7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의 개발도상국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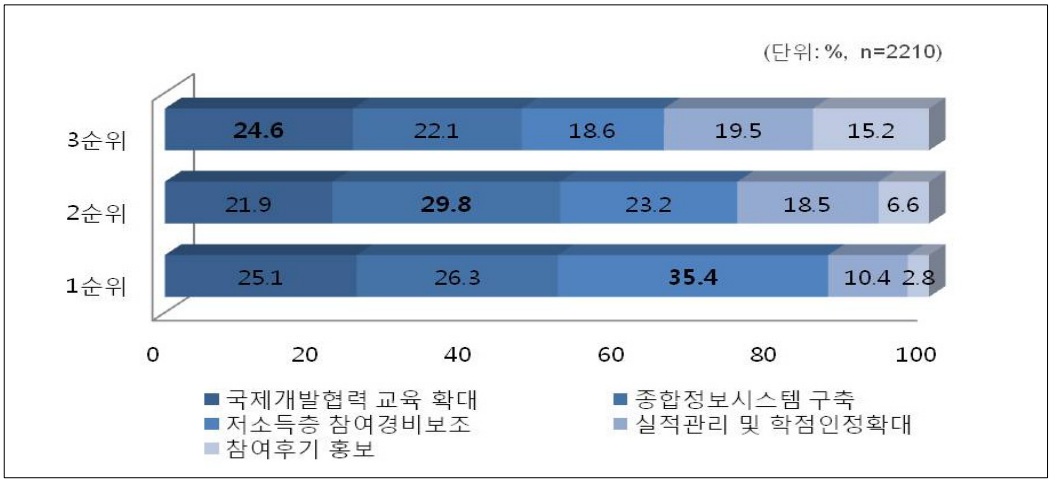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도움됨	어느 정도 도움됨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x^2
■ 전	체 ■	2210	529(23.8)	1494(67.6)	170(7.8)	17(0.8)	
성별	남성	1124	273(24.3)	743(66.1)	97(8.6)	11(1.0)	4.796
	여성	1086	256(23.6)	751(69.2)	73(6.7)	6(0.6)	
연령	만 15~18세	876	243(27.7)	578(66.0)	45(5.1)	10(1.1)	24.267***
	만 19~24세	1334	286(21.4)	916(68.7)	125(9.4)	7(0.5)	
거주지	수도권	1124	251(22.3)	772(68.7)	91(8.1)	10(0.9)	3.776
	비수도권	1086	278(25.6)	722(66.5)	79(7.3)	7(0.6)	
해외자원 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495(27.9)	1191(67.0)	87(4.9)	4(0.2)	185.763***
	없음	433	34(7.9)	303(70.0)	83(19.2)	13(3.0)	

† <.1, *p<.05, **p<.01, ***p<.001

(6)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 골라달라는 질문에 1순위 방안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비 보조' 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2순위 방안으로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9.8%), 3순위 방안은 '국제개발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2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Ⅲ-6】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3순위)

표 Ⅲ-8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3순위)

	사례수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저소득층 참여경비보조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확대	참여후기 홍보
1순위	2210	25.1%	26.3%	**35.4%**	10.4%	2.8%
2순위	2210	21.9%	**29.8%**	23.2%	18.5%	6.6%
3순위	2210	**24.6%**	22.1%	18.6%	19.5%	15.2%

이어서 활성화 방안 1순위에 대한 배경 변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Ⅲ-9>와 같다. '저소득층 참여경비보조' 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의 방안에 대한 비율은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있었으나 활성화 방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입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18.2%는 해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확대' 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8.3%만이 해당 항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 확대가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가자의 실리 추구 태도가 사업 추진과정의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발협력의 철학이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성찰의 기회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실적 및 학점인정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9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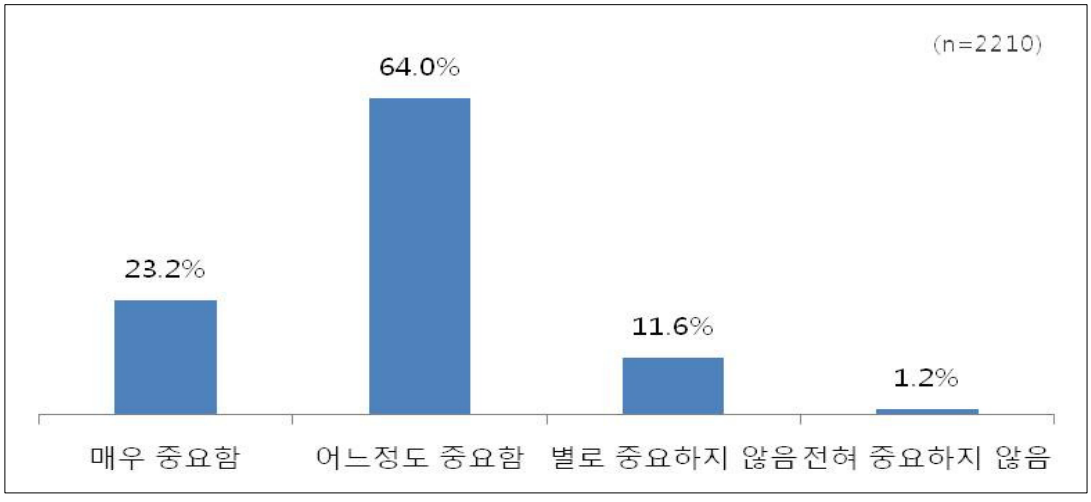
		사례수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참여경비보조	실적관리 및 학점인정확대	참여후기 홍보	x^2
성별	남성	1124	301(26.8)	287(25.5)	372(33.1)	136(12.1)	28(2.5)	15.859**
	여성	1086	251(23.1)	296(27.3)	413(38.0)	91(8.4)	35(3.2)	
연령	만 15~18세	876	232(26.5)	187(21.3)	335(38.2)	100(11.4)	22(2.5)	20.716***
	만 19~24세	1334	320(24.0)	396(29.7)	450(33.7)	127(9.5)	41(3.1)	
거주지	수도권	1124	270(24.0)	300(26.7)	402(35.8)	118(10.5)	34(3.0)	1.317
	비수도권	1086	282(26.0)	283(26.1)	383(35.3)	109(10.0)	29(2.7)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460(25.9)	477(26.8)	641(36.1)	148(8.3)	51(2.9)	37.856***
	없음	433	92(21.2)	106(24.5)	144(33.3)	79(18.2)	12(2.8)	

† <.1, *p<.05, **p<.01, ***p<.001

(7)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주변 친구나 선배들, 혹은 방송이나 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3.2%, '어느 정도 중요한 활동'이라는 응답이 64.0%로 응답자의 87% 이상이 중요한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8.7%)보다 남성(16.3%)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94.0%가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60.5%만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7】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표 Ⅲ-10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중요함	어느 정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x^2
■ 전 체 ■		2210	514(23.2)	1418(64.0)	253(11.6)	25(1.2)	
성별	남성	1124	234(20.8)	707(62.9)	167(14.9)	16(1.4)	31.377***
	여성	1086	280(25.8)	711(65.5)	86(7.9)	9(0.8)	
연령	만 15~18세	876	233(26.6)	529(60.4)	104(11.9)	10(1.1)	10.414*
	만 19~24세	1334	281(21.1)	889(66.6)	149(11.2)	15(1.1)	
거주지	수도권	1124	240(21.4)	753(67.0)	119(10.6)	12(1.1)	7.989*
	비수도권	1086	274(25.2)	665(61.2)	134(12.3)	13(1.2)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499(28.1)	1171(65.9)	101(5.7)	6(0.3)	408.696***
	없음	433	15(3.5)	247(57.0)	152(35.1)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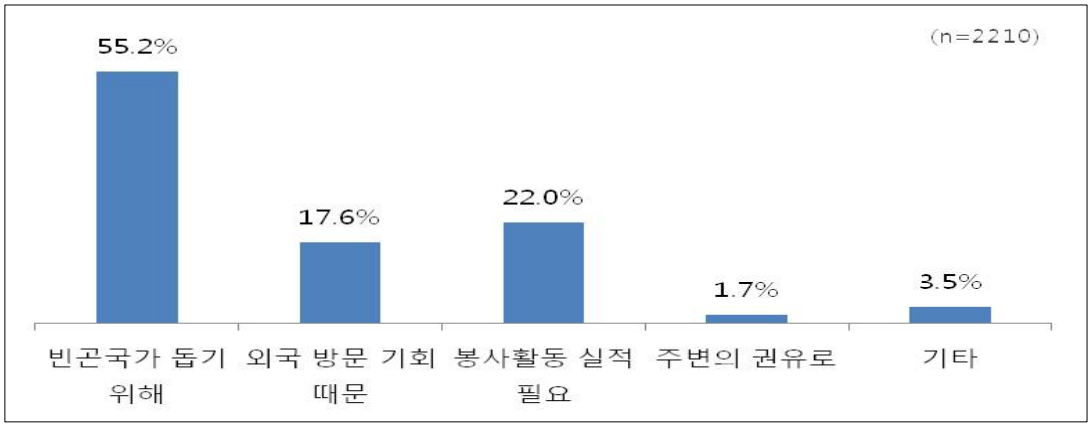
† <.1, *p<.05, **p<.01, ***p<.001

(8)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사람들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해서' 라는 응답이 22.0%, '외국 방문 기회를 얻기 위하여' 가 17.6%, '주변의 권유로' 가 1.7%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에 따라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만 15~18세에서는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66.2%)에 이어 '외국 방문 기회를 얻기 위하여' 가 11.5%,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해서' 라는 응답이 17.1%로 나타났으나, 만 19~24세에서는 '외국 방문 기회를 얻기 위하여' 가 21.4%,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해서' 라는 응답이 24.8%로 나타나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실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별의 경우 인식 이유의 순위에서 차이는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

여’ (60.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해서’에 대한 응답 비율은 18.2%로 나타나 남성의 25.2%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반응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Ⅲ-8】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표 Ⅲ-11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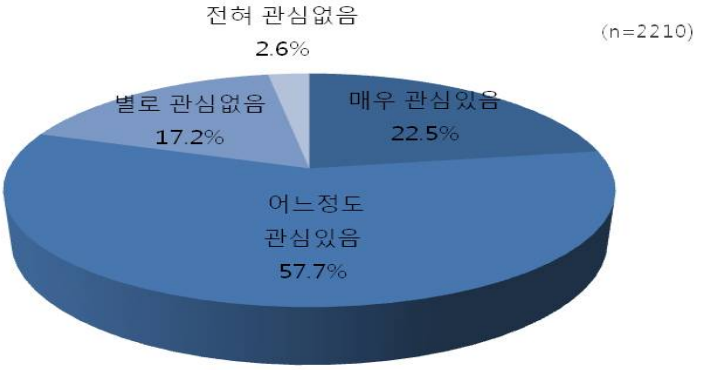
		사례수	빈곤국가 돕기 위해	외국 방문 기회 때문	봉사활동 실적 필요	주변의 권유로	기타	x^2
■ 전	체 ■	2210	1229(55.2)	387(17.6)	481(22.0)	37(1.7)	76(3.5)	
성별	남성	1124	568(50.5)	212(18.9)	283(25.2)	22(2.0)	39(3.5)	26.327***
	여성	1086	661(60.9)	175(16.1)	198(18.2)	15(1.4)	37(3.4)	
연령	만 15~18세	876	580(66.2)	101(11.5)	150(17.1)	13(1.5)	32(3.7)	73.841***
	만 19~24세	1334	649(48.7)	286(21.4)	331(24.8)	24(1.8)	44(3.3)	
거주지	수도권	1124	633(56.3)	193(17.2)	248(22.1)	15(1.3)	35(3.1)	2.730
	비수도권	1086	596(54.9)	194(17.9)	233(21.5)	22(2.0)	41(3.8)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044(58.8)	324(18.2)	341(19.2)	26(1.5)	42(2.4)	79.321***
	없음	433	185(42.7)	63(14.5)	140(32.3)	11(2.5)	34(7.9)	

† <.1, *p<.05, **p<.01, ***p<.001

(9)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해외의 빈곤국가나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관심 있음'은 22.5%, '어느 정도 관심 있음'은 57.7%, '별로 관심 없음'은 17.2%, '전혀 관심 없음'은 2.6%로 나타났다.

<표 Ⅲ-12>를 보면, 특히 성별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매우 관심 있음'의 경우 남성(18.5%)보다 여성(2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별로 관심 없음'의 경우 남성(21.0%)이 여성(12.9%)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만 15~18세에 비해 만 19~24세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Ⅲ-9】 해외봉사단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표 Ⅲ-12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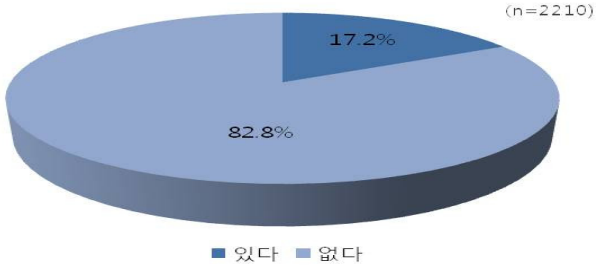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관심 있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x^2
■ 전	체 ■	2210	503(22.5)	1274(57.7)	376(17.2)	57(2.6)	
성별	남성	1124	208(18.5)	639(56.9)	236(21.0)	41(3.6)	49.897***
	여성	1086	295(27.2)	635(58.5)	140(12.9)	16(1.5)	
연령	만 15~18세	876	217(24.8)	470(53.7)	161(18.4)	28(3.2)	10.329*
	만 19~24세	1334	286(21.4)	804(60.3)	215(16.1)	29(2.2)	
거주지	수도권	1124	242(21.5)	664(59.1)	189(16.8)	29(2.6)	2.382
	비수도권	1086	261(24.0)	610(56.2)	187(17.2)	28(2.6)	

† <.1, *p<.05, **p<.01, ***p<.001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1)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기 위한 교육(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해외자원봉사 관련, 세계시민교육 등)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17.2%, '없다'는 응답은 82.8%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의 차이는 없었으나,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19.1%) 관심이 없는 경우(8.8%)보다 관련 교육 이수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Ⅲ-10】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표 Ⅲ-13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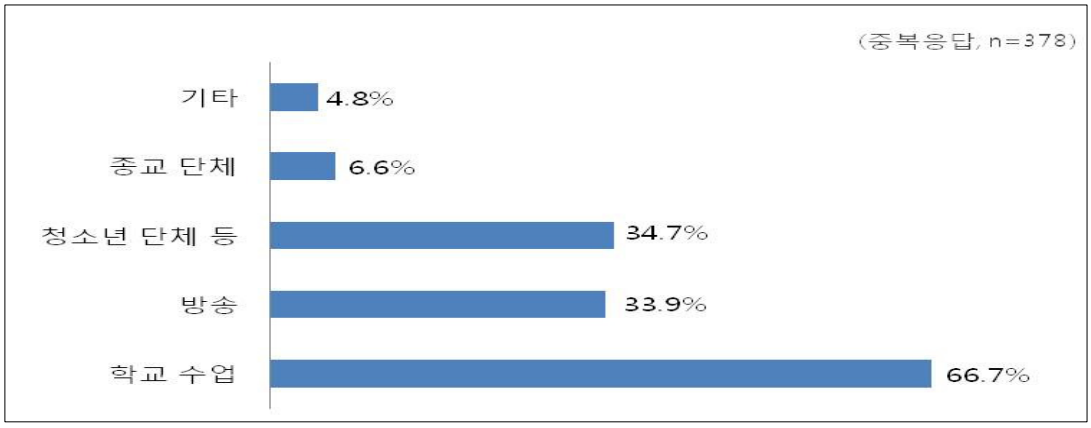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x^2
■ 전 체 ■		2210	378(17.2)	1832(82.8)	
성별	남성	1124	196(17.4)	928(82.6)	.180
	여성	1086	182(16.8)	904(83.2)	
연령	만 15~18세	876	149(17.0)	727(83.0)	.009
	만 19~24세	1334	229(17.2)	1105(82.8)	
거주지	수도권	1124	202(18.0)	922(82.0)	1.214
	비수도권	1086	176(16.2)	910(83.8)	
해외자원 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340(19.1)	1437(80.9)	26.342***
	없음	433	38(8.8)	395(91.2)	

† <.1, *p<.05, **p<.01, ***p<.001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복수 응답)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자들의 이수 경로를 파악해본 결과, ‘학교 수업(정규/특별 수업, 초청 특강)’ 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다. 방송(TV, 라디오, 케이블, 인터넷 방송 등)’ 은 33.9%, ‘청소년 단체, 민간 단체, 지역사회 시설 등’ 은 34.7%, ‘종교 단체’ 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6%, ‘기타’ 경로는 4.8%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

표 Ⅲ-14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이수 경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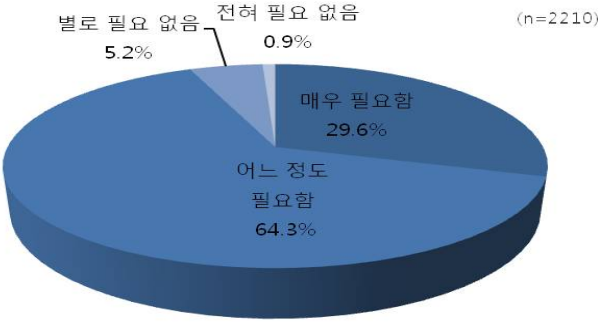
		사례수	학교 수업	방송	청소년 단체 등	종교 단체	기타
■ 전	체 ■	378	252(66.7)	128(33.9)	131(34.7)	25(6.6)	18(4.8)
성별	남성	196	133(67.9)	78(39.8)	60(30.6)	15(7.7)	7(3.6)
	여성	182	119(65.4)	50(27.5)	71(39.0)	10(5.5)	11(6.0)
연령	만 15~18세	149	102(68.5)	59(39.6)	47(31.5)	10(6.7)	7(4.7)
	만 19~24세	229	150(65.5)	69(30.1)	84(36.7)	15(6.6)	11(4.8)
거주지	수도권	202	129(63.9)	68(33.7)	75(37.1)	14(6.9)	9(4.5)
	비수도권	176	123(69.9)	60(34.1)	56(31.8)	11(6.3)	9(5.1)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340	224(65.9)	117(34.4)	122(35.9)	24(7.1)	14(4.1)
	없음	38	28(73.7)	11(28.9)	9(23.7)	1(2.6)	4(10.5)

(3)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9%로 나타났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에 그쳤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9.6%,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 5.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이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가 34.8%로 관심이 없는 응답자(8.5%)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2%로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21.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Ⅲ-12】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표 Ⅲ-15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x^2
■ 전 체 ■		2210	655(29.6)	1422(64.3)	113(5.2)	20(0.9)	
성별	남성	1124	321(28.6)	716(63.7)	72(6.4)	15(1.3)	13.183**
	여성	1086	334(30.8)	706(65.0)	41(3.8)	5(0.5)	
연령	만 15~18세	876	266(30.4)	556(63.5)	45(5.1)	9(1.0)	.673
	만 19~24세	1334	389(29.2)	866(64.9)	68(5.1)	11(0.8)	
거주지	수도권	1124	324(28.8)	738(65.7)	52(4.6)	10(0.9)	2.190
	비수도권	1086	331(30.5)	684(63.0)	61(5.6)	10(0.9)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618(34.8)	1120(63.0)	34(1.9)	5(0.3)	303.868***
	없음	433	37(8.5)	302(69.7)	79(18.2)	1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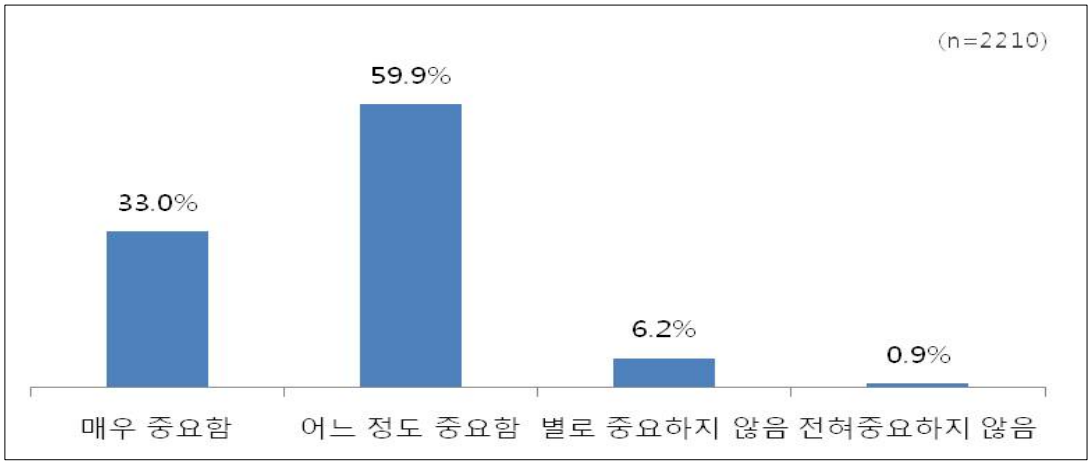
† <.1, *p<.05, **p<.01, ***p<.001

3)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정도

(1)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돕기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92.9%,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하다'가 33.0%,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59.9%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6.2%,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0.9%로 나타났다.

<표 Ⅲ-16>를 보면, 연령별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만 15~18세 중에서 39.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만 19~24세 중에서는 29.2%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 중 37.8%가 '매우 중요하다', 3.4%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관심이 없는 응답자들은 14.5% 가 '매우 중요하다', 17.3%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13】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표 Ⅲ-16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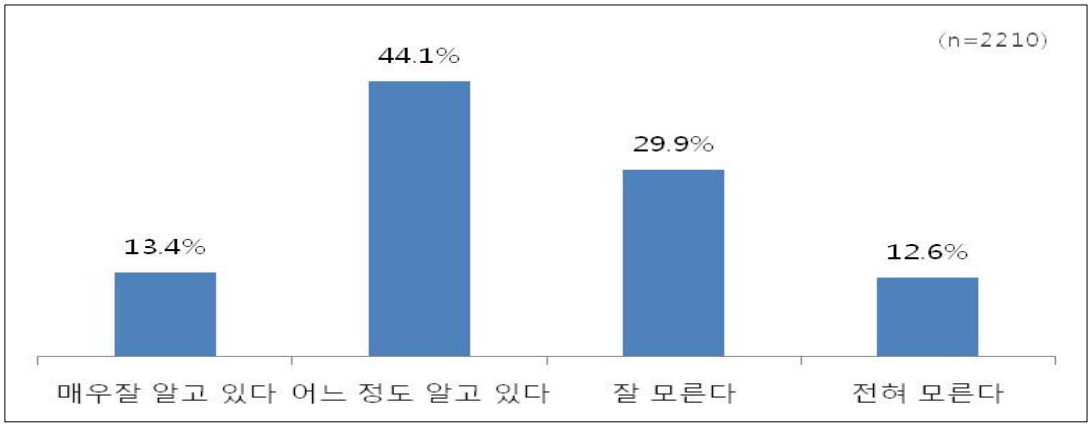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중요함	어느 정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x^2
■ 전 체 ■		2210	743(33.0)	1321(59.9)	135(6.2)	20(0.9)	
성별	남성	1124	363(32.3)	656(58.4)	92(8.2)	13(1.2)	19.086***
	여성	1086	371(34.2)	665(61.2)	43(4.0)	7(0.6)	
연령	만 15~18세	876	344(39.3)	477(54.5)	48(5.5)	7(0.7)	24.025***
	만 19~24세	1334	390(29.2)	844(63.3)	87(6.5)	13(1.0)	
거주지	수도권	1124	370(32.9)	686(61.0)	56(5.0)	12(1.1)	6.085
	비수도권	1086	364(33.5)	635(58.5)	79(7.3)	8(0.7)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671(37.8)	1044(58.8)	60(3.4)	2(0.1)	231.823***
	없음	433	63(14.5)	277(64.0)	75(17.3)	18(4.2)	

† <.1, *p<.05, **p<.01, ***p<.001

(2)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는 응답이 57.5%, '모른다' 는 응답이 42.5%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정부의 대외원조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는 응답은 1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는 응답은 44.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는 응답은 29.9%, '전혀 모른다' 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 는 18.2%, '전혀 모른다' 는 9.9%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 는 8.0%, '전혀 모른다' 는 15.7%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서도 이와 유사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역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Ⅲ-14】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표 Ⅲ-17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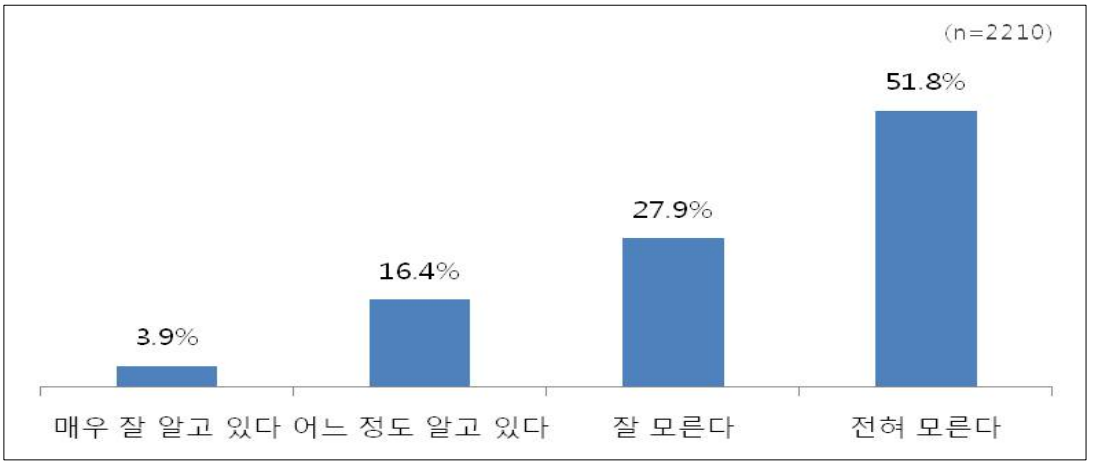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x^2
■ 전	체 ■	2210	292(13.4)	973(44.1)	663(29.9)	282(12.6)	
성별	남성	1124	205(18.2)	517(46.0)	291(25.9)	111(9.9)	73.539***
	여성	1086	87(8.0)	456(42.0)	372(34.3)	171(15.7)	
연령	만 15~18세	876	98(11.2)	360(41.1)	277(31.6)	141(16.1)	21.264***
	만 19~24세	1334	194(14.5)	613(46.0)	386(28.9)	141(10.6)	
거주지	수도권	1124	162(14.4)	474(42.2)	345(30.7)	143(12.7)	4.653
	비수도권	1086	130(12.0)	499(45.9)	318(29.3)	139(12.8)	
해외자원 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254(14.3)	825(46.4)	517(29.1)	181(10.2)	69.474***
	없음	433	38(8.8)	148(34.2)	146(33.7)	101(23.3)	

† <.1, *p<.05, **p<.01, ***p<.001

(3)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3%, ‘모른다’는 응답은 79.7%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는 성별과 해외자원봉사 활동 관심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5.2%)이 여성(2.6%)보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4.5%)가 관심이 없는 경우(1.4%)보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5】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표 Ⅲ-18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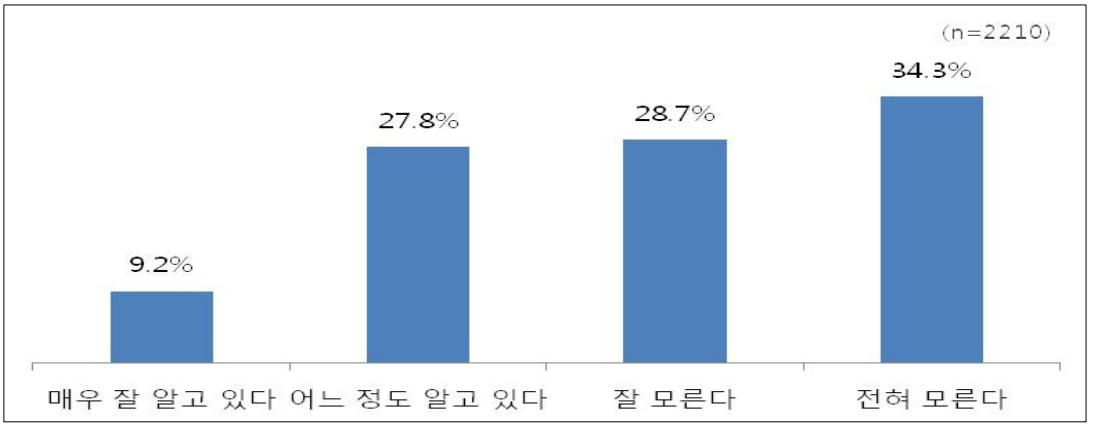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x^2
■ 전 체 ■		2210	86(3.9)	359(16.4)	629(27.9)	1146(51.8)	
성별	남성	1124	58(5.2)	212(18.9)	288(25.6)	566(50.4)	24.746***
	여성	1086	28(2.6)	147(13.5)	331(30.5)	580(53.4)	
연령	만 15~18세	876	28(3.2)	137(15.6)	230(26.3)	481(54.9)	6.331
	만 19~24세	1334	58(4.3)	222(16.6)	389(29.2)	665(49.9)	
거주지	수도권	1124	45(4.0)	188(16.7)	306(27.2)	585(52.0)	.920
	비수도권	1086	41(3.8)	171(15.7)	313(28.8)	561(51.7)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80(4.5)	322(18.1)	522(29.4)	853(48.0)	60.350***
	없음	433	6(1.4)	37(8.5)	97(22.4)	293(67.7)	

† <.1, *p<.05, **p<.01, ***p<.001

(4)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0%, '모른다'는 응답은 63.0%로 응답자 중 60% 이상이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9.2%,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7.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28.7%, '전혀 모른다'는 34.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대한 인지 여부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이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고,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관심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Ⅲ-16】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표 Ⅲ-19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 인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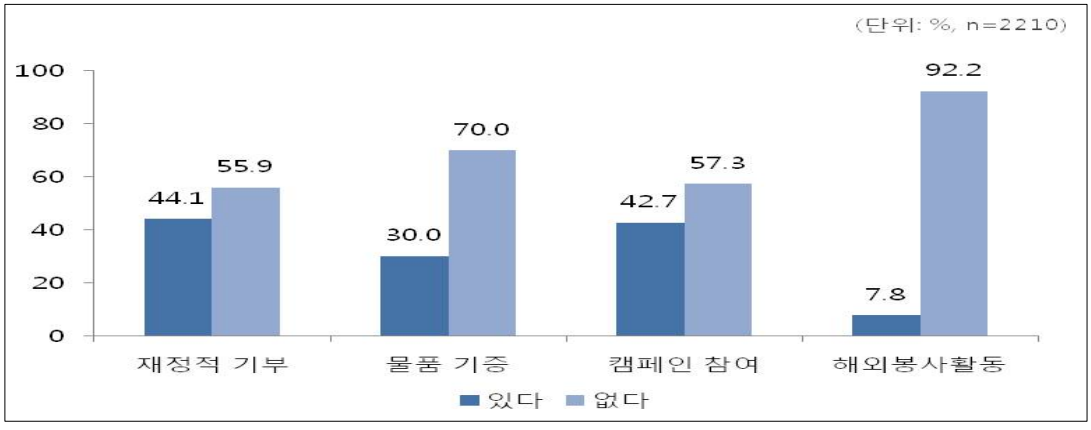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x^2
■ 전	체 ■	2210	204(9.2)	613(27.8)	634(28.7)	759(34.3)	
성별	남성	1124	117(10.4)	329(29.3)	312(27.8)	366(32.6)	8.182*
	여성	1086	87(8.0)	284(26.2)	322(29.7)	393(36.2)	
연령	만 15~18세	876	89(10.2)	220(25.1)	236(26.9)	331(37.8)	11.507**
	만 19~24세	1334	115(8.6)	393(29.5)	398(29.8)	428(32.1)	
거주지	수도권	1124	107(9.5)	314(27.9)	326(29.0)	377(33.5)	.748
	비수도권	1086	97(8.9)	299(27.5)	308(28.4)	382(35.2)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79(10.1)	545(30.7)	516(29.0)	537(30.2)	80.394***
	없음	433	25(5.8)	68(15.7)	118(27.3)	222(51.3)	

† <.1, *p<.05, **p<.01, ***p<.001

(5)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네 가지 활동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재정적 기부'(44.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활동은 '캠페인

참여’(42.7%), ‘물품 기증’(30.0%) 순이었다. ‘해외봉사활동’(7.8%)의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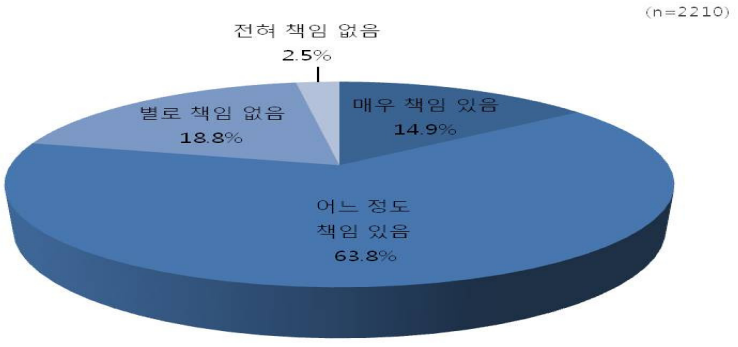
표 Ⅲ-20 개발도상국 돕기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유무

	사례수	있다	없다
재정적 기부	2210	44.1%	55.9%
물품 기증	2210	30.0%	70.0%
캠페인 참여	2210	42.7%	57.3%
해외봉사활동	2210	7.8%	92.2%

(6) 자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자신에게 자국의 빈곤층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78.7%,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21.3%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책임이 있다’는 14.9%,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63.8%로 나타났고, ‘별로 책임이 없다’가 18.8%, ‘전혀 책임이 없다’가 2.5%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에게 자국의 빈곤층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Ⅲ-21>와 같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국 빈곤층을 도울 책임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Ⅲ-18】 자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표 Ⅲ-21 자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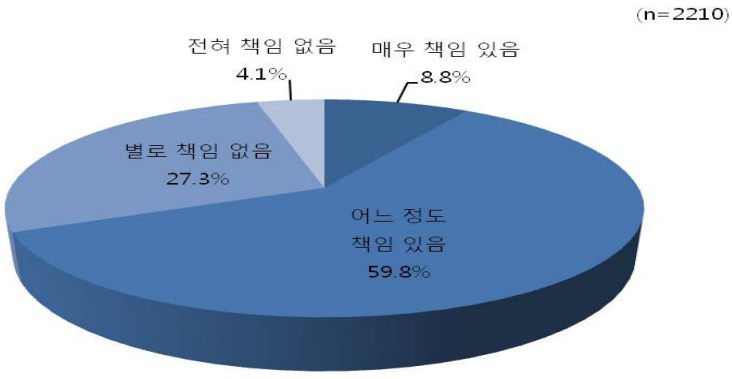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책임 있음	어느 정도 책임 있음	별로 책임 없음	전혀 책임 없음	x^2
■ 전	체 ■	2210	330(14.9)	1414(63.8)	410(18.8)	56(2.5)	
성별	남성	1124	178(15.8)	691(61.5)	222(19.8)	33(2.9)	6.726 †
	여성	1086	152(14.0)	723(66.6)	188(17.3)	23(2.1)	
연령	만 15~18세	876	155(17.7)	561(64.0)	140(16.0)	20(2.3)	12.943**
	만 19~24세	1334	175(13.1)	853(63.9)	270(20.2)	36(2.7)	
거주지	수도권	1124	157(14.0)	725(64.5)	209(18.6)	33(2.9)	2.982
	비수도권	1086	173(15.9)	689(63.4)	201(18.5)	23(2.1)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297(16.7)	1198(67.4)	254(14.3)	28(1.6)	157.517***
	없음	433	33(7.6)	216(49.9)	156(36.0)	28(6.5)	

† <.1, *p<.05, **p<.01, ***p<.001

(7) 타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자신에게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68.6%,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31.4%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자국 빈곤층에 대한 책임(78.7%)보다 타국 빈곤층에 대한 책임(68.6%)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책임이 있다'는 8.8%,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59.8%로 나타났고, '별로 책임이 없다'가 27.3%, '전혀 책임이 없다'가 4.1%였다.

자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한 책임 인식 관련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 타국 빈곤층 원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비율(76.6%)이 관심이 없는 응답자(37.6%)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반대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23.4%)가 관심이 없는 경우(62.4%)보다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19】 타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표 Ⅲ-22 타국 빈곤층 돕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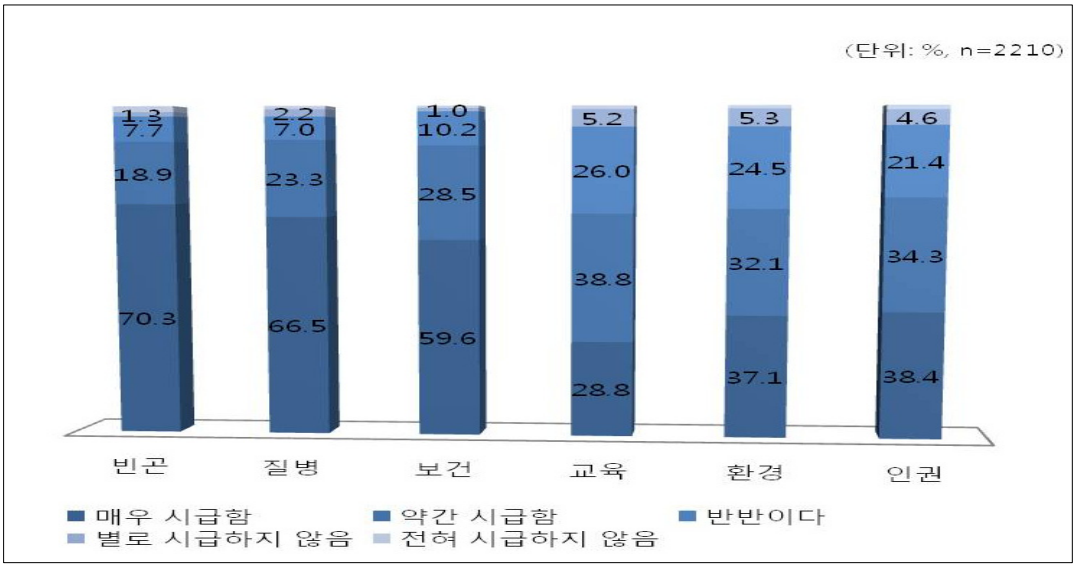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책임 있음	어느 정도 책임 있음	별로 책임 없음	전혀 책임 없음	x^2
■ 전 체 ■		2210	196(8.8)	1329(59.8)	597(27.3)	88(4.1)	
성별	남성	1124	101(9.0)	646(57.5)	323(28.7)	54(4.8)	9.130*
	여성	1086	95(8.7)	683(62.9)	274(25.2)	34(3.1)	
연령	만 15~18세	876	95(10.8)	539(61.5)	210(24.0)	32(3.7)	12.220*
	만 19~24세	1334	101(7.6)	790(59.2)	387(29.0)	56(4.2)	
거주지	수도권	1124	102(9.1)	672(59.8)	303(27.0)	47(4.2)	.387
	비수도권	1086	94(8.7)	657(60.5)	294(27.1)	41(3.8)	
해외자원 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189(10.6)	1173(66.0)	378(21.3)	37(2.1)	276.872***
	없음	433	7(1.6)	156(36.0)	219(50.6)	51(11.8)	

† <.1, *p<.05, **p<.01, ***p<.001

(8)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 시급성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빈곤, 질병, 보건, 교육,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시급하다' 고 응답했다. 특히, 빈곤(70.3%) 문제와 질병(66.5%)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28.8%)과 환경(37.1%)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향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질병, 보건 문제에 대한 개발협력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0】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 시급성

표 Ⅲ-23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 시급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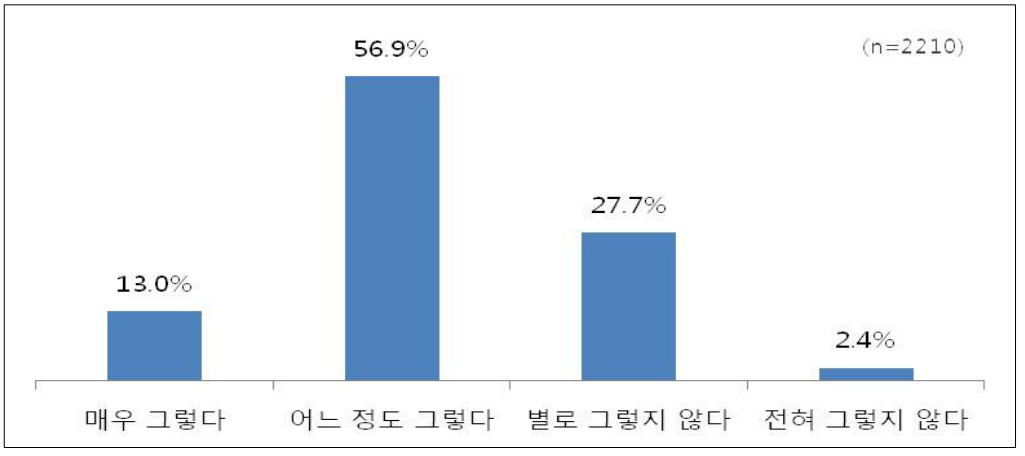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시급함	약간 시급함	반반임	별로 시급하지 않음	전혀 시급하지 않음
빈곤	2210	1559(70.5)	414(18.8)	169(7.6)	28(1.3)	40(1.8)
질병	2210	1478(66.9)	510(23.1)	152(6.8)	48(2.2)	22(1.0)
보건	2210	1325(60.0)	626(28.3)	222(10.0)	21(1.0)	16(0.7)
교육	2210	635(28.7)	868(39.3)	571(25.8)	112(5.1)	24(1.1)
환경	2210	822(37.2)	711(32.2)	540(24.4)	115(5.2)	22(1.0)
인권	2210	857(38.8)	758(34.3)	469(21.2)	99(4.5)	27(1.2)

(9)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나 교육 개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예산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9.9%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3.0%,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은 56.9%였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7.7%,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표 Ⅲ-24>와 같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예산 확충 필요성 인식 여부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응답자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충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14.9%)가 그렇지 않은 경우(5.5%)보다 예산 지원을 늘릴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1】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표 Ⅲ-24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2
■ 전	체 ■	2210	289(13.0)	1257(56.9)	612(27.7)	52(2.4)	
성별	남성	1124	147(13.1)	637(56.7)	303(27.0)	37(3.3)	9.032*
	여성	1086	142(13.1)	620(57.1)	309(28.5)	15(1.4)	
연령	만 15~18세	876	129(14.7)	509(58.1)	218(24.9)	20(2.3)	7.560 †
	만 19~24세	1334	160(12.0)	748(56.1)	394(29.5)	32(2.4)	
거주지	수도권	1124	153(13.6)	628(55.9)	316(28.1)	27(2.4)	1.078
	비수도권	1086	136(12.5)	629(57.9)	296(27.3)	25(2.3)	
해외자원봉사 관심 유무	있음	1777	265(14.9)	1062(59.8)	425(23.9)	25(1.4)	117.844***
	없음	433	24(5.5)	195(45.0)	187(43.2)	27(6.2)	

† <.1, *p<.05, **p<.01, ***p<.001

3. 요약 및 소결

이상으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참가 실태를 해외자원봉사 활동과 국제개발협력 교육 경험 및 인지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지 및 참여 정도

청소년들 중 약 60%가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대 다수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의 참여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 중 50%는 참여 동기가 빈곤 국가를 돕겠다는 의지로 나타났지만, 약 25%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싶은 기대감과 호기심이, 약 18%는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한 동기도 작용하였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참여비용의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기청소년의 경우 참여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후기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별로 차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기청소년(81.7%)이 후기청소년(78.5%)에 비해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관심도도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도가 높은 전기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 비용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 청소년에 비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수도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참여 경비 보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 교육 확대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돕는 경비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실적 관리 및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 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전 및 철학을 공유하는 사전 작업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타인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도 빈곤 국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봉사활동 실적을 위해 참여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실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한 청소년들에게도 국제개발협력의 취지나 기본정신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약 67%는 교육 이수 경로로 학교 수업을 꼽았다. 방송과

청소년 단체에 대한 응답 비율도 각각 약 35%씩 나타났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익숙한 교육 이수 경로는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 중 약 94%는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개발협력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정도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써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대상 청소년 중 약 40%는 정부의 대외원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약 80%는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약 60%는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중 약 80%는 자국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약 70%는 타국 빈곤층을 돕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문제 중에서 질병, 빈곤, 보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약 70%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4) 소결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활동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율·이주영·유애라(2014)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개발도상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일환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외자원봉사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외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자원봉사 단원 선발 시 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해외자원봉사 활동은 관심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소수의 청소년 집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후기청소년에 비해 전기청소년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기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후기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전기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후기 청소년 모두를 포괄할 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홍보 확대와 개발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활동 참여는 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기본정신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일례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 기회가 없어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은 실질적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사업 정보 및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Ⅳ 장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 경험과 실태

1. 면담조사 개요
2. 면담조사 내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 Ⅳ 장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 경험과 실태*

1.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조사 목적 및 개요

이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직접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가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의 설문조사를 통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 관련 경험 수준,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 참가하였던 청소년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 후 어떠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참여 동기, 사전 교육과정 및 현지 경험 그리고 사후활동에 대한 의견과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는 사업은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참가 이전, 참가를 위한 준비과정, 참가 활동 경험, 참가 후 활동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가대상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KOICA의 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 대사협 주관의 해외자원봉사 참가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섭외하였다. 그리고 참가 청소년과 함께 자원봉사를 인솔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과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KOICA가 주관하는 한국 정부 파견 봉사단은 2009년에 World Friends Korea라는 브랜드로 통합되었다. 실제 주관부처는 외교부, 안행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부 5개 부처이다. 청소년 연령대 참가자들이 주를 이루는 봉사단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태평양아시아협회(PAS)가 시행기관인 WFK-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안행부가 주관하고 한국정

* 이 장은 조혜영 교수(공주교대)가 집필하였음.

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WFK-대한민국 IT 봉사단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ICA 해외봉사단 중 청소년 연령대에 해외봉사를 경험한 참가자와 가장 규모가 큰 WFK-한국대학생봉사단 참가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면담 참가자를 섭외하였다.

표 IV-1 면담조사 내용 개요

봉사단체	파견기간	참가자 연령대
WFK 해외봉사단[49]	2년 내외	24세 전후
WFK 단기(대사협 해외봉사단)[50]	2주 내외	20대 초반
대한민국청소년해외봉사단[51]	10일 내외	15세-24세
해외자원봉사 지도자 및 인솔자	다양	성인

2) 면담과정 및 분석

면담 참가자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고, 직접 연락을 취하여 섭외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면담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음 면담 참가자를 소개받는 스노우볼 방식으로 면담 참가자를 확장시켜나갔다. 면담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의 심층성, 의미, 향후 개선 방안 등이므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섭외가 이루어졌다. 특히,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준 참가자들의 경우 비교적 현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 참가 후의 활동, 개인적 소회와 의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49) World Friends Korea KOICA 해외봉사단의 경우 참가자격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해당 직종 전문성 보유자에 해당된다. 2012년의 경우 총 585명이 파견되었으며, 일반단원 중 대학생은 21명에 불과했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p.14).

50) WFK 단기 봉사단의 경우 2012년에 2,053명, 2013년에 2,172명이 참가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p.70).

51) 대한민국청소년해외봉사단의 경우, 2012년에 160명, 2013년에 457명이 파견되었다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 2014년 5월 29일 인출).

2014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진이 근무하는 연구원의 회의실, 연구실, 주관기관의 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과정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되고 전사가 이루어졌다. 전사 자료는 내용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주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사자료 반복 읽기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유목화 하였으며, 유목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 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으며, 피면담자의 해석이나 발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직접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면담참가자들의 이름과 학교명,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었다.

표 IV-2 자료 수집 방법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담참가자 섭외과정	연구진 네트워크 활용, 스노우볼로 확대	
면담참가자 수	28명	
면담참가자 특성 개요	해외봉사단 참가 경험자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FGI / 개별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표 IV-3 자료 분석 방법

분석자료 및 과정	주 요 내 용	비 고
개별 심층면담 전사 자료	– 개별 참가자별 면담 녹음 전사 – 핵심 범주에 따른 자료 코딩 및 내용 분석 – 참가 이전, 교육 내용, 참가 경험 및 의미, 참가 이후 활동 등으로 내용 분류 – 개인 경험에 대한 의미 – 한계점과 개선 방안 제안 분석	

3) 면담 참가자 개요

면담 참가자들은 먼저 WFK 일반봉사단원 5명, WFK 청년봉사단원(대사협 해외봉사단원) 10명, 대한민국청소년 해외봉사단 중 청소년 참가자 6명과, 인솔자 7명이 참가하였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봉사단은 아니지만 기업 주관 해외봉사단에 참가하였던 대학생 3명이 참가하였으며, 아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4명이고 나머지는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이나 해외자원봉사와 관련된 경력이 1년부터 10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이 활동을 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몽골,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과 남미의 엘살바도르 등이 활동국가로 포함되었다. 주요 참가자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표 IV-4 면담 참가자 개요

구분	이름	성별	나이	현재 신분	파견국(지)	파견기간	참고
WFK KOICA 일반 봉사단원	강현종	남	24	대학생	엘살바도르	2011년 8월 – 2014년 2월	체육교육 (협력요원)
	민주영	여	24	대학원 유학	필리핀	2012년 3월 – 2014년 2월	과학교육
	장지훈	남	23	대학생	몽골	2012년 3월 – 2014년 1월	청소년 개발
	강소윤	여	23	취업준비 중	우즈베키스탄	2012년 3월 – 2014년 3월	한국어 교육
	백 연	여	23	대학원 진학	필리핀	2012년 3월 – 2014년 2월	특수교육
WFK 청년 봉사단 (대사협 봉사단)	김시연	여	21	대학생	우즈베키스탄 / 네팔	2014년 1월 /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김유민	여	22	대학생	우즈베키스탄 / 키르키스스탄	2014년 1월 /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안형수	남	22	대학생	방글라데시 / 필리핀	2013년 8월 /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이기영	여	20	대학생	캄보디아 / 몽골	2013년12월 / 2014년 6월	단원/ 부인솔자
	이서영	여	21	대학생	베트남	2013년 7월	단원

구분	이름	성별	나이	현재 신분	파견국(지)	파견기간	참고
	이성훈	남	25	대학생	라오스	2014년 6월	단원
	이은설	남	23	대학생	캄보디아	2014년 1월 /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진 웅	남	24	대학생	중국 / 베트남	2013년 1월 / 2014년 7월	단원
	정경훈	남	22	대학생	캄보디아	2013년 7월	단원
	선현웅	남	22	대학생	베트남	2013년 12월 /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봉사단 청소년	김제현	여	17	특성화고 2학년	몽골	2014년 7월 26일 ~ 8월 4일	
	김은지	남	18	인문계고 1학년	몽골	2014년 7월 26일 ~ 8월 4일	
	박성준	남	18	특성화고 3학년	캄보디아	2014년 7월 17일 ~ 7월 27일	
	김시형	남	22	대학생	캄보디아	2014년 7월 17일 ~ 7월 27일	
	박세라	여	23	대학생	인도네시아	2011년 7월 10일 ~ 7월 21일	
	이소현	여	17	일반고 2학년	라오스	2014년 7월 19일 ~ 7월 28일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봉사단 인솔자	진현선	여	29	G아동청소년 재단	몽골	2014년 8월 1일 ~ 8월 10일	관련경력 3년
	배지헌	남	31	Y전국연맹	필리핀	2014년 8월 6일 ~ 8월 15일	관련경력 10년
	주인애	여	26	A교류협회	라오스	2014년 7월 19일 ~ 7월 28일	관련경력 5년
	정유미	여	33	H청소년재단	몽골	2014년 7월 26일 ~ 8월 4일	관련경력 6년
	서도훈	남	38	A민간구호기구	캄보디아	2014년 8월 25일 ~ 9월 3일	관련경력 10년
	김성애	여	27	B청소년수련관	베트남	2014년 7월 16일 ~ 7월25일	관련경력 1년
	전영원	여	44	G청소년센터	캄보디아	2014년 7월 17일 ~ 7월27일	관련경력 7년

2. 면담조사 내용 분석

1) 국제개발협력 참가자의 지원 및 참가 동기

여기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직접 참여 형태인 해외자원봉사 참가 이전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개발협력(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수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사전교육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둔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하게 된 개인적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연한 동기

우연한 동기에서 참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가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하게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 참가를 결정하게 된다.

> 장지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창피해가지구요. 저는 원래 가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고요. (중략)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통학을 할 때, 신문을 읽다가, 뽑고 있는 거예요. 그 때 당시 어린 마음에 이력서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취업도 해야 하고 졸업하면, 3학년 2학기였거든요.
> 질문자: 군대 갔다 와서?
> 장지훈: 네. 취업 준비할 겸 이력서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한 번 써봤어요. 1차 합격이 된 거예요. 주변에 이거를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봉사하는 친구들 다 떨어진 거예요. 1차가. 저는 공부를 못하는 편이거든요.(웃음) 그래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떨어지고 못하는 오히려 제가 붙었으니…….

정경훈의 경우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있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자원봉사를 떠나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나 스스로 무엇을 할지 전혀 준비가 없었다. 막연히 호기심에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사례이다.

정경훈: 군대 갔다 와서 뭐를 할까 하다가 봉사라는 게 살면서 해오던 거였는데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 번 어떤 느낌인지 한 번 해보자 해서 호기심에 했었고, 그게 재밌었고 해서 봉사학점도 얻고 보람도 얻고 해서, 해외봉사는 사실 많잖아요. '해피 무브' 이런 게 많이 알려진 게 많았고, 대사협은 처음 들었었는데 우연찮게 들어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마켓에서 가는 거랑 학교에서 가는 거랑 두 개를 놓고 지원을 어디로 할까 하다가 대사협으로 좀 더. (중략) [면접 때] 봉사에 대해서 물어본 건 이런 말들을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그 나라 지금 얼마나 아느냐,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좀 그 얘기를 들을 때 당황했죠. 진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간다고 했구나. 이 나라가 힘들고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원한거구나 생각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붙여 주셨어요.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에 참가하였던 박성준의 경우도 특별한 동기나 의지를 가지고 참가하지는 않았고, 막연히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경험을 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박성준: 딱히 '어떤 동기로 참가하게 되었나?' 여기서는 별다른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지금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했다는 선택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선택한 거랑 그리고 해외봉사를 갔다온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19살인데……. 19년 산 건데……. 제 스스로 두 가지를 선택했다는 게 좀 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3학년까지 3학년 거의 마쳐가는 기간에 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몇 번 좀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해외에 딱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뭐랄까? 시야가 좁았다고 해야 할까? 그 때 당시에는 시야가 좁았는데 이제 해외에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그래도 이제 마지막 고3 마치면서 그래서 딱 참가하게 된 거 같아요.

(2) 주변의 소개

가족 중에 먼저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 언니나 오빠의 소개로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참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연히 참가하는 경우보다는 간접적으로 참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고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이다.

이서영: 제 친언니가 해피 무브를 갔다 와서 대학생들이 이런 거를 가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피 무브는 이런 대기업 쪽에서 비공식적인 거에서 거의 탑인, 제일 유명한 그런 대외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거기 갔다 와서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도 가야겠다' 해서 대학생 때 막 알아보다가 저도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신청해서 가게 됐어요.

김시연: 자원봉사를 이렇게 대사협이라던가 KOICA 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오빠가 자기네 학교에서 공지가 떴다고 선발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학교에 알아봤더니 저희 학교에서는 공지사항 란에 따로 안 올라오고 다른 사이트에 전체 공지란이 있는데 잘 안 보는 덴데 거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오빠의 소개로 찾아서 저희 정보, 학사 지원처? 사회봉사하는 관련 지원처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와서 서류를 먼저 넣고 학교 차원에서 면접을 보고, 대사협차원에서 걸러져서 이렇게 선발이 됐었어요.

(3) 해외협력 및 해외 봉사에 관심

해외 협력이나 해외 경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키워왔던 참가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참가자의 경우 그의 봉사 관심을 해외에서 펼쳐보고 싶은 희망을 갖기도 한다.

민주영: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국제적인 협력에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맞춰서 우선 전공을 교육학으로 해서 나왔는데 계속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쪽으로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한 번 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다가 (중략)... 해외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막 지원해봤던 것 같아요.

이성훈: 저는 기존의 국내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중략)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내보다 해외를 한 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선진국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좀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아이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해외봉사를 조금 찾게 됐어요.

(4) 스펙 쌓기: 장래 취업 경쟁에서의 우위 고려

해외자원봉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가할 수 있지만 특히 지명도 있는 대기업이 주관하는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세다. 이는 향후 해당 대기업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아래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특별히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는 해외 경험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봉사시간도 많이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 웅: 그 지마켓이나 해피 무브같은 데는 너무 몰려요. 제가 듣기로는 25대 1? (중략) 특히 현대차그룹 정말 많이 뽑잖아요. 근데 면접을 가게 되면 그게 딱 있대요. 동질감을 느끼나? 면접관들이 그거를 물어보거나 경험을 물어본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보다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피 무브 갔다 온 사람들이 신입사원들 영현대나 이런 데 보면 잡지 있잖아요. 뭐 해피 무브 갔다온 신입사원들 해서 그런 거 소개란도 있고,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은연중에 우대를 좀 해주는 거 같아서 그렇게 이제 애들이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질문자: 대사협을 갔다 와도 이건 그다지 뭔가 매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

진 웅: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제가 만약에 특정 어딘가 가고 싶다 그럴 때는 훨씬 더 그쪽이 유리한 거죠. (중략) 그리고 또 KB를 노리는 친구들이 라온아띠에 그렇게 가고 싶어해요. KB 홍보대사도 있고 한데 라온아띠가 워낙 크니까.

김시연: 기업에서는 요즘에는 다 상향평준화 되어서. 해외봉사도 다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고, 봉사 아니더라도 해외연수, 교환학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봉사시간 자체를 엄청 많이 늘려서 몇 백 시간은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해외자원봉사를 다녀왔던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참가 동기를 살펴볼 때 스펙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 진학 이전 시기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활동 경험이 상급학교 입시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원과정에서 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유미: 아이들의 기본적인 토대는 거의 다 스펙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에요. 중학생들도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3 친구들이 그걸 냈었고 거의 대부분. 근데 거의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좀 많아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가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런 이제 처음에는 이런 불순한 동기로 오는 게 나는 잘 모를 때는 싫었는데 많이 해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어떤 동기로 오던지 내가 여기서 더 좋게 느끼고 가면 저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그런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 친구랑 한 번 같이 가보자 해서 갔던 친구들 중에 되게 변화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스펙의 의도를 은연중에 가지고 해외자원봉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스펙을 위한 시간 보내기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이성훈: 기사에도 한 번씩 나잖아요. 해외봉사 단기해외봉사가 한 줄의 스펙이 됐다 근데 저도 거기에 100%, 그러니까 스펙이 안 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건데, 하지만 처음에 내가 스펙을 한 줄 더 써야지 하고 만약에 갔어도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그게 확실히 100% 바뀌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에 쓸 수는 있겠지만 안 써도 그만, 만약에 쓰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변하고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펙만 보고 가면 특히 대사협 봉사는 그것만 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 그러니까 의도야 어찌 됐던 간에 경험하고 오면 정말 다른 큰 거를(웃음)

이성훈: 네. 얻어오니까 그거는 뭐 스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의 인생에 특별한 경험이고 뭐 어떻게 보면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기 때문에.

(5) 해외자원봉사 참가에 대한 주변의 반응 및 인식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전공이나 관심도, 학교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 참가가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해외에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인식, 해외경험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등을 표출하고 있다.

김시연: 저한테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냐고 제가 가면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라오고 제가 대사협에서 또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대사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고, (중략) 국내봉사도 다닌 편인,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한 편이기 때문에 넌 왜 봉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너 봉사만 하냐고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약간 봉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약간 스펙 쌓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하는 게 너 스펙 쌓으려고 하냐 왜 봉사만 하냐 다른 것도 해라 인턴 같은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이기영: 저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에 취직하길 바라고 이런 친구들은 '좋겠다 너 맨날 해외에 가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되게 반기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중략) 그래서 너 왜 해외봉사 가냐 국내에도 소위 말하는 엄청 많잖아요. '국내에도 그렇게 할 게 많은데 왜 외국에 돈 내서 가냐 너 자기 만족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엄청 회의감이 회의감도 아니죠. 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되게 '나는 왜 가는 거지?' 하는 목적의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경훈: 열 명 중에 솔직히 여섯, 일곱 관심이 있는데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두 명에서 세 명이고 그 중에서도 세 명은 두 명은 스펙 쌓으려고 갔던 거고, 한 명은. 열 명 중에 한 명도 찾기가 힘든 거죠. 가고 싶다 이런 게.

질문자: 그럼 봉사활동이 스펙이 됐다라는 인식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정경훈: 요새는 하도 뉴스나 이런 거 말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해외봉사.

질문자: 그럼 경훈 친구가 해외봉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정경훈: 가족들은 이제 좋아했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만 받고 처음으로 제가 찾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했고.

질문자: 가보라고?

정경훈: 네. 친구들도 친구들 인식은 이제 해외봉사가 봉사하러 가는게 아니라 해외 나간다는 것만 들으니까 친구들은 '아, 좋겠다.' ' 잘 갔다와라.' '재밌겠다.' 다 좋은 평가지 나쁜 평가는 없는 거 같아요.

2) 참가자의 사전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및 의미 파악

사전교육에 대한 개별 의미 부여와 현지에서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또 파견지역 별로 다르게 판단되고 있었다.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1) 언어교육 유용성

사전교육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꼽고 있는 부분은 현지 언어교육이다. 현지어는 파견되어 활동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KOICA 일반 봉사단의 경우 파견되기 전 국내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 기간과 파견 후 현지에서 두 달 동안 언어교육을 받았던 경험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참가자가 스스로 현지어에 대해 익숙해져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경우 더욱 현지어 습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지훈: 한 달 동안 교육을 같이 받는데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언어 시험도 보고, 몽골어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잠을 자면 안 되겠다 싶더라구요. 한 달 내내 잠을 거의 안 잤어요. 날을 새면서 그렇게 (중략) 현지에서도 사무소를 제외한 동기며 뭐며 뭐며 이런 거 다 끊고, 언어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언어를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몽골에 있던 선배단원들 보다도 으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민주영: 저는 언어교육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와서는 거의 기억도 안 나고 거기서도 솔직히 배웠던 거에 비해서 현지 가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필리핀이라는 나라 특성 때문에 영어가 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필리핀에서 만약에 타갈로그만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 도움이 돼서 그냥 지금도 엄청 잘 쓸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간 것 같아요.

한편, 현지어를 사전에 교육받는 경우에도 현지의 각 지역에 따라 주요 언어와 지역 언어가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한 달 동안 러시아어를 교육받다가 우즈베키스탄에 간 강소윤의 경우도 우즈벡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여 두 달 동안 현지 언어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강소윤: 거의 현지인처럼 우즈벡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웃음), 키릴자를 러시아문자를 배운 거는 도움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러시아어를 배웠던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중략) 그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KOICA 입장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우즈벡어를 다 가르치면, 러시아어를 쓰는 단원들도 있는데, 그게 좀. 그런 거를 맞춰주기가 힘든 거죠. 러시아어는 이제 솔직히 한 달 동안 배워도 익힐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회화랑 그냥 문자만 익히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필리핀에 파견되었던 백 연의 경우도 현지어인 타갈로그를 주로 교육받고 익히고 갔지만 막상 주요 활동을 했던 지역에서는 타갈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현지어를 새롭게 익혀야 하는 상황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백 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필리핀이 지방어가 너무 많아요. 지역어가 너무 많아요. 뭐 몇 개가 있다더라? 되게 많대요. 200개 정도 된다고. (중략) 상당히 많은 지역 언어를 가지고 있고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마닐라 이쪽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저희학교 초등학교에서 보면 옆 반을 이렇게 보면 타갈로그 수업시간이 따로 있어요. (중략) 이제 제가 이제 오제이티 기간에 갔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타갈로그를 배웠으니까 현지어 쓰겠다고 타갈로그를 막 썼죠 선생님들한테 그동안 막 배웠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타갈로그 안 쓴다고 우리는 타갈로그 안 써. 야, 선임언니는 세부아노 잘하는 데 너는 왜 세부아노 못해 라고 이렇게 딱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 사전 준비과정의 어려움

해외자원봉사 참가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활동을 하기 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파견 이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인 소양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 팀별로 이루어지는 현지 활동에 대한 역할과 역할 수행을 위한 조별 토의 등 사전교육 일정이 진행되지만, 아직 대학생들인 이들이 구체적인 현지 활동 내용을 기획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선배들이 멘토로 해외봉사 참가 준비에 가이드를 주고 있지만, 해외자원봉사의 취지가 직접 현지 활동에 참가할 단원들 스스로 활동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참가자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정경훈: 저희 멘토가 있어요. 선배 기수가 와서 멘토를 해주는데 멘토들이 갔다 온 영상 한 번 보여주고, 자기들이 뭐 했다고 보여주는데 그 말을 해주지만 그렇게 따라가면 전 기수가 갔다 온 똑같은 봉사가 되는 거지 저희만의 봉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그걸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인솔자, 인솔자님도 되게 말을 아끼시고 '니네가 해.' 이런 식으로 진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막막해가지고...

준비를 위한 아이디어 동원과 함께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자의 경우 수시로 연락을 담당해야 한다. 파견팀의 팀장 역할을 하는 참가자의 경우 팀 내에서 조별 역할을 분장하고 조장들이 해당 조별로 맡은 활동 내용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은 대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인 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성훈: 좀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1차 교육이 끝나고 나면 처음에 발대식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날까지는 뭘 마감을 해야 되고 이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거기에 맞게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해 달라 이렇게 해 와라 조장한테 얘기를 하면 조장들이 다 같이 조원들이랑 단체 톡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카페도 개설되고 이러니까 항상 거기에 공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팀별로 모여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교류 같은 거는 서로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근교에 만약에 서울에 다 산다고 하면 서로 만나서 준비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질문자: 공식적인 준비일정 말고도 소소하게 개인적이나 뭐 그룹으로 만나서 더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성훈: 저희는 저희 팀 애들은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4학년이라서 듣는 과목이 적긴 했지만 신경 쓸 부분도 되게 많고 팀장이다 보니까 대사협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팀원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도서관에 놓고 수업을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 작업하다가 공부하다가 또 들어오면 작업하다가 애들한테 뭐 해라 뭐 해라 하고. (중략)

3) 국제개발협력 참여과정

(1) KOICA 단원들의 사례

① 참가자의 개별 역량 및 의지 발휘

KOICA 일반봉사단원의 경우 현지 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편이다. 몽골에 파견되었던 장지훈의 경우도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여 몽골 현지의 아동 교육 및 다양한 음악활동을 기획하였으며,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지훈: 아이들이 가사를 쓰고요. 제가 작사 작곡, 작곡을 해요 작곡을 하면은 이 노래를 녹음을 해요. 작곡한 것을 컴퓨터로 녹음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너 한 번씩 불러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고, 아이들 하나하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직접 입력한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결정체를 만들어 내고 그것에 대해서 희열과 도전 정신이.....

한국어교육 분야로 봉사를 했던 강소윤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방과 후에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문화수업을 하였다.

강소윤: 수업은 월, 화, 수, 목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마다 다른데, 보통 KOICA 단원은 그 학교와 미리 연결된 내용 외에는 약간 단원 자율성이 있어요. 수업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저희 기관이 이제 제2외국어 정규교육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방과후 교육이나 수업도 또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수업을 하고, 또 방과후 수업도 하는 식으로, (중략)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게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리핀에서 특수교육 분야를 담당하였던 백 연 단원의 경우에도 청각 장애아들을 위하여 현지에서 통용되는 미국 수화를 개인적으로 배우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필리핀 공용어인 타갈로그가 아닌 현지 언어지도를 받았다. 이처럼 별도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현지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과 교육 수단을 습득하는 데에 1년의 시간을 소요한다.

백 연: 저는 이제 가서 미술활동지도 미술지도를 이제 제가 중심으로 맡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자폐 유아학급에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청각장애 학급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수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화를 한국수화만 알지 이제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미국수화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중략) 완전히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저희 코워커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하루에 한 시간씩 수업이 다 끝나고 나에게 혹시 수화를 가르쳐줄 수 있겠냐 하니까 선생님도 제가 뭐 배우려고 하는 자세나 이런 걸 보셨는지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셔가지고 한 6개월가량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그렇게 수화지도를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언어지도도 같이 받았어요.

② 현지에서 부딪히며 깨닫기: 사전 교육을 넘어서는 활동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은 사전 교육과정에서 배운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자신의 활동을 새롭게 꾸려가야 하며, 이는 현지에서 스스로 개척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육 활동을 수행하였던 강소윤의

경우도 한국어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이 아닌, 본인도 생소한 우즈벡 언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다.

강소윤: 어느 정도 성인학습자면 한국어로 수업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어라는 매개어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한국어 수업 효율은 조금 떨어지는 게 한국어로 한국어를 설명할 때 수업 효율성이 제일 높은데, 애들이 한국어를 아예 모르니까 한국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다 매개어로 설명을 했어요.

질문자: 음. 그러면 우즈벡어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강소윤: (웃음) 네. 강제적으로 하게 됐죠. 거기서 또 제가 살던 지역은 안디잔에서도 외각이니까 거의 우즈벡 사람들밖에 없었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우즈벡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살면서 우즈벡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 수행에 더하여 수업방식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사업을 기획하여 현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강소윤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시청각 기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인근 지역 한국어 교사들을 모아 한국어 캠프를 열기도 하였다.

강소윤: 단원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보통 기관에 가면 뭐를 가르쳐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한국어 교과서가 있었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되, 그 수업이 굉장히 전통적인 판서 위주여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현장 사업 이런 거를 해가지고 미디어시설을 설치하고 애들한테 시청각 자료를 같이 보여주면서 노래방기기 같은 걸로 동요 수업도 하고. (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우즈벡에서 제일 유일하고 제일 큰 게, 동부 지역에 협력활동을 해서 동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모여서, 캠프를 하거든요. 학생들 학교에 데려와서 200명 정도 캠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기획을 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너무 많은 힘이 들었기 때문에 혹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단원들이 그런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활동 그런 것들을 물론 국내 활동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설명해주지만, 그런 것도 좀.

청소년개발 분야로 파견되었던 장지훈의 경우도 주어진 업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역량을 활용하여 현지의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장지훈: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저는 학생이었고, 실무 경험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그럴 바에야 내 능력 안에 있는 재능들을 다 끌어 모아서 동아리를 만든다던지 뭐 이런 아이들과 최대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질문자: 그래서 그런 동아리하고, 활동 같은 이런 것들 본인 스스로의 콘텐츠 그런 것들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장지훈: 저는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저에게 와요. 제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나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던지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해서, 그게 가장 크게 했던 프로그램들이 대회 한 번 참가해 보고 싶다, 노래 대회 같은 거 참가하고 싶다, 합창대회 참여한 거, 그리고 한국어도 좀 많이 배우거든요. 한국어대회도, 올림피아 콩쿨대회나 그런.

몽골에서 청소년개발 사업 분야로 자원봉사를 하던 장지훈의 경우에는 몽골 현지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한국의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한국방문 프로그램을 혼자서 수행하기도 하였다. 직접 청소년들을 인솔하고, 경비 절감을 위해 배와 기차 등을 이용해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공식적인 지원 없이 개인적인 일정과 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장지훈: 제가 인맥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성남에 있는 바로 여기 옆에 중원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있는 직원과 연계를 해서, 몽골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와서, 몽골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홈스테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이라고 보거든요.

질문자: 성남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했어요?

장지훈: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건데, 좀 많이 억울하고 그랬던 게, 출장도 안 내주고요, 저 개인 휴가를 써서 왔어요. 1년에 3주를 휴가를 갈 수 있는데, 그 3주를 한국에 와서 아이들과..... 부모님도 심지어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그 정도였거든요.

현지에서의 활동 반경이나 활동 내용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다. 백 연 단원의 경우도 필리핀에서 교사들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하고, 수화와 현지어를 배우며 1년을 보낸 후, 자발적으로 현지 학교에서 수업 지도 등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직접 청각장애아 미술지도를 시작하게 된다.

백 연: 제대로 들어가고 나서 6개월가량은 제가 아무런 수업지도는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의 어시스턴트 일을 하면서 그냥 필리핀에 있는 학교 상황을 조금 관찰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제가 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조금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갔고 그리고 바로 3월 달부터 바로 이제 방학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업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간간이 미술지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땐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상태로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제 제 시간을 정했어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내가 내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지난 1년 간은 나는 어시스턴트만 했고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수화로 해서 미술지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내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다고 왜냐하면 네가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어시스턴트만 하다가 갈 순 없는 거 아니냐고...

KOICA 자원봉사단의 경우 현지에서 2년여의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현지 적응기간과 파견 분야, 개인 역량과 현지 상황 등을 조합하여 응용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후기 청소년 연령대의 파견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경험이나 직업 경력, 숙련된 기술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지와 단편적인 정보 등을 활용하여 현지에서의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출발 전 기대와 현지 경험에서의 괴리

해외봉사 파견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운 뒤, 자신이 맡은 활동을 하기 위해 기대에 부풀어 현지에 체류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에서 체험되는 현실은 처음에 했던 기대와 많이 다름을 체감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현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현지 사정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활동을 개척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백 연: 처음에 어느 정도 갈 때에도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용품을 많이 준비해 갔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미술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갈 때에는 그렇게 미술지도가 체계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가서 6개월의 그 관찰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끼어들기가 처음에는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수업이 오전 8시부터 이루어지는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초반에는 조금 많이 받았어요. (중략) 제가 선생님께 교육과정을 보고 싶은데 조금 볼 수 있을까요? 하면 그게 교육청에 있어서 나도 잘 몰라.(웃음) 네가 보고 싶으면 교육청장님 찾아가(웃음) 이렇게 말이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나 교과서 보고 싶어. 나 필리핀의 텍스트북 보고 싶은데 텍스트북 보여줘 나도 텍스트북 없어 (중략) 교육청에 가봐(웃음) 이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초반에는 조금 사실 그래서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필리핀에 과학교육 분야로 파견되었던 민주영 단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학교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구에 소속되어 수퍼바이저와 동행하여 수업을 참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초반에는 현장에서 오히려 아동이나 교사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민주영: 제가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구에 속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교장선생님 수퍼바이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 회의할 때 저도 같이 있고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애들이 저한테 오고 이러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외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애들도 얼마나 궁금해 할까 애들

도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오히려 저리 가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애들을 좀.

질문자: 그럼 그런 역할인지 알고 가신 거예요?

민주영: 아니요 전혀 달랐어요.(웃음)

(2) 대사협 자원봉사단의 사례

① 현지에서의 의미 있던 활동: 문화교류 활동

단기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들고 있는 부분은 문화교류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음악과 미술, 만들기 활동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전문적인 활동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연령대인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종이 접기 활동, 한복 입기 체험, 현지어로 번역한 동요 부르기 활동, 간단한 실험활동, K-POP부르기 활동 등을 즐겨하였다.

이서영: 한국어나 한국 전통 부채 만들기나 저희가 전통문양 색종이로 한복 접기 이런 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은 없고 해서 그런 시간을 문화교류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처음에 몸으로 함께 친해지니까 훨씬 더 문화교류 할 때 애기도 더 잘하게 되고 어색함이 없어지는 데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 웅: 문화를 교류한다는 게 되게 뜻 깊다고 느꼈던 게 그런 한복 접기 같은 것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더라고요. 간직하고, 한복입기 체험도 한복 입고 사진 엄청 찍고 너무 좋다고 그런 거 보면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는데 베트남 국기 한국 국기 그려놓고 막 그런 거 하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게.

이은설: 저는 음악 교육을 해서 동요를 알려줬는데 매일 하교 길에 내가 알려준 동요 부르면서 가는 아이 보면서 퇴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중략) 굉장히 멜로

디가 많은데 어느 버전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로 소리를 바꿔서 음절 맞게 해서 해줬는데 그런 거랑 빠빠빠 이런 거 알려주고 K-POP을 좋아하니까 그걸 해서 해줬는데 저희가 오늘 알려준 거 집에 가면서 그런 거 부르고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일단 음악 쪽이어서 뿌듯했고 또 미술 쪽 친구가 발표 때 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왕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자꾸 등교할 때마다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자기가 너무 보람을 느낀다고 자꾸 더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람을, 교육 쪽으로는 보람 느낄 수 있는 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지 않을까.

다양한 문화교류 및 현지 공연 활동과 함께 홈스테이 체험도 의미있는 활동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홈스테이의 경우 실시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성훈: 네. 홈스테이가 되게 좋았는데, 근데 나라마다 좀 상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저희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는 곳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거 같기는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학생 대상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친구를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저희 같은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 하는 것도 좋지만 딱 하루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이 있었으면, 친구랑 둘이 그룹을 지어서 그룹끼리 어디 나갔다가 온다던지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되게 많이 걸리겠지만요.

② 현지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현지 환경과 언어 장벽

해외자원봉사를 떠나기 전에 가졌던 기대나 열의가 해외봉사 초반에 열악한 현지 생활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다 현지에 파견된 참가자들의 경우 열악한 현지 학교생활과 현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경훈: 가기 전에는 파이팅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하자. 근데 아 생각처럼 생각지도 못할 만큼 열악해요. 진짜 아니 많이 놀랐어요. 이정도로 열악한가? 너무 달랐어요. 저희가 문화교류도 마을사람들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교류를 하는데 저희는 좀 생각했거든요. 뭐 무대도 좀 제대로 하겠지. 막상 할 때는…….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저희 팀 애들 다 '다 도와주고 오자.' 이랬는데, 진짜 힘드니까 저희가 첫날에 모든 기를 다 쓴 거예요. 첫날에 애들 한 명씩 다 잘 놀아주고

하다가 둘째 날 지나가면서 힘들어서 애들이 오잖아요? 학교를 버스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애들이 막 와요.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막 달려오는데 (웃음) 다 초월하더라구요. 좋아요. 애들이 좋기는 좋은데…….(중략) 한숨 한 번 쉬고 파이팅하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 앞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중략)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김유민: 되게 잘 먹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지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아침, 저녁은 그렇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학교에서 나오는 거로 먹었거든요. 그 교육하는 학교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현지식에 가깝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원들이 되게 많이 남기고 안 먹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현지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 강요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런데 너무 편하게 한국식만 찾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어려웠었고요.

한편, 현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더 활동을 심화시키고 싶지만 현지어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은설: (생략) 힘든 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친해지면 현지어 관련 되서 애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말을 하고 더한 걸 묻는데 저희는 끝이고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될 거 같은데 안 되는 게 현지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서 현지어 많이 알아가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많이 받았지만 참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일이라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그게 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준비해 간 프로그램이 현지의 돌발적 상황이나 진행과정 상의 시행착오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겪기도 한다. 해외자원봉사는 다양한 현지 상황 그리고 항상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 때문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해 간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새롭게 현지 상황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경훈: 저는 욕심이 많아서 문화교류도 엄청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고, 교육도 엄청 많이 준비한 거예요. 인솔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 많이 하는 건 처음이라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서 저희 이름표

나눠주고 소개하는 데에 수업시간이 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일차에 다해야 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일차 넘어가서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2일차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중략)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었죠. 준비한대로 준비는 이만큼 했으면 보여주는 건 반도 안 되고. 욕심이 많았죠.

③ 팀으로서의 활동이 주는 교훈

가. 팀 관리의 어려움

대사협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파견팀에서의 역할 분담과 팀 차원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팀 차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솔자와 부인솔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외자원봉사에 팀원으로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부인솔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실제로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기간 내내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던 김유민은 부인솔자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해외자원봉사 경험에 있어서는 실제로 경험 많은 참가자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김유민: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의견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견을 강하게 말하게 되고 좀 약하거나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인솔자라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몰랐었는데 좀 더 들어가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정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 소통의 문제는 항상 어디가든 생기는 거 같고요.

결국 해외봉사라는 활동의 내용과 함께 팀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단체로 파견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팀원들간의 원만한 생활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은설: 해외봉사 마인드 이전에 일단 그 사람 그 기본적인 성격이랑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봉사가 있기 전에 봉사단원이 있어서 단체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단체생활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문제이고, 단체생활이 안 되면 이게 사람이 참 봉사 이전에 봉사단이 있어야 해서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관리자의 입장이 되어서는 파견단 팀원들이 현지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해외자원봉사에 임하는 팀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현지에서 음식에 대한 거부감, 문화체험에 대한 요구, 숙소에 대한 불평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설: 아무거나 잘 먹는데, 가리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개인차이니까 그건 또 뭐 건들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일단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탐방을 못하는데 문화체험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저는 현지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놓고 문화체험 안 시켜주느니 이런 뭐 이렇게 의식주 세 개중에 두 개나 벌써 캄보디아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왜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무조건 입맛에 안 맞다고 투정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캄보디아를 갔으면 캄보디아 룰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아마 몸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지만 몸 이전에 정신 상태부터 바꿔서 해외봉사를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선현웅: 정말 저희는 27기에 34명이었는데 총인원이 단장님 포함해서.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다들 니네 안 친하니까 안 싸웠겠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말 친하거든요. 아직도 만나는 사람들 계속 만나고 갔다 와서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 그때 갔을 때 정말 마음씨 착한 애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뭔가 약간 관리의 입장으로 가서 그런지 그런 나쁜 모습만 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숙소를 대하는 태도가 저희가 무슨 여행을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고 저희한테 주는 음식이 그렇게 심한 현지식도 아니고 걔네들이 먹는 문화고 걔네들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숙소 보자마자 다들 여기서 어떻게 자냐는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어디 못잘 데 간 건 아니거든요. 개네가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 굳이 해외봉사를 네가 택한 사람이라면…….

나. 봉사팀 일원으로서의 깨달음

대사협 해외자원봉사단의 경우 팀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의 활동,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만, 한국에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전공과 대학,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팀웍을 이루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선현웅: 저는 이번에 단원으로 갔을 때 친구들하고 더 친하니까 단원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다양했거든요. 한체대에서 역도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판소리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그게 굳이 해외봉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서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한체대 역도했던 애는 집안형편도 어려운데 역도를 하는데 걔가 저보다 두 살 동생인데도 개한테는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러거든요.

이성훈: 팀장은 팀장 리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 또 단원들은 단원으로서 이런 거를 하면서 '아, 이런 팀장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배움의 일부인 거 같아요. 저희도 인솔자 선생님한테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너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배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기영: 저는 여기서 좀 좋았던 게 저는 그전까지는 학교 안에만 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도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이고, 비슷한 관심을, 관심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닫히고 이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전국에 있는 학생들 좀 다양한, 예를 들면 전문대나 아니면 전공도 엄청 다양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3) 대한민국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의 사례

① 현지에서 의미 있던 활동: 현지인들과의 교류 경험

대한민국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몽골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던 김은지와

김제현의 경우도 현지에서 아동들과 함께 어울렸던 경험에 대해 재미있고 보람 있었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시작 이전에 계획했던 교육봉사의 내용을 지키려 애쓰는 것 보다 오히려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렸던 경험이 더 의미 있었다고 말한다.

김은지: 노력봉사랑 또 저희끼리 무슨 소통하고 힐링하는 그런 '우리들만의 이야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들만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친숙해진 것도 있고……. 되게 정을 많이 나눴었어요. 그게 재밌었고 힐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제현: 애기들이 너무 예뻐서 동생 보듯이 대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다른 나라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부담되는 반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첫 수업하고 나서 첫 수업을 좀 괜찮게 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중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말 물어보고, 옆에 현지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일부러 아이들한테 말 물어보고 발음이 어색하니까 아이들도 되게 웃겼는지 웃고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단어를 배우고 걔네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 아이들도 저희들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 다 좋아하고 연날리기랑 제기차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가서 노는데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정말 해맑게 노는 걸 보고 진짜 애네는 정말 잘 노는구나. 정말 잘 놀 줄 아는구나 하고 되게 예뻤어요. 가서 봉사를 해 준다는 게 그쪽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나도 힐링 되고, 나도 배우는구나를 알았어요.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던 김시형의 경우도 현지의 아동들과 했던 활동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남는다고 말한다. 현지에서 진행했던 간단한 놀이나 활동이 현지의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시형: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무슨 놀이 같은 거를 만들어요. 저희는 놀이가 조가 나눠져 가지고 한 6개의 놀이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물총 쏘기 그리고 어떤 애는 종이인형 만들기, 비누인형 만들기, 이렇게 막 있는데……. (중략) 그게 근데 한 9시부터인데 한 7시에 기상해서 체조하는데 아이들이 7시부터 와 있는 거예요. 왜 와있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아이들이 할 게 없다고 일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그거 듣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것만 보고……. 진짜 잘해 줘야겠구나. 진짜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고 했는데 너무 진짜…….

질문자: 순수하게?

김시형: 애들이 너무 진짜 착해 보이고.

질문자: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했어요?

김시형: 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 애들이 손꼽아 기다렸다는 게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서. (중략) 진짜 좋았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장 작업을 했던 박성준의 경우도 현지 아이들과 어울렸던 경험과 도장 자격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심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박성준: 가서 도장하고 이제 원아탁아소 가서 아이들 놀아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뭔가 페인트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가 캄보디아 대학교를 간 거잖아요. 거기서 열리는 오라토리움 같은 거를 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중략) 많은 기여라고 해봤자 딱히 없는 거 같은데……. 다들 고생을 하셔 가지고 저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다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최선을 다한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왜냐하면 다들 갔다 와서 몸살에다가 장염에다가 다 걸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도 그랬고 다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계를 벗어나서 (웃음) 정말로 진심으로…….

라오스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이소현의 경우도 현지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활동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며, 현지 아이들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소현: 각자 의견을 하나씩 냈어요. 가서 어떤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당연히 제가 한 의견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신체 명칭' 이라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한국어로 신체 명칭을 말하는 배우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 노래를 제 앞에서 아이들이 불러주더라고요. 안 까먹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 같고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저희는 보통 봉사를 주러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이들이 자꾸 뭔가를 주는 거예요.

다년간 청소년들을 인솔하고 해외자원봉사를 하였던 전영원 지도자의 경우도 현지에서 청소년들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몸으로 부딪히는 단순한 놀이를 하면서도 매우 즐거워하고, 불편하고 열악한 편의 시설에도 불평하지 않고 적응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

> 전영원: (생략) 어두침침한 그 불빛 속에서 아이들이 나뭇가지 같은 게 있어요. 이파리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가운데에 놓고 이쪽에서 쭉 일렬로 서고, 일렬로 서고 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인원 수 만큼 딱 정해서 한 명의 사회자가 있어요. 그러면 '3번 나와.' 그러면 3번이 나와요. 양쪽 3번이 나와서 이 나뭇가지를 뺏어서 먼저 자기 진영으로 도망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명씩 부르는 게 아니라 '3번, 6번, 10번.' 이러면 애네들이 서로 막아가면서 이거를 갖고 뛰는데 애들이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그렇게 못 놀아 봤잖아요? 근데 거기 아이들은 그 나뭇가지 하나만 던져 줘도 나뭇가지에 나중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요. (중략)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면서도 그냥 온 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노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랬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뭔가 하나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중략) 아이들이 전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적응하기 나름이고, 환경의 불편함은……. 그거를 몸으로 깨닫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중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전공에 특화된 활동이라기보다는 현지의 아동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단순한 활동 위주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아동들과 자원봉사 청소년들의 상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 김성애: 그 중에 오래된 학교들은 조금 규모도 다 작은데 지붕이나 이런 것도 다 낙후가 되어서 학교 쪽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저희가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지붕 수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이들 책상이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서 책걸상 교체하는 거까지 저희가 일부 기부금하고 저희 보조한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학교 교체를 해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봉사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미 비용을 대고 공사를 들어가서

하고 있었고 그 교체공사를 아이들이 직접 돕는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이 청소년 전공인데 체육학과에 특화된 곳들이 있어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청소년 지도학과라고 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음악, 줄넘기라든지 간단한 뭐 미니올림픽 같은 그런 체육대회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간호학과였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 아이들 양치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연비누 만드는 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교육을 했었고.

대한민국청소년해외봉사단의 경우 현지 활동 내용이 노력봉사, 교육봉사, 문화 교류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었지만, 단체의 특성상 현지에 지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를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독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10여년에 걸쳐 해외 지부와의 연계 아래 필리핀에서 청소년자원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YMCA의 경우 현지에 책을 볼 수 있는 원두막을 짓고 현지어로 책을 번역하여 비치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었다.

배지헌: 저희가 마을회관 같은데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황당하죠. 왜냐하면 물 길러 와야죠.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거기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하고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요. 거기는 몸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더 내려놓거나 조금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전기도 많이 끊기고 오히려 별빛이나 달빛이 쫙 비춰서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죠. 밥도 같이 해먹고 봉사활동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는 '쿠보'라는 것을 지어요. 우리말로 하면 원두막 같은 건데, 볏짚으로 이렇게 나무로 쌓는 건데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 쿠보를 짓는데 거기가 뭐 휴식을 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때 제가 좀 제안을 했던 거는 가서 딱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3%가 안 돼요.

질문자: 학교는 있어요?

배지헌: 하나 있고, 다 놀아요. 동네에서 다들. 근데 시내에 나가는 아이들은 더 적고, 근데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책

을 좀 우리가 지속적인 활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쿠보 위에다가 선반을 좀 댔어요. 진짜 말하면 북카페 형식으로 좀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중략) 영어라 아이들이 읽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갈로그 책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이제 타갈로그로 번역하는 것도 그런 활동도 좀 해요.

② 현지활동 중 개선 방안

해외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과정에서 현지인들과의 교류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제안을 한다. 해외 체험을 거의 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외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보다는 문화와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진현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친구들도 분명히 봉사활동 시간과 문화 그런 체험의 시간이 첫 번째가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 문화에 대해서 글로벌의식 함양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화에 대해 더 경험을 하고 이 속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략) 그 웅덩이, 구덩이 파고 그 사막화 방지 그것도 필요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얘들이 국제환경이 뭔지……. '이렇구나.' 라는 인식은 했을지 몰라도 '여기 문화가 이렇네.' 그런 거 보다는 현지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처음 참가 동기가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문화를 좀 더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면 문화 경험을, 문화 체험을 하면서 애들이 봉사 활동과 연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양적 기회 확대 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에 대해서 지적한다. 단순히 저개발국을 방문하여 노력봉사 등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봉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의 탐색, 봉사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변화 가능성 모색 등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배지헌: 저는 그런 고민은 좀 있는 게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가서 뭘 지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사회를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시아든 어디든 지금 가는 나라들이 예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

만 거의 아시아가 주된 나라이긴 한데 가는 곳도 좀 주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테마를 좀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한국에서의 어떤 한국 사회와의 같이 비교나 뭐 공감, 그리고 한국 사회를 약간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4) 개인 참가자의 소회, 깨달음, 의미 부여

(1) 베푸는 것보다 배우는 기회

해외자원봉사를 다녀온 청소년들의 경우 해외봉사 참가 이전에는 어려운 사회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배우고 온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이은설: 내가 줬던 마음 그대로 걔네들이 나한테 직접 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돌아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무뎌지겠지만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를 느끼면서 해외봉사 잘 다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내가 얼마나 평소에 마음을 쏟았나, 쏟은 게 많은 만큼 돌아오는 게 크다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해보는데 이런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마음을 얼마나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선현웅: 지원한 것도 군대 있을 때 아는 친구 동영상 그거 하나 보고 그냥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생각은 이번 겨울에도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고, 중기도 한 번 가보고 싶고 그런데 형 얘기했듯이 거의 모든 단원들 생각이 내가 더 배우고 왔다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들을 인솔해 온 지도자와 참가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주러 갔지만, 오히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배지헌: 마지막 날 그 마을 축제할 때 펑펑 울고 '왜 이런 걸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등등부터 해서 또 그들이 주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긴 한데 막연하게 우리가

뭘 주러 가려고 갔는데, 오히려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중략) 그게 단지 꼭 잘 살아서 뭐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마음 대 마음으로 진정하게 그들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방법, 이 아이들은 멍해진 거죠. 단지 10일 뭐 1주 좀 넘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는 뭔가 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받아오는 이런 고민들이 또 다른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후 우리가 한국 가서 함께 해야 할 과제다. 이제부터 자원봉사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박성준: 거기에 가면 저희 같은 사람이 오히려 불청객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불청객이더라고요. 거기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의 또 다른 순수함을 끌어내고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자원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이나 해외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이나 하는 말들이 '내가 배우고 왔다.'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 저 사람도 이제 저 사람만의 또 다른 감정을 느꼈고 또 그런 것들 생각을 받아왔겠구나. 저도 이렇게 받아왔는데…….

(2) 타문화 및 타민족에 대한 수용성 증진

바쁘고 여유 없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해외자원봉사를 위해 타 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 사람들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 접하게 되고, 한국사회에서 젖어있던 습관이나 편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사회보다 경제나 산업화에 뒤처져 있는 국가에 대하여 다소 비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타 사회를 접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진현선: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해외경험도 경험이지만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이런 문화도 있고, 몽골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타문화를 이해하는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강현종: 동남아만 해도, 제 주변에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편견이 있었고. 근데 그런 편견이 깨졌다는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얻은 것 중에. (중략) 똑같은 사람들이고, 저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안에서.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우리가 좀 더 우월하다 그런 편견 같은 거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그게 더 보이더라구요. (중략) 외국인 노동자를 봐도 뭔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들을, 되게 힘들 거 같고 타지에 와서 일단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김은지: (한국은) 되게 바빠 보이고 되게 각박하잖아요? 회사에 바쁘고 차량에 이런 것들에 찌들어 가지고 일만 하고 사는데, 몽골 사람들은 되게 평온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는 길에 소들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그냥 있고 되게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말을 그게 뭔지 정말 제대로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중략) 그런 생각으로 막 사로잡혀 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그냥 스스로를 억제하면서 살았는데 몽골 가서 자유 시간에 그냥 숙소 앞에서 의자 깔고 딱 그냥 앉아있었는데 딱 석양이 노을 지면서 딱 비치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생각한 것보다 바쁘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만 바쁘게 살았구나.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 해외자원봉사를 하고 와서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소현의 경우 해외에서 자원봉사 경험을 하기 전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외국인 범죄 등을 접하고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라오스에서의 경험한 현지인들의 친절함 덕분에 다문화축제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이주민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계기를 갖기도 하였다.

이소현: 일단 제가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는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외국인을) 무서워하는 게 있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략)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거기 분들이 다 저희랑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라오스 분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원 중계동에서 수원 다문화축제가 있었는데 거기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중략) 딱 갔는데 그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별로 줄을 서서 저희는 그 분들이 시민 분들이랑 접촉하지 않게 사건이 안 생기게 가이드하는 역할이었고요. 근데 제 앞에 한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저 분이 어떤 나라 사람일까 궁금한 거예요. (중략)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우즈베키스탄이더라고요. 서로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귀여운 거예요.

질문자: 우리말로 했어요?

이소현: 네. 되게 시커멓고 부리부리하고 전형적인 인도 스타일 이런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너무 귀엽고 친근한 거예요. (중략) 정말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 같아요. 그래서 친구 같아요. (중략) 아저씨셨거든요. 한국에 온지 4년 됐다고 했어요. 서로 이름 막 부르고 그 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긴 거 같아요.

(3) 태도의 변화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특히,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참가자 혹은 소위 스펙에 관심이 있어 지원했던 참가자들의 경우도 현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현지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든지,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변화하는 모습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전영원: 근데 아이들이 몸을 안 사리는 거예요. 저희 내담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재가 제대로 할까 그랬는데 가서는 너 좀 쉬어라라고 할 정도까지 여기까지 찰 정도로 애가 일사병으로 쓰러질 정도까지 그냥 애들이 몸을 안 사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한결같이 나왔어요. '제가 안하면 누군가 더 해야 되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워낙 일하는 거에 이골이 난 아이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얘네랑 템포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얘네들은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거에 맞춰서 또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주인애: 참여했던 동기가 어쨌든 간에 확실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친구든 굉장히 큰 변화를 느껴서 한국에 와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져서 본인이 찾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조금 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는 느끼지만 그게 차이가 좀 약한 거죠.

정유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부분들이 그 아이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고, 근데 그게 그냥 충격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근데 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끈끈함, 현지 아이들하고의 그런 교류나 이런 부분들, 나라에 대한 문화나 관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나 어떤 걸로 와도 저는 그게 여기서 잘 지내고 잘하면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 좋게 나오면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좀 하면서 느꼈거든요.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인솔했던 경험이 있는 전영원 지도자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던 청소년들이어서 현지 활동과 적응에 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놀라운 적응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데에서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영원: 진짜 2차의 특성화 아이들은 진짜 놀랄 정도였어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프놈펜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물 한 동이로 애들이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먹는 거는 저희가 뭐 계속 해서 먹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울타리 내에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게, 얘네가 이걸 버틸까?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새로운 환경이 딱 되니까 아이들의 적응성은요. 저희의 상상을 넘는 것 같아요. 그 환경과 그게 딱 주어지니까 아이들이 이걸 적응하고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4) 행복의 새로운 의미 발견

해외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대학생 연령대는 직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쁜 시기이다. 소위, 구직을 위하여 학점, 영어인증 점수, 다양한 자격증 등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기에 바쁜 시기이며, 근본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에는 여유 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자원봉사 경험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며, 행복은 소위 경제력과 좋은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현웅: 걔네를 가르치러 갔다는데 저는 두 번 다 대학생이어가지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같은 대학생인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걔네는 너무 순수하고 정말 맑고 정말 별 거 아닌 거에 행복해하고 우리한테 되게 작은 거라도 해주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초콜릿이 있어도 개네 있고 우리 있는데 개네가 와서 자기는 안 먹고 우리 주고 친구들끼리 이런 거 다 하는 거라고 그러고 걔네는 컴퓨터 하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SNS에 중독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 때문에 저도 약간 인생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야 하나? 원래는 제가 경영학과고 부모님도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시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경계선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재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 찾아서 적은 돈 받는 것도 내 행복인가 하는데 어른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단원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게 행복하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 부인솔자로 가면서 행복이 사람마다 값어치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약간 말하자면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약간 그 정도. 진짜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청소년을 인솔했던 지도자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 한 청소년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현지 활동 중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해왔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고 한다.

주인애: (한 참가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저도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할머니랑 살고 있고 본인이 굉장히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친해져서는. 그러면서 해외봉사 마지막 날 이제 평가회를 팀 미팅을 하면서 그 친구와 저 다 같이 듣는데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런 자기의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뭔가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화만 나고 그랬대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웃으면서 다가와주고 그런 걸 보면서 본인

이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은 한국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장학금도 대주신 분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 자아성찰 및 자기반성의 계기

해외자원봉사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청소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남을 돕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성찰적 입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김성애: 물론 해외경험이 일단은 가장 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만나면서 현지인들이나 해외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자체로도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큰 거 같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다른 기관들을 보니까 상당히 더 열악한 곳으로 가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반성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고, 그런 것들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중략) 아이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해외봉사 갔다 오고 나서 다음에도 해외봉사를 가고 싶기는 한데, 한국에서도 그 고아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장지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공부를 많이 안했잖아요. 갔다 온 생각이 많이 흔들렸어요. 몽골에 있을 때도, 중심을 많이 못 잡고, 흔들리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모든 게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략) 뭔가 인생에 대해서 행복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철학을 좀 대학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중략)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구요. 제 중심도 못 잡고 흔들리는데 과연 누군가를 어떤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6) 시야의 확장

해외자원봉사 참가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진로나 사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해 온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사고의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전영원: 여태까지 서초에 있으면서 필리핀 지역에 이제 라보따스, 그러니까 마닐라 지역의 빈민 마닐라 쪽에 붙어 있지만 좀 빈민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캄보디아 아이들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년 갈 때마다 태풍이 한 번씩 휩쓸고 가고 막 쪽방에 뭐 그런 곳에 가서도 서초 여기 제가 유스센터에 근무할 때는 이쪽 지역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갔었어요. 서초나 강남 쪽 상위 1%의 아이들. (웃음)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필리핀에서 거기 의료봉사를 가니까 의료봉사 보조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그 다른 교육봉사나 뭐 이런 걸 같이 진행을 했지만 그때 갔다 와서도 서초 아이들의 변화가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걸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녀온 아이들 중에서 '저는 그냥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인권변호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로 국한되어서 보지를 않고 서초지역 아이들은 인류의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 연수나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아이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와서 그들에 대한 시각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았고요. 광진 쪽에서의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박성준: 그런 거를 딱히 말로써 설명을 못하겠죠. 근데 대략이나마 설명을 한다면 뭔가 시야가 넓어졌다. 뭐를 생각하고 뭐를 행동하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라진 거 같고 오히려 더 거기서 긍정적인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고. (중략) 오히려 여유 같은 것도 훨씬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삶의 치열함보다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오히려 좀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나서는 안타깝죠.

김시연: 처음에는 내가 경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스펙도 쌓고 막 이렇게 갔다면, 되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갔다면, 지금은 스펙과 경험보다는 제 사고의 확장과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좀 큰 거 같고, 가서 제가 얻어오는 게 많으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7) 존재의 의미 느낌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현지에서의 활동이 현지인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체감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나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존감을 느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우수자 소수를 제외하고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팀이나 현지인에게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이다.

강현종: 저는 또 가고 싶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보람을 느꼈던 거 같아요. 물론 힘든데 보람이 컸어요. 되게 다들 얘기하시지만,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내가 필요한 존재라든가 그런 게 좀 있더라구요. 제 하나로 뭔가 바뀌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보람이 됐어요. (중략) 뭔가 성장한 계기가 된 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항상 소수만 되게 그런 감정을 느낄 거 같은데…….

김제현: 저녁에 다 씻고 자주 씻을 수는 없었지만(웃음) 물이 너무 차가워서(웃음) 씻고 딱 누워요. 눕고 하루를 생각해보면 거기 갔을 때 행동하고 한국에서 있을 때 행동하고 되게 달랐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얘들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구나 라는 걸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얘 챙겨주고, 얘 챙겨주고 이러기 바빴거든요. 나도 되게 중요하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를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 사람의 행복함을 느끼는 거를 보면서 나도 행복함을 느끼는구나를 느꼈고, 또 거기 가서 제 역할이 타임 키퍼였어요. 시간 관리하는, 시간 알려주고 중간에 한 번 실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되게 시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질문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준건가?

김제현: 아니요.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시간을 잘 못 지키는데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비행기 타자마자 몽골 시간 딱 맞춰놓고 그래서 했는데 중간에 실수가 있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는 정말 시간을 칼 같이 지키고 시간이 참 중요한 거를 알았어요.

해외자원봉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넘어서서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에 몰두했다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스스로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앞으로 닥치는 일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정경훈: 저는 해외봉사 할 때 여기서 보람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내가 좀 살아 있다는 느낌 내지는 보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람도 있긴 있지만 그게 제가 좀 느낀 거는 열정적으로 뭔가 한 거 있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맨날 말하지만 이거 갔다 와서 이거 갔다 온 순간 엄청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찾아서 삶을 살았으니까 그니까 열정이 생긴 거예요.

(8) 진로에 대한 확신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특히 장기 해외봉사를 체험한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년 동안 특수교육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백 연 단원의 경우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제3세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진로를 설계하였다.

백 연: 제가 그때 경기도에서 (임용) 시험을 봤는데 경기도 경쟁률도 되게 많이 쌨어요. 그때 당시 특수교육도 상당히 안 뽑을 때여서 경쟁률이 막 40대 1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정말 되는 거는 기적, 막 이런 이랬을 때였어요. 너무 안 돼서 그때 안 됐다는 좌절감에 집에서 삼사일동안 막 울고 계속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빠가 제안을 하면서 다녀온 게 KOICA였고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선생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저는 또 나가고 언제든지 내가 특수교

육이라는 걸로 어디서든지 혹시 해외 어디 나와서 저희를 조금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면 저는 항상 언제라도 나갈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3세계 국가에 있는 아이들 장애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을 일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필리핀에서 2년 동안 과학교육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민주영 단원의 경우에도 현지 체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관과 진로방향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된다. 현지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결혼관도 바뀌었으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다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영국 유학으로 이어져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

민주영: 저는 엄청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뭐 딱히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 혼자의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혼자 공부를 하거나 (중략) 그래서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저도 안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은 뭐 하러 해?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고 치면 어쨌든 2년간을 저 혼자 지내는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 그래 다 소용 없겠다 누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필드 쪽에서 하는 일이 있고 사무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어느 게 저한테 맞는지 제가 진짜 어느 쪽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걸 해보면서 이쪽이 나한테 맞는지 알아보자 싶어서 갔는데 제가 그냥 경험해 보기로는 저한테는 오히려 필드 쪽보다는 사무 쪽의 일이 맞겠구나 싶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진로도 ...[확정이 되었어요]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현지에서의 활동 내용 뿐 아니라 팀이나 조직 차원의 일을 해 봄으로써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 해외자원봉사단의 팀원으로서의 경험과 부인솔자로서의 경험을 해 본 뒤 자신의 성향은 위에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팀원으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장래 희망을 새롭게 정하는 계기를 맞기도 한다.

안형수: 해외봉사가 저한테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제가 해야 될 거, 제가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원이 되고 싶고 저는 진짜 제 전공을 살려서 국내에서 임상 경

험을 쌓고 물론 국내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도 많고 그런데 왜 가냐고 물어보면 딱 어떤 답은 없는데 그 해외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꼭 해외로만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도움이 되고…….(중략)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게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가치관을 새겨 준 거 같아요.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관심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대사협 해외자원봉사에 두 차례 참가한 김유민의 경우 여전히 어떤 분야가 자신의 진로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전공과 국제개발 분야를 접목시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김유민: 제가 국문학이랑 사회복지를 같이 하면서 제가 국문학으로서의 길은 광고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익 광고 쪽으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봉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쪽에도 되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의 뭔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개발 쪽으로 솔직히 조금 더 기울기는 했었는데, (중략) 인솔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NGO사무국 국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사실 공부보다는 여기는 실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공부가 뭔가 필요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는 실무가 더 중요하고 계속 발전하고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 많이 고민하는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뉴얼 만들고 싶다 라고 했던 부분도 그냥 부인솔의 역할은 이게 아니고 그냥 해외자원봉사라든지 이 대사협에서의 갖는 매뉴얼을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 같고요. 그러면 뭔가 저에게도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당장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박성준의 경우에도 무언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 보다는 외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동양식이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외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박성준: 한국 대학생들을 보면 한국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보면 다들 튀기를 싫어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순수함처럼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지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헐뜯고 그러니까 좀 한국의 문제가 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오히려 더 해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해외봉사를 갔다 옴으로써 오히려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뭐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저 사람한테 배우고 그 생각을 또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5) 국제개발협력 참가 후 사후 활동 경험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 성찰을 하는 계기를 갖고 귀국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귀국 단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KOICA 장기 해외봉사단의 경우 2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현지에서 활동하고 난 뒤 귀국하면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다. 관련 분야의 대학원 진학시 학비 지원과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귀국한 단원들의 경우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출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지훈: 사후 관리는 거의 없는 거 같구요. 갔다 온 뒤에 관리는 없는 거 같구, 지원들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대학원에 갈 때 70%를 지원을 해줘요. 국제 개발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갔다 와서, 그리고 갔다 온 국가로 갈 시에 지원이 되고, (중략) 대학원 합격을 하면은 대학원 교육계획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학업계획서 이런 것들 제출하면은 1년에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학비 지원을. 계속 국제개발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중략)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갔다 왔을 때 후배 단원들한테 내가 부족했던 점은 이거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네트워크 체계가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귀국 단원들의 경우 향후 파견될 단원들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같은 국가의 같은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파견되는 단원들을 위해 멘토가 된다든지, 사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언어 등을 상세하게 조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강현종: 지금 제가 또 수련하는 도장에서도 되게 우연히 수련하는 사범님이 엘살바도르 세미나를 갔다 왔더라고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한국에? 그렇다 보니까 그 사범님도 사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에 쳐봤자 위험하다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단원들이 거기서 1, 2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갈 때로 사전에 만나서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거 같고,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또 해줄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국내 교육을 할 때도, 4주 중에 제가 갈 당시에는 4주 중에 2번 정도? 선배 단원이라고 하죠? 귀국한. 와서 2시간이었나? 정도 저처럼 경험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강소윤: 친목, 어떤 취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구요. KOICA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직접적인 연계나 어떤 가산점을 주는 거는 전혀 없구요. (중략) 같은 지역이거나, 같은 나라 파견이 되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1:1 멘토링을 시켜 준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을 거 같아요.

귀국 단원들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학교 등에 가서 특강을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모교에 가서 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 단원의 사례에서처럼, 귀국 단원에 대한 인력 풀을 확보하여 향후 학교의 진로교육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인력 기반이 될 수 있다.

백 연: 저 같은 경우 저희 대학교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 년에 한 한두 번씩 그런 선배들이 와서 특강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선배들이 졸업을 했는데 굳이 임용이 아니고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케이스, 특강을 할 만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요번에 제가 거기 나갈 거 같고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도 3월 달 초에 이제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해본 적이 있어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략) 가서 그 때도 가서 많이 알리긴 했죠. KOICA가 어떠어떠한 곳이고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나는 일반봉사단원으로 가게 됐고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한 적도 있어요.

KOICA 봉사단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기 때문에 귀국 직후에 한국사회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해야 하는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강현종: 제가 또 불만 아닌 불만이 그때 생겼던 건데, 다녀온 후로 제가 볼 때 많은 단원들이 힘들어할 거 같아요. 적응하는 데. 근데 KOICA에서는 물어보니까 한국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하나도 없고, 상담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물론 저희는 아니고, 일반 단원들은 돈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적응하는. (중략) 2년이라는 기간을 다 마쳤을 경우에 귀국했을 때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줘요. (중략) 정착금 같은 거죠. 근데 그 외에 다들 힘들어해요 한국에 처음 오면 많이들.

질문자: 어떤 쪽에서 힘든 건가요? 이렇게 힘든 2년을 겪고 한국에 와서 뭔가 느끼는 그게 왜 힘든 거 같아요?

강현종: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중도에 귀국한 사람들은 제외하구요. 2년을 대부분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지냈던 거 같아요. 보람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일단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2년 만에 왔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뭔가 새로 사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순간 딱 바뀐 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죠.

강소윤: KOICA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금도 나오고, 갔다 오면 현지 봉사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KOICA 단원들 제일 고민이 2년이나 공백기가 생겨버려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막해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취업 관련된 센터가 있긴 한데, 그것도 케어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구요. (중략) 어떤 좀 피드백이 좀 늦은 거 같아요. 제가 갔다 와서 저도 상담 같은 거 받아 보려구 이력서도 등록하고,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센터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수도권 사람이면,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이 지방에 있으면, 그쪽에서 따로 연락이라도 주지 않으면, 딱히 알아서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2) 개별 팀 차원의 사후 활동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온 뒤 개별 팀이나 단체 차원에서 후속 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라오스에 자원봉사를 다녀온 팀의 경우 현지의 아동들을 위해 책걸상 바꿔주기 활동을 하였다. 자원봉사팀이 후속 활동으로 사진과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팀 차원의 모금활동 등을 통해 현지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었다.

이성훈: 다른 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사협에서 하는 공모전에 상을 다 휩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1등 하고 사진 2등 해서 저희가 기본 80만원이 모여 있었는데 저희는 현지에서부터 조금 되게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먹는 간식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물병 하나에 그 나라 돈이면 얼만데 그 돈이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씩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장작업을 통해서 엉망이 된 책상을 조그만 애가 그 책상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를 빨리 닦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8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단원 중에 한 명이 그런 국제개발협력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학교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해서 수익 사업을 했고 대사협 직원 분들도 도와주시고 단원들 자체 모금활동도 해서 160만원으로 불려서 저희가 책걸상 60세트를 1차적으로 바꿔주었거든요. 그런데 60세트라고 해봤자 그 학교의 삼분의 일밖에 안되고요. 그래서 2차로 저희가 조금 있으면 1주년입니다 저희가 처음 파견, 라오스가 처음 파견이었거든요. 26기에서 저희는 이제 작은 거지만 이제 경매 활동을 하려고 자기의 애장품이나 이런 거를 팀 모임 때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서로 소개하면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기본으로 해서 2차 책걸상 사업을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거든요.

역시 개별 팀 차원에서 현지의 아동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다녀온 팀의 경우도 현지의 KOICA 단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모금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원을 통해 단기 이벤트성 행사라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안형수: 저도 26기 방글라데시 팀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글라데시 저희 현지 아이들이 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KOICA 단원님께서 KOICA 단원님께 직접 송금을 하고 KOICA 단원님께서

지출하시면은 저희에게 사용 내역서를 이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그럼 뒤에서 저희는 한번 끝이 아닌 단기가 정말 단기지만은 끝이 아닌 정말 계속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원봉사 이후에 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계가 있는 경우 후속활동으로 이어지기에 좀 더 용이하다. 필리핀 현지에서 북카페 만들기 활동을 하던 팀은 한국에 돌아와서 동화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배지헌: 갔다 와서 4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타 마을이나 누에베시아 YMCA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물질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안 읽는 영어책, 동화책 같은 거를 보내기 운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좀…….(중략) 다 하지는 못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학습모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좀 모아서 모아주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됐으면 거의 100명 정도 됐는데, 한 번 가자. 리마인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한편, 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를 인솔하고 다녀온 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을 자체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로 연계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 이후 봉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러한 관심이 국내 봉사에 정기적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인애: 다녀와서 국내에서 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협회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아카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후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고 있거든요. (중략) 해외봉사 갔다 와서 선생님들이 계속 봉사활동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뭔가 저 봉사활동 시켜주세요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시아라는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Association of Korea and Asia의 약자에요. (중략)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후암동 '가브리엘의 집' 이라는 곳에 거기가 지적장애우 생활시설이에요. 거기 가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달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꾸준히 활동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3) 사후 활동에 대한 아쉬움

해외자원봉사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 활동이 개별 팀이나 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팀원 간의 의기투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체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활동에 대한 개인적 의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 기관이나 중앙에서 연례행사나 공식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김시연: 저는 이제 더 사후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그런 간담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로이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사후 활동에서 그리고 라오스팀처럼 이렇게 팀원들의 합의가 맞아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취업하신 분도 있고 지방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걸 또 누가 생각을 해내서 이거 하자 으샤으샤 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중앙적인 봉사기관 이쪽에서 국내봉사 활동에 대한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자발적으로 다른 팀에서든 같은 팀에서든 함께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또 공식행사를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거 같다는 조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주인애: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꿈사(꿈과 사람을 찾아서 봉사단)를 다녀온 전체 친구들 데이터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여가부라고 하면 파워가 센 기관이잖아요.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주관 단체보다는 파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학생들한테 여가부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쉽게 빼주시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가부의 이름을 걸고 활동진흥원에서 주최를 해서 그런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도 갖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인 거 같아요. 김장 봉사활동이라든지 한 번씩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청소년을 인솔하고 온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과

함께 공식활동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나 민간단체의 경우 많지 않은 인력과 예산으로 부가적인 활동을 기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현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총괄, 주관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라는 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따로 사후 활동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안내를 해주셨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봉사단 자체 내에서 저희 함께 했던 지도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눈 거고 그 친구들도 계속해서 '선생님, 저희 언제 또 모이나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단체 카톡방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네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회가, 여건이 된다면 이 친구들 내에서 그냥 다시 국내 활동으로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역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후 활동 모임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전영원: 작년에 그렇게 일대일로 매칭이 되었던 친구를 올해에 가서 또 보겠다고 2학년이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내는 것도 있고 아이들 사후에는 저희는 그런 게 있었어요. 1차적으로는 작년 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그쪽 아이들하고 결연, 그러니까 작년에 포이펫 태국 국경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물품, 자기 용돈을 모으고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 과자, 진짜 없거든요. 오히려 배송비가 비싼데 과자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기숙생들 개수만큼 아이들이 후원 물품을 보내주고 하거나 아니면 그 후로도 이제 조금씩이나마 개별적 후원하는 이번에도 원광탁아소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온 아이들 중 몇 명은 그 원광탁아소에 지속적으로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후원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사후 관리 되게 중요하죠. 모임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웃음)

6) 해외자원봉사 참여 관련 향후 제안

(1) 참가 기회 확대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녀온 뒤에 느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등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며 실제로 다시 가는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좀 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 이기영: 근데 저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가보면 그게 좋은걸 아니까 사실 역할은 달랐지만 두 번씩 간 거잖아요. 근데 전 그 생각을 했어요. 가서 제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거면 물론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차라리 나 말고 안 가봤던 다른 사람 한 명이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던 거지만 저는 약간 단기봉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그냥 어디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꼭 한 명이 두 세 번 갈, 가야만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 번 갔던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또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아까 3TOP, 스탬프 찍듯이 저 같이 갔던 단원 중에 실제로 일곱 번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특히 스스로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 정경훈: 다 관심은, 해야지, 해보겠다, 한 번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제 만난 친구들도 난 해외봉사 한 번도 안 가봤구나 이런 인식은 있어요. 근데 막상 실천은 못하는 거죠. 현재 자기 상황이나 해외봉사 같은 거는 봉사학점이나 봉사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학점을 채우려면 학교에 미리 신청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도 다 이것저것 하느라 다 바쁘잖아요.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대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경쟁률이 세서 지원을 하더라도 붙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 시기를 놓치면 더욱 가기가 힘들어진다.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도 더욱 확산되어서 모르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은설: 경쟁률이 너무 세서……. 그리고 방학마다밖에 못 가는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방학이 1학년 1학기 방학 다르고 4학년 1학기 방학이 달라가지고 현실적인 이유로 못가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도 이게 방학이 대학생이 여덟 번이긴 한데 이제 적기가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라던가 그런 쪽의 학생들이면 모르겠지만 매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이게 여덟 번 중에 1학년 1학기랑 1학년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1학년과 4학년 취직한다면 실질적으로 남은 게 네 번인데 그 경쟁률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몰라서 못 가는 사람,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로 못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청소년을 위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향후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접목시켜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배지헌: 사실 한 학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쪽, 어디야? 핀란드 뭐 북유럽의 그런 얘기들인데 그들은 아예 그거를 놓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여행을 떠나보낼 수 있고 어떤 자기 동네의 목수에게 가서 목수 일을 배우기도 하고 뭐 어디 자원봉사 활동을 떠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구색 맞추기처럼 되는 거 같아서 또 중1이기 때문에 과연 그 아이들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좀 있고요. 일단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자유학기제에서 오전은 수업하고, 오후만 자유학기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잘 갈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연계해서 가도 전 나쁘지 않겠다. (중략) 또 뭐 아이들 체험활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수학여행이 요즘 외국 가는 데도 많잖아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이소현의 경우 대부분의 해외자원봉사 모집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참가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일반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 봉사 경험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해외자원봉사가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참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거나 입시 준비에 부담이 되는 일정 때문에 참가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봉사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선뜻 지원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다.

이소현: 금전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많아야 해요. (중략) 제가 처음 해외봉사를 찾아볼 때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 모집을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중략) 청소년들은 뽑는 게 거의 없구나.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하고 그게 또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가격도 문제가 있어요. 학교로 날아오는 공문이 몇 개 있어요. 해외봉사 제가 하고 싶어서 봤더니 필리핀이 140만원인 거예요. (중략) 국제교류라고 하면 꼭 뭔가 공부 잘하고 외교관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는 아이들만 합격할 거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자: 지금 문턱이 높은 걸로 인식이 되어있구나.

이소현: 네. 실제로 높지 않은데 딱 인식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2) 청소년을 위한 인식 교육 확산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처음에 국제개발협력이나 ODA같은 용어는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 저개발국가의 삶이나 사회에 대한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김시연: 그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외에 대한 그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 지금 삶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약간 사진 전시를 해놓고 약간 국제개발협력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거고 쉬운 거다라는 거를 청소년들한테 약간 사진이나 뭐 그림, 뭐 약간 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처음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사협,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뭐지? 그랬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중략) ODA에 대한 이해하는 강의 시간이 있는데 막 뭔가 듣기 싫고, 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사진자료 이런걸 보여주면 아 저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국제개발협력이구나 이런 거를...(중략)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해외봉사도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이다 이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봉사가 단지 스펙, 봉사 단지 두 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이다 이런 거를 약간 알 수 있게, 교육이 아니라 다느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오면서 정치나 사회문화 분야에 관심이 있던 청소년도 대학에 와서도 ODA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대사협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도 왜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기영: ODA 교육 자체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나 사회문화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도 그쪽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거의 없고 들은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3) 홍보 확대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를 세심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이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된다.

선현웅: 홍보가 엄청 미흡한 거 같아요. 저처럼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홍보 포스터가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그 포스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단기봉사 그거 홍보하는 거를 본적도 없고 대사협 홈페이지도 저도 형처럼 붙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 봤고……. 홍보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찾아봐야지…….

김은지: 저도 제가 처음에 이거 지원하게 됐을 때, 수련관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때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찾아 들어가시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대문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공지가 없어서 다른 사이트 들어가고 들어가서 일단 너무 대중적이지도 않은 거 같고 아는 사람도 찾기도 힘들고 이런 거에 너무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학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접하려면 일단 선생님들이 알아서 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스스로의 관심과 함께 청소년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 제고도 요구된다. 특히 해외자원봉사 관련 안내문 등이 학교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들의 관심도나 반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확산 및 인식 증진 방안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인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접하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실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국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해봄으로써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니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이번에 전액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친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좀 역량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4) 활동 내용 개선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현지에 가서 교육 봉사나 문화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봉사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연령대의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익숙지 않은 현지 언어로 현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언어를 단기간에 의미도 모르는 채 외운 뒤 가르치는 것 보다는 현지의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일방적인 공연보다는 상호 문화 체험을 하며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 김시연: 네. 발음을 적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 '즈드라쓰브이쩨' 이렇게 외우고, 발음도 솔직히 못 알아들어요. 가면은. 근데 또 그걸 다 외워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낀 게 너무 교육봉사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하면 현지 아이들과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한국어도 알려주고 싶고 미술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에 집중을 해서 만약에 현지에 부족한 과학교육을 해준다던지 예를 들면, 현지어로 체육활동을 못해서 체육활동을 같이 프로그램으로 함께 놀면서 알려준다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교육을 한다 우리가 우리보다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배워오는 게 솔직히 더 많을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준비를 해가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는 완벽해야 해 완벽에 가까워야 해라는 걸 강조하니까 (중략) 함께 뭔가를 하는 분위기 그런 걸 되게 많이 원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고.

특히 2년 동안 장기 봉사를 하는 경우 단기 해외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강소윤의 경우 KOICA 장기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단기 봉사단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단기 체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들이 만난 현지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로 연계를 갖는 방식 등 장기적으로 봉사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 강소윤: 일주일 와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고, 모르는데 그런 게 너무 상식적으로 해외를 찍고 오는 거다 보니까 단원들이 가끔씩 불려나가서 그런 학생들 인솔해 주고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생들 한테는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1타 2피인 거 같은데, 해외학생들을 장학생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

그 학생들을 청소년이 만나보면 오랫동안 만날 수 있고, 그 장학생을 한두 달, 반년이라도 데려와서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중략) 이벤트성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대단한 봉사심을 불태우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실제로 봉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생활처럼 약간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한 개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단발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5) 효율적인 사전 교육 필요

청소년들을 인솔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해외자원봉사를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20명 내외로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팀원들간의 소통이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현지에서의 활동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상의 제약과 청소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다는 점, 바쁜 일정 등 다양한 여건 상 합숙 훈련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현선: 그게 조금 더 가기 전에 아이들과의 교류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소통을 활성화 시켜줘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아이들이 어쨌든 그들과 함께 지내며 먹고 자고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걔네들이 서로 이해를 할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중략) 아니 사전 교육 때 이 친구들 내에서도 조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사전교육에서 파견단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와 더불어 해외자원봉사를 가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가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도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가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우월의식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애: 이게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너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라고 그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좀 가서 내가 많이 도와준다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가는 경우

가 많아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그거를 깨주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가서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아이들이 어색함도 좀 깨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도출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해질 수 있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주로 하고요.

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교육과 함께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유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알려져 있는 현지 문화에 대한 소개나 관습 등은 잘못된 것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영원: 기본 틀은 그거인 거 같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 라포 형성하는 거 위주, 그 다음에 안전 교육하고 성 교육 필수로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의 것들은 담당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캄보디아는 이런 나라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킬링필드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그거를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다 조사를 하게끔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인터넷 뒤져서 역사, 문화, 생활방식, 뭐 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6) 해외자원봉사의 근본 취지 교육

해외자원봉사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인식 교육을 총괄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각 주관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해외자원봉사를 가고 있지만, 단체나 지도자의 방향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근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 사이에 떠오르는 이미지인 자원봉사가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떠한 고민과 태도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가이드와 매뉴얼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배지헌: 제가 물어봤죠. '너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뭐냐?' '우리가 학교 지어주고 이런 거 집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러니까 TV가 주는 이게 또 많은 거예요. (중략) 모자 써서 그림도 그리고 학급을 짓고……. 그래서 내가 '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니?' 'TV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KOICA의 꿈'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해. 나는 그런 거 별로 잘 몰라.' 그러면 너네가 자원봉사를 왔다고 치자. 너희가 자원봉사를 하려면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뭐에 행복한지, 또 어떤 삶을 사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그래야 너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거를 할 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정말 너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하다.

주인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주관부처에 그런 목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전적으로 주관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해외봉사활동에서 받는 의미, 이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주관 단체의 인솔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책임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강의 이런 것들이 저희는 국제협력 쪽 전문가지 청소년 분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중략) 뭔가 왜 봉사활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터 놓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왜 가야 하는지 너희들이 목표의식을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좀 정례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출발점은 다른 문화나 사회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나 세계시민 교육 등 거창한 화두를 던지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 해외를 체험하고 그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유미: 저는 궁극적인 게 너무 거창하다고 늘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쓰면서 늘 거창하잖아요? 글로벌, 세계시민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정말 거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이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거기에 가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느껴봤으면 하는 게 제일 크고요. 저는 그게 가장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라오스나 몽골 절대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하면서 자기소개서 쓰고 프로그램 만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거기 가서 활동에 푹 빠졌다 오면 지나가다 라오스 얘기를 보면 남 얘기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관심의 첫 단계라는 거죠. 저는 ODA 과정이나 이런 부분의 모든 첫 단계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좀 참여 제안이나 아니면 이게 좀 많이 확대가 되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감정들이나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죠.

(7)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대부분 2주 내외의 단기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단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지 지원의 성과는 크지 않다. 일회성 이벤트성 방문을 통해 잠시 현지에서 노력봉사와 문화교류를 하고 난 뒤 지속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의 경우 일회성 접촉을 통해 현지를 방문하고,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더 이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자원봉사 대상 국가들이 국내의 단체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MOU 등을 체결하고 지속성의 기반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서도훈: 일회성 사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지금 딱 예를 들면 캄보디아 푸샷 지역이 저희는 10년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해요. 한 지역에 적어도 10년은 지원을 해줘야지 그 자체 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저희가 빠질 때 그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기반이 된다. 그래서 10년은 지원을 하자고 해서 10년을 어느 나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외개발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략) 어떤 단체에서 현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 해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교회든지 고아원이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한 번 하고 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일반 단체들은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3. 요약 및 소결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직접 참가했던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가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층면담을 통해 해외자원봉사 참가 동기, 참가 이전 사전 교육, 현지에서의 경험, 참가 후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향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안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개별 참가자의 지원 및 참가 동기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자원봉사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주로 우연한 동기에서 참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참가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하게 모집 공고를 발견하게 되고 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 먼저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참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연히 참가하는 경우 보다는 간접적으로 참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고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해외 협력이나 해외 경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키워왔던 참가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찾아보게 된다. 한편, 다양한 활동 경험이 상급학교 입시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위 '스펙'을 염두에 두고 참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참가자의 사전교육 과정에 대한 경험 및 의미 파악

사전교육 참가 경험을 살펴보면 개별 의미 부여와 현지에서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또 파견지역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교육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꼽고 있는 부분은 현지 언어교육이었다. 현지어는 파견되어 활동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봉사단의 경우 국내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 기간과 파견 후 현지에서 두 달 동안 언어교육을 받았던 경험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현지어를 사전에 교육받는 경우에도 현지의 각 지역에 따라 주요 언어와 지역 언어가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해외자원봉사 파견단이 현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파견 이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인 소양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 팀별로 이루어지는 현지 활동에 대한 역할과 역할 수행을 위한 조별 토의 등 사전교육 일정이 진행되지만, 아직 대학생들인 이들이 구체적인 현지 활동 내용을 기획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집되는 봉사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제기되었다.

3) 국제개발협력 참여과정

(1) KOICA 단원들의 사례

2년 내외의 비교적 장기간 현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KOICA 일반봉사단원의 경우 현지 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편이다.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은 사전 교육과정에서 배운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자신의 활동을 새롭게 꾸려가야 하며, 기본적인 활동 수행에 더하여 진행방식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사업을 기획하여 현지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KOICA 자원봉사단의 경우 현지에서 2년여의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현지 적응기간과 파견 분야, 개인 역량과 현지 상황 등을 조합하여 응용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후기청소년 연령대 파견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경험이나 직업 경력, 숙련된 기술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지와 단편적인 정보 등을 활용하여 현지에서의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대사협 자원봉사단의 사례

단기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가장 의미 있던 활동으로 들고 있는 부분은 문화교류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음악과 미술, 만들기 활동 등이었다. 한편, 해외자원봉사를 떠나기 전에 가졌던 기대나 열의가 해외봉사 초반에 열악한 현지 생활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다 현지에 파견된 참가자들의

경우 열악한 현지 학교생활과 현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더 활동을 심화시키고 싶지만 현지어가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이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팀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며, 팀원들의 경우 현지에서의 경험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팀원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3)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의 사례

대부분 해외봉사 경험이 처음인 청소년들은 현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몸으로 부딪히는 단순한 놀이를 하면서도 매우 즐거워하고, 불편하고 열악한 편의 시설에도 불평하지 않고 적응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서 태도의 변화를 보게 된다. 해외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과정에서 현지인들과의 교류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제안을 한다. 해외 체험을 거의 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외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보다는 문화와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양적 기회 확대 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단순히 저개발국을 방문하여 노력봉사 등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봉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 탐색, 봉사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변화 가능성 모색 등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4) 개인 참가자의 소회, 깨달음, 의미 부여

해외자원봉사를 다녀온 청소년들의 경우 해외봉사 참가 이전에는 어려운 사회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배우고 온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며, 행복은 소위 경제력과 좋은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젖어있던 습관이나 편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사회보다 경제나 산업화에 뒤쳐져 있는 국가에 대하여 다소 비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타 사회를 접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현지에서의 활동이 현지인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체감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나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존감을 느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우수자 소수를 제외하고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팀이나 현지인에게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특히 장기 해외봉사를 체험한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현지에서의 활동 내용 뿐 아니라 팀이나 조직 차원의 일을 해 봄으로써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

5) 국제개발협력 참가 후 사후 활동 경험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 성찰을 하는 계기를 갖고 귀국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 참가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현지 경험이 사후에 유사한 지역에 파견되는 단원들을 위하여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었다. 같은 국가의 같은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파견되는 단원들을 위해 멘토가 된다든지, 사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언어 등을 상세하게 조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KOICA 봉사단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하기 때문에 귀국 직후에 한국사회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해야 하는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활동이 개별 팀이나 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팀원 간의 의기투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체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활동에 대한 개인적 의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 기관이나 중앙에서 연례행사나 공식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 해외자원봉사 참여 관련 향후 제안

첫째, 참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녀온 뒤에 느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등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며 실제로 다시 가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참가 기회 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인식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처음에 국제개발협력이나 ODA같은 용어는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 저개발국가의 삶이나 사회에 대한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셋째, 홍보 확대를 제안한다. 참가자들의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를 세심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이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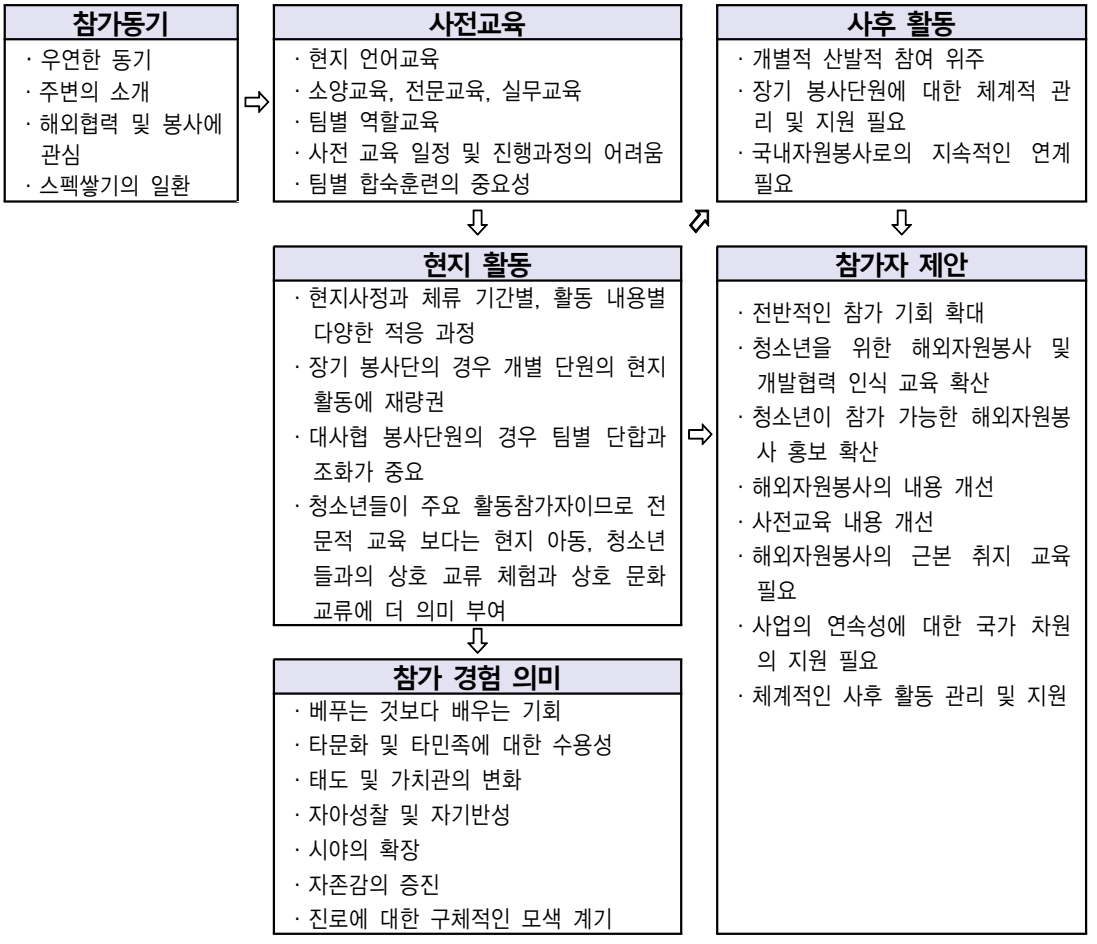
넷째, 해외자원봉사 내용의 개선이다. 청소년들은 익숙하지 않은 현지 언어로 현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현지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사전 교육을 제안한다. 사전교육에서 파견단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와 더불어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기 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교육과 함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해외자원봉사의 근본 취지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다. 해외자원봉사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인식 교육을 총괄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각 주관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해외자원봉사를 가고 있지만, 단체나 지도자의 방향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근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대부분 2주 내외의 단기 활동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단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지 지원의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자원봉사 대상 국가들이 국내의 단체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MOU 등을 체결하고 지속성의 기반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상술한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자들의 경험과 참가자들이 제안한 사항을 정리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 경험과 참가자 제안

7) 소결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 참가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외자원봉사 참가청소년들의 경우 참가 동기는 비교적 다양하였고, 사전교육 참가와 현지 활동 경험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개인적 의미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자원봉사 참가를 통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봉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단순히 '베푸는 것' 이 아닌 오히려 배우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으며, 타문화 및 타 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바쁘고 경쟁적인 모습에 대해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된다. 해외 현지 주민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며,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현지 아동과 청소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또한, 해외봉사활동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성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해외자원봉사 체험은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라고 지적되며, 특히 낯선 세계에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전정신을 갖게 만든다(이창호・김연우, 2012; 이태주, 2011). 그리고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기도 하며, 지구촌 사회를 위한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황기우, 2010).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정책 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방향성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다. 20여년이 넘게 이어져온 방문단 파견 등의 방식을 넘어서서 사업의 외연 확장 및 방향성 전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시점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해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개발협력과 연계한 해외봉사활동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윤철경, 2011).

또한 현지에서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의 경험을 통해서 현지 활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개도의 측면보다는 현지 아동과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체험활동, 문화교류 등 주로 소통과 상호작용에서 흥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가자가 전문성을 보유한 성인이 아니라,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현지에서 실행하는 봉사는 일방적인 베풂이 아닌,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 현지인과의 소통과 다양한 상호활동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요소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의 지원

분야 중 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이 수립되지 않았고, 기초교육 분야의 개발교육 전문가가 희소하다는 지적(유성상, 2010)과 함께 청소년개발 분야에서 콘텐츠 구성 및 인력 지원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긍정적 변화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사고가 협소한 자신 주변의 일상에서 벗어나 보다 글로벌한 시야와 사고로 확장되고, 참가했던 해외 현지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개발 분야의 기여가 더욱 늘어나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제 V 장

결 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제 V 장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개과정 및 관련 제도와 법령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 및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례는 우리나라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 중, 영국의 해외자원봉사단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일부 청소년 집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자원봉사단을 선발할 때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 학력 집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일본의 해외자원봉사단 사례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주제, 봉사단의 파견기간 및 연령 집단의 다양성을, 호주의 사례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사후활동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사례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사전교육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외자원봉사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교육의 내실화, 사후관리 및 교육의 체계화, 해외자원봉사 현지 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할 때 상술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령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은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직간접적인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에는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제에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청소년 인식 및 참가 실태 분석 결과, 응답 청소년들 중 약 60%가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약 90% 정도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참여 기회 부족과 참여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참여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으나, 절대 다수가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은 학교 수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정부의 대외원조, 새천년개발목표 및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자국 빈곤층과 타국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한 책임을 비교적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 문제 중 질병, 빈곤, 보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산 지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활동 직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특히 현지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현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자신의 존재 의미나 자존감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사후 유사 지역에 파견되는 단원들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했고, KOICA 봉사단원의 경우에는 귀국 직후 한국사회 재적응이나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가 기회 확대, 청소년을 위한 인식 교육 확산, 홍보 확대, 해외자원봉사 내용의 개선, 효율적인 사전 교육, 해외자원봉사의 근본 취지에 대한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법제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실적인 참여 방안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정책과제들은 Ⅱ장의 선행연구 분석 내용, Ⅲ장의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식 및 참가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Ⅳ장의 국제개발협력 참가 사례 분석,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학계, 정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4가지 정책과제에는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3)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각 정책과제에는 각각 2~3가지 세부 추진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Ⅴ-1>과 같으며, 각 정책과제들의 추진일정은 <표 Ⅴ-2>에 제시하였다.

표 Ⅴ-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내용

정책과제	세부 추진내용
Ⅰ.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담조직 마련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성
	3. 관련 법제 개선
Ⅱ.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반영
	3.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Ⅲ.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1.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2. KOICA ODA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3. 여성가족부 고유 청소년 ODA 사업 개발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Ⅳ.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2. 청소년지도자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표 Ⅴ-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정책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2015	2016	2017	
Ⅰ.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담조직 마련	■			여성가족부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성		■	■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3. 관련 법제 개선	■			법무부
Ⅱ.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		■	■	교육부, 여성가족부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국제개발협력 내용 반영	■	■	■	여성가족부
3.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	■	■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Ⅲ.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1.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	■	■	여성가족부
2. KOICA ODA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	■	■	여성가족부, 외교부
3. 여성가족부 고유 청소년 ODA 사업 개발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	■	여성가족부
Ⅳ.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	■	■	여성가족부, 외교부
2. 청소년지도자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	■	여성가족부, 외교부

Ⅰ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담조직 마련

(1) 제안 배경

청소년 정책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국제교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나 국제행사 개최 지원,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그런데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가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은 ODA(공적개발원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진국-개발도상국간, 개발도상국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개발협력 분야도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청소년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논의와 관심은 대체로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의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최근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추진 방안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의 국제교류 업무는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내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담당관' 역시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해당 조직이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에 특화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청소년활동진흥과 또는 국제협력담당관 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거 및 필요성과 국제개발협력 전담인력이 수립해야 할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거와 필요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전담인력 배치	내용	
청소년활동 진흥과 또는 국제협력담당관 내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담인력 배치	근거와 필요성	• 여성가족부의 미래 아젠다 전략 수립을 통한 부처의 경쟁력 및 차별성 제고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실현 •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 연계 •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에 기여
	중장기 발전 계획	•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총괄(비전, 목표, 예산 수립 등) • ODA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발 – 여성가족부 기존 프로그램 확장 개선 – 외교부 및 교육부와의 ODA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 아젠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소년 ODA 사업 발굴 • 부처간,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활동 평가 사업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총괄(비전, 목표, 활동 내용과 범주, 예산 등 수립), 2) ODA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발, 3) 부처간,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활동 평가 사업 등에 관한 업무가 구체화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중,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ODA 사업을 위한 자체적인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봉사활동을 확장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ODA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외자원봉사, 국제교류 사업을 정비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방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축

(1) 제안 배경

주지하다시피,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부처간의 협업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권장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가 구체적인 사업안을 수립할 경우, 기존 ODA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나 교육부와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교류하고, 전문인력 및 자료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대표적인 활동인 대한민국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사업에 대한 개선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의 활동들이 중고교 및 대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참여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공동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참여 인력 관리에는 참여자의 안전, 국제개발협력 국가의 확대 등의 외교문제를 포함하는가 하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교육하고 사후 관리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 정부 부처간, 정부와 민간기구간 공동으로 협의할 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방안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협의체에는 외교부의 KOICA,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 민간단체(예컨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간, 여성가족부 내 해당 과와 담당관, 민간기구와 정부부처 간에 협의체가 독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관건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과 콘텐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교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관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Ⅴ-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협의체

①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정비하는 한편 필요하지만 미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교부의 KOICA ODA 교육원에서 개발된 자료들, UNESCO 및 교육부에서 기 개발된 교재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민간단체 및 기구연합 차원에서도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단체들에게는 정부 부처별로 기 개발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분야 콘텐츠를 매뉴얼화하여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국제개발협력 참여인력 관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지도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들간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안전 문제나 국제개발협력 국가의 확대 등의 외교문제를 외교부가 총괄할 경우,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사전교육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자 대상 연수 및 재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등 업무 분담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참여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자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인력들을 현장전문가나 청소년지도자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참여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예산 협력

본 연구의 <표 Ⅱ-31>과 ODA Watch 뉴스레터 77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 ODA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 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등을 제외할 경우, 소규모의 예산을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집행하고 있다.[52] 이러한 예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 통합 및 사업 집행의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ODA 관련 홍보, 평가 및 연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처간, 부처-민간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52) ODA Watch 뉴스레터(2013). http://www.odawatch.net/32377 2014년 6월 11일 인출.

3) 관련 법제 개선*

(1) 제안 배경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령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다. 그런데 이들 법령에는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이 청소년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정신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과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작업 및 관련 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아닌 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조정, 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안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참가하는 해외자원봉사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영역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2항의 목표에 호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아동 · 청소년의 교육 및 이해 증진"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자체의 아동 ·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위탁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에 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위탁하는 아동 · 청소년 대상 국제협력활동 및 국제협력 교육 · 이해 증진 사업"을

* 이 절은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집필하였음.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제안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제2항의 목표에 호를 신설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 · 아동 · 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 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아동 · 청소년의 교육 및 이해 증진 6. (현행과 같음)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 · 자금 및 시설의 지원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 · 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현행과 같음)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 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3. (현행과 같음) 4. 국가 및 지자체가 위탁하는 아동 · 청소년 대상 국제협력활동 및 국제협력 교육 · 이해 증진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 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둘째, 청소년분야에서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에 비해 이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시킬 전문인력이 매우 적은 실정이며, 실제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활동이 시설 건립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였던 반면, 이제는 시설 건립을 넘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활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을 진흥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청소년정책 콘텐츠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조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신설〉	제54조의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교육분야와 연계한 청소년개발 분야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KOICA 해외봉사단의 현지 수행 업무는 청소년개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이는 국제개발협력 지원 분야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 수립에 청소년정책 영역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 또는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해외봉사단의 사전 교육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기존의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고,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교육분야와 연계한 청소년개발 분야 연계 및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추가로 앞에서 제안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2항의 목표에 호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아동 · 청소년의 교육 및 이해 증진"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에 호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위탁하는 아동 · 청소년 대상 국제협력활동 및 국제협력 교육 · 이해 증진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개발 등의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봉사단원을 모집 및 선발하는 과정에서 재산 · 소득과 지역, 학업성취도, 인종, 성별 등 사회 전체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봉사단인 ICS의 봉사단원을 모집, 선발하는 과정에서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소득 기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지역, 연령, 인종, 성별, 학력간 차별 금지 등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봉사단원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봉사단 선발 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경제적 여건 등이 열악한 봉사단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4조(기본원칙) 제1항에 호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 참여자의 계층 · 지역 · 성별 · 연령 · 인종 등 다양성 존중"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 연령, 지역 배경 등을 지닌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제4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국제개발협력 참여자의 계층 · 지역 · 성별 · 연령 · 인종 등 다양성 존중
② 국가 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II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1)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

(1) 제안 배경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식 및 참가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80% 이상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참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의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상술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 정규 교과에는 이미 많은 교과들이 편성되어 있어 정규 교과 과목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및 세계사 교과에서 국제이해교육 및 개발교육을 추가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방안

학교 교육과정에 국제개발협력 내용을 반영함에 있어 전체적인 추진 방향은 글로벌 사회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상호 이해, 공생의 가치가 중요함을 전제로 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학교급, 연령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활동을 차별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별 국제개발협력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4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을 위한 학교급별 교육내용

대상	적용 방법	교육 내용
초등학생 (고학년)	사회/도덕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 국제협력이해 기초과정 실시 (인권, 평화, 정의, 평등, 상호이해 교육 등)
		– 해외자원봉사 등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 유도
		– 국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활동 아이디어 개발 및 실천
중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유학기제	– 국제개발협력 기본과정 실시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간접적인 체험기회 부여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제개발협력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고등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집중과정	– 국제개발협력 심화과정 실시 (해외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 문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 해외자원봉사 참여 지원(참여 기회 확대, 비용 지원 등)
		– 진로와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 기회 제공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	교양강좌 개설 또는 비교과 활동 인정	– 국제개발협력(참여 준비과정) 관련 교양강좌 개설 지원
		– 해외자원봉사 활동 학점 부여 및 교과목 지정 · 단기해외자원봉사 활동: 학점이수교과 지정 · 중기파견프로그램: 인턴십 과정으로 인정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운영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 평화, 상호이해, 관용, 정의, 평등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과정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울 수 있는 해외자원봉사 사례나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과정을 제공하되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자원봉사를 위해 해외에 직접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내에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동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는 국제개발협력 심화과정을 제공하면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주로 학습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해 왔다면, 고등학교에서는 해외자원봉사나 국제교류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그들의 진로준비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 또는 개발교육 관련 교양강좌를 개설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활동 참여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지만, 학기 중에 개별적으로 이러한 활동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한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제도적 폐단과 허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운 후기청소년들에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국제개발협력 내용 반영

(1) 제안 배경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의 진흥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청소년활동 시설을 활용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해외연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청소년단체나 청소년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청소년활동 시설에서도 국제개발협력 내용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추진 방안

2014년 현재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 역시 참여, 활동, 보호 사업으로 구분된다.[53] 여기에,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표 Ⅴ-5>와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선정 프로그램
활동 (84개)	문화예술	20개
	진로	15개
	가족	9개
	봉사	7개
	인성함양	7개
	환경	4개
	언어순화	7개
	과학	2개
	최우수프로그램	6개
참여 (70개)	지역사회개발 개선	25개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23개
	청소년 친화적 환경 만들기	12개
	청소년 권익 개선	10개
보호 (8개)	유해매체감시	2개
	인터넷 중독 예방	3개
	건전매체환경조성	3개
합계		162개

표 Ⅴ-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내용 발굴 방안

주관	내용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ODA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콘텐츠 경진대회 실시 • 국내 적용가능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및 발굴 • 청소년단체 중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단체 지원 •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대상별, 내용별 프로그램 매뉴얼화 작업 후 보급

53) 여성가족부(2014). http://ycon.mogef.go.kr/hs/intro/intro/now.do 2014년 11월 10일 인출

3)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1) 제안 배경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는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본 연구의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식 및 참가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60%는 정부 파견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약 4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80%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이해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기본정신 및 목표를 홍보 활동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추진 방안

권율・이주영・유애라(2014)에 따르면, 새천년개발목표(MDGs), 정부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여부 등 국제적 개발이슈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 역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인식은 일반 성인들의 그것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하나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역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인식 및 이해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참가자 개인의 스펙관리나 자원봉사 실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권율・이주영・유애라(2014)는 대외원조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단순 홍보를 넘어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세계시민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감을 인식할 수 있는 개발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 외에,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제작과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및 국제개발협력 참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자원봉사 및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개발도상국을 단순히 지원하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들과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파트너십 활동,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Ⅲ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1)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1) 제안 배경

현행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안목 및 글로벌 마인드와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성장과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활동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가치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 부족과 참여 기회 제한으로 일부 청소년들만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대상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의 성격을 극복하고 ODA 및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외자원봉사 사업 과정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의 틀에서 해외자원봉사 사업 과정을 재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V-6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사업 개선 방안

대상	내용
선발 단원의 다양성 제고	– 현행 해외자원봉사단의 계층, 성별, 지역 등의 불균형 해소
	– 전기청소년(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해외자원봉사 기회 확대
사전교육에서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반영	– 빈곤, 평등,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 평화 등 개발협력의 기본정신 강조
	– 국제개발협력 정신을 강조하는 매뉴얼 및 교재 개발 보급
	– 협력대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을 위한 봉사로의 방향 전환 강조
국제개발협력 정신에 입각한 해외자원봉사 사업 다양화	– 내용의 다양화(수원국 청소년의 역량, 참여 및 권리, 복지, 문화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 기간의 다양화(단기, 중기, 장기 자원봉사)
	– 대상의 다양화(수원국의 유아, 전기청소년(초중등), 후기청소년 등을 위한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자원봉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반 해외자원봉사 홍보 및 정보제공
	– 해외자원봉사 참여 청소년 사후관리 및 지원
	– 해외자원봉사 참여자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추후 활동으로의 연계

① 선발 단원의 다양성 제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해외자원봉사의 참여 기회가 일부 청소년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참여 경비의 제약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계층, 성별,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여 해외자원봉사 단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대상 연령 측면에서 전기청소년의 경우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기업 및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는 해외자원봉사 기회가 많은 반면, 전기청소년의 경우 대학 입시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해외자원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행 전기청소년 대상 해외자원봉사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해외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중 첫 번째로 높은 응답이 '저소득층 참여경비보조' 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해외자원봉사 활동이나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비 보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봉사 활동 및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 촉진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사전교육에서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반영

현재 해외자원봉사 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은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면담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전교육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원칙 그리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대상 해외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교재나 매뉴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취지가 반영된 해외자원봉사 사전교육 매뉴얼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청소년단체에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해외자원봉사 사업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자원봉사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사전교육에서는 해외자원봉사 사업이 수원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③ 국제개발협력 정신에 입각한 해외자원봉사 사업 다양화

해외자원봉사가 국제개발협력의 틀에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전환할 때 가능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해외자원봉사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 분야에서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에는 수원국 청소년의 역량, 참여 및 권리, 복지, 문화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해외자원봉사 사업(환경, 문화, 스포츠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자원봉사의 기간도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사업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을 다양화하고 차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볼 때 수원국 청소년 집단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차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수원국의 유아, 전기청소년(초중등), 후기청소년을 위한 해외자원봉사 사업으로 다양화한다면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자원봉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해외자원봉사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현재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과 기관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과 시민들이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도록 종합정보시스템(포털 사이트)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국제개발협력이란 측면에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해외자원봉사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후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후관리는 청소년들의 추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질 관리,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맥락에서, 해외자원봉사 활동 이후 참여 청소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중심이 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자원봉사 참여 이력을 누적적으로 관리해 이들에게 추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나,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관련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자원봉사참여 이력관리제도' (가칭)를 도입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까지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참여 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물을 대학입시 및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해외자원봉사 활동 결과를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

시민들의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잠재적인 개발협력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발협력의 지원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협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참여 청소년들은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KOICA ODA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1) 제안 배경

기존의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 외에, KO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ODA 사업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KOICA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 KOICA가 축적한 사업 수행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방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처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인식 확대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청소년 ODA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ICA의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에 설립된 청소년센터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헤브론에 위치한 Korea-Palestine 청소년센터는 KOICA의 ODA 사업 일환으로 건립되어 2012년 12월부터 팔레스타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Korea-Palestine 청소년센터는 센터 운영 및 관련 콘텐츠 도입 측면에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문화, 안전,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청소년 ODA 사업 등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

청소년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청소년 ODA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미 건립된 팔레스타인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청소년 ODA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거점	방법
팔레스타인 Korea-Palestine 청소년센터 활용	• 팔레스타인 아동 청소년의 ODA 수요 조사 • 청소년 ODA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청소년들 선발 • 준비 과정부터 실행 단계까지 ODA 사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 – 청소년이 ODA 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험하게 되는 전체 과정– 예컨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 이해과정부터 실제 참여와 후속 과정–을 시스템화, 매뉴얼 개발 •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기존 KOICA 교육과정 및 KOICA 해외봉사단 유경험자들로 지원단 구성)

3) 여성가족부 고유 청소년 ODA 사업 개발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1)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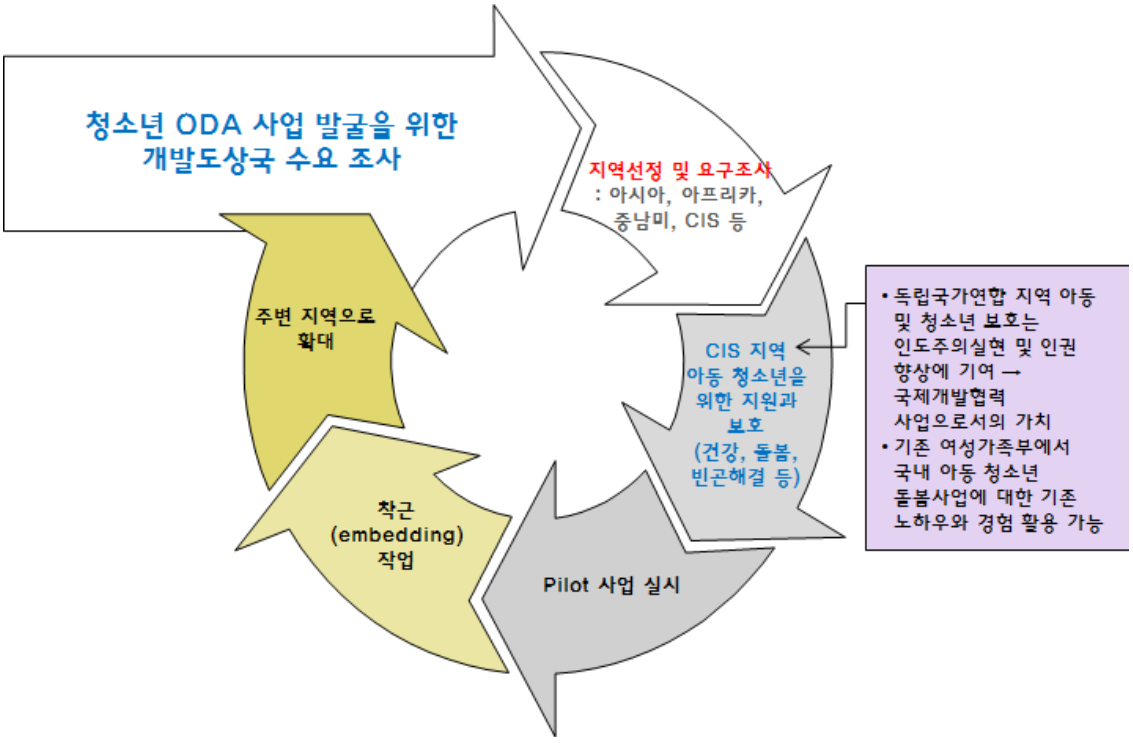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세계 정부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에 대한 지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외교부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도 국제개발협력 아젠다에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는가에 따라 부처의 주력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 방안

① 대표 사업 발굴

여성가족부의 고유한 사업 아이템으로 청소년 ODA 사업을 발굴하려고 할 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 주제와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 KOICA가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ICT, 기후변화대응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ODA 분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를 발굴하고 개발도상국 지역 중 한 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한 뒤 대표적인 사업모델로 배양(incubating)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 사업모델이 성공할 경우, 그것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착근시켜(embedding) 나가면서 청소년 ODA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2】여성가족부 고유 청소년 ODA 사업 개발의 예

② 청소년 ODA 사업 예산 확보

여성가족부의 2014년 ODA 관련 예산 현황은 6,180백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예산의 내역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으로 납부하는 5,194백만 원과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과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986백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표 V-7 여성가족부 ODA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예산	2014예산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5,270	5,194
국제개발협력(ODA)	1,000	986

구 분	내용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통해 글로벌 역량강화 및 동 기구 내 영향력 확보 •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운영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금 5,194백만원 납부 – 산출근거 : 5,194백만원($4,721,818) ※ 우리나라는 초대 집행이사국(2011~2013)이자 2012년 의장국으로서 2013년과 동등한 수준의 기여금을 공여하고자 함
국제개발협력(ODA)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 : 290백만원 – 개도국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훈련 실시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운영 지원 : 596백만원 •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캄보디아 1개국) : 100백만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ODA 관련 예산 중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여성가족부 자체 내의 청소년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GNI 대비 ODA 예산 증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은 현재 4억 원 이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사업에서 해외자원봉사 확대와 함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영역을 개발하고, 청소년 및 관련 분야 지도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Ⅴ-8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해외자원봉사 관련 예산 내역

구분	내용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4,519백만원)	-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 920백만원 - 청소년교류센터 지원 : 306백만원 -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초청사업) : 1,074백만원 -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지원 : 1,619백만원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운영 : 400백만원**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운영비·여비 등 : 200백만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114.

Ⅳ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1) 제안 배경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지도인력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견인할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청소년 관련 학과 중 시범학과를 선정하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KOICA의 ODA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나 KOICA에서 초중고 교원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방안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은 청소년 관련 학과 중 시범학과를 선정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 분야별, 지역별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법	전문가 양성과정 내용
대학 내 청소년 관련 시범학과 선정	•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자원봉사 사례 • 청소년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발굴 • 국제개발협력 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실시 •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 등
청소년 분야별 특별과정 운영	• 청소년 역량강화와 국제개발협력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와 국제개발협력 • 청소년 보호와 국제개발협력 • 청소년 복지와 국제개발협력 • 청소년 생활 문화 환경 조성과 국제개발협력
지역별 특별과정 운영	• 아프리카 지역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중남미 지역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동남아 지역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중동 및 CIS 지역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① 대학 내 청소년 관련 시범학과 선정

국내 청소년 관련 학과 중 시범학과를 선정하여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볼 수 있다. 양성과정에는 국제개발협력과 ODA, 해외자원봉사 사례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직접 참가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해외자원봉사단의 주요 활동 중 교육 분야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을 정리하고 매뉴얼화하여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청소년 분야별 특별과정 운영

상술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 개발되었거나 발굴된 청소년활동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영역의 기초교육 분야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활동, 역량, 참여와 권리, 보호와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지역별 특별과정 운영

대륙별 개발도상국에 따라 수원국의 개발협력 분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지도자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1) 제안 배경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 외에, 기 배출된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연수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현장 방문이나 선진국의 개발교육 성공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수 있다.

(2) 추진 방안

방법	전문가 양성과정 내용
KOICA와 공동 운영 과정	• 청소년지도자 대상 국제개발협력 이해 연수 실시
KOICA와 여성가족부 협력	• 청소년지도자 해외 파견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자에게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수 기회 제공 –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사례를 발굴 → 국내 프로그램 개발 연계 ☞ 청소년지도자의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질 제고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실시	• 국제개발협력 실무자 및 청소년지도자 간 교류 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자원봉사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 외에,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 –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국제개발협력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청소년지도자들이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관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형성이 가능하도록 교류 프로그램 지원 – 국내 실무자 및 지도자간 정보 교류 프로그램 & 국내 및 국외 실무자 및 지도자들 간 정보 교류 프로그램 지원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관계부처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작업반 (2011). 2011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보고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a),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b).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율, 이주영 (2012).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종합평가**. 서울: 글로벌발전연구원.

김 민 (2011). 청소년국제협력활동의 의의와 과제: 헤브론시 코리아 팔레스타인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사례연구. **글로벌청소년연구**, 1(1), 107-135.

김동훈 (2012). 국제개발협력의 인문학: 국제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성찰적 접근. **국제사회복지학**, 2(1), 67-91.

김용주 (2011). 소셜네트워크 형성효과로 본 대학생 해외봉사: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 사례를 중심으로. **소통과 인문학**, 12, 61-67.

김은미, 김지영, 이재은 (2011).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전략**.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김지만, 김예란 (2013). 고독과 빈곤의 조우, 혹은 환대의 경계: 한국 대학생 봉사 여행에서의 주체 형성에 대한 소고. **문화와 사회**, 14, 7-50.

박숙경, 김소희, 오세정 (201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홍란, 박정란 (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 연구**, **21**(2), 139-168.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4).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www.mogef.go.kr/files/directDownload/2014_budget1.hwp 2014년 11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2013년 청소년국제교류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2012). **2012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활동보고서**.

외통위 (2014). 김영우의원안 검토보고, 2014. 4.

외통위 (2013). 심재권의원안 검토보고, 2013. 4.

유성상 (2010). 한국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탐색. **한국교육논단, 9**(1), 227-249.

윤철경 (2011).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NYPI Youth Report.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이민희, 박선영, 박숙경, 신인순 (201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석열 (2004).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연구논총, 25**(1), 43-69.

이재득 (2011). 한성대학교 초기 해외봉사와 학생들의 의식 변화. **소통과 인문학, 12**, 5-31.

이창호, 김연우 (2012).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임파워먼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2), 243-272.

이태주 (2011). 대학생 해외봉사여행과 국제개발 진로탐색. **소통과 인문학, 12**, 33-59.

이태주 (2012). 이명박 정부 ODA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201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5.

이환, 조수연, 김매이, 정효경 (2011).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분류체계 제안.

교육행정학연구, 29(3), 1-23.

정부해외인턴사업평가단 (2013). **2012년도 정부해외인턴사업성과평가보고서**. 교육부 글로벌인턴지원단.

조문영 (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사회 '반 빈곤' 과 '대학생' 의 지형도.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최희선 (2010).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KOICA의 청소년개발분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국제협력단 (201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KOICA · World Friends Korea.

한국국제협력단 (2014). **한눈에 읽는 2013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 통계**. 한국국제협력단 · World Friends Korea.

한국수출입은행 (2014). 「김영우의원 제출자료」, 2014. 김영우의원안에서 재인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2014년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사업 길라잡이**.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황기우 (2010).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망. **학생생활연구, 14호**, 14-24.

KOICA, ODA교육원 (2014). 개발교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개발교육,** 1호, 1-12.

KOICA · World Friends Korea (2011). **해외봉사경험의 사회환원 전략에 관한 연구**. KOICA · World Friends Korea.

ODA Watch 실행위원회 (2012). 2012년 여름, 국제개발협력과 청년. 국제개발협력 전문뉴스레터, 67호. 1-2.

Watson, I. (2012). Governments and NGO in Asian Overseas Devlopment Assistance: Assessing South Korea' s Model of Foreign Aid. *Asian Studies Review, 36*, 79-103.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8639&efYd=20100319#0000에서

2014년 3월 18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http://law.go.kr/lsInfoP.do?lsiSeq=115231#0000에서 2014년 2월 1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865&efYd=20110502#0000에서 2014년 3월 18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한국국제협력단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23&efYd=20140117#0000에서 2014년 3월 18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 (2012). 해외인턴사업별 소개. http://www.ggi.go.kr/html/intern/about/intern04.jsp에서 2014년 2월 11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 (2014). 정부해외인턴파견현황. http://www.ggi.go.kr/html/info/archive/info01_v.jsp#에서 2014년 2월 11일 인출.

민간고용서비스포털 (2013).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http://www.knesa.or.kr/bbs/noticeView.do?bbsNo=2250&menuCd=060102에서 2014년 2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4).청소년 공모사업. http://ycon.mogef.go.kr/hs/intro/intro/now.do 에서 2014년 11월 10일 인출.

월드프렌즈코리아 (2014). 해외봉사 이야기. http://www.worldfriendskorea.or.kr/view/voluntary.about.do에서 2014년 11월 1일 인출.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2012). 해외파견.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에서 2014년 5월 29일 인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14).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자원봉사단 국내교육 주요 내용 http://kucss.or.kr/board/bbs/board.php?bo_table=data_1&wr_id=521에서 2014년 10월 27일 인출.

Australian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AVID) 홈페이지. http://www.volunteering.scopeglobal.com/images/documents/AVID%20Info%20Booklet%20A5_PRINTnobleedwebquality.pdf에서 2014년 9월 2일 인출.

Australian Governmen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naidvolunteers.gov.au/about-the-program/history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 (2014). Volunteer statistics: 2013-2014.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www.vso.org.uk/sites/vso_uk/files/annual_report_and_financial_statement_2013-14_for_vso_international_0.pdf에서 2014년 10월 3일 인출.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2013). Annual report 2013. http://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reports/annual/2013/c8h0vm00008m8edo-att/all.pdf에서 2014년 8월 10일 인출.

K-Move (2014). 해외취업 지원내용. http://www.worldjob.or.kr/kmove/usr/program/job/support/view01.do에서 2014년 2월 11일 인출.

KOICA (2012a). 사업절차: 국내교육 및 파견. http://kov.koica.go.kr/hom/sub/info/info03/Hom_me_3020.jsp에서 2014년 5월 29일 인출.

KOICA (2012b).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국제동향. http://kov.koica.go.kr/hom/sub/info/info02/Hom_me_2040.jsp에서 2014년 5월 29일 인출.

ODA Watch 뉴스레터 (2013). 2013년 한국 ODA 예산을 파헤쳐 본다. http://www.odawatch.net/32377에서 2014년 6월 11일 인출.

ODA 교육원 (2013). ODA 교육원 일반교육프로그램 과정. http://idea.koica.go.kr/course/General.do에서 2013년 12월 23일 인출.

ODA 코리아 (2012).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에서 2014년 2월 13일 인출.

ODA 코리아 (2012).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3_S02_02.jsp에서 2014년 2월 17일 인출.

OECD (2014). DAC and CRS code lists.

http://www.oecd.org/dac/stats/dacandcrscodelists.htm에서 2014년 6월 12일 인출.

Viatores Christi (VC) (2013). Annual report 2013. http://viatoreschristi.com/에서 2014년 9월 27일 인출.

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 UK (2014).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3-2014.

http://www.vso.org.uk/sites/vso_uk/files/annual_report_and_financial_statement_2013-14_for_vso_international_0.pdf에서 2014. 10월 3일 인출.

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 Ireland (2010). VSO Ireland-Strategy 2011-2016.

http://www.vso.ie/sites/vso_ie/files/documents/What%20we%20do/vso-ireland-strategy-2011-16.pdf에서 2014년 10월 3일 인출.

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 Ireland (2013).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http://www.vso.ie/sites/vso_ie/files/vsoie_annual_report_1213.pdf에서 2014년 10월 3일 인출.

부 록

부록 1.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설문지

부록 2. 청소년지도자 면담지

부록 3. 청소년 면담지

부 록

부록 1.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관련 설문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자원봉사활동 관련 청소년 인식 실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상 9세부터 24세에 해당됩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인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인식실태를 기반으로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문1.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 2. 현재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 3.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 4. 한국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조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OECD회원국의 모임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된 후, 2010년 DAC에 가입하였습니다.)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 5. 다음 중 아래의 항목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적 기부, 물품구호, 해외봉사활동, 캠페인 참여 등)

	① 있다	② 없다
(1) 재정적 기부		
(2) 물품 기증		
(3) 캠페인 참여		
(4) 해외봉사활동		

문 6. 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책임이 있다.
②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③ 별로 책임이 없다.
④ 전혀 책임이 없다.

문 7. 본인 스스로가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책임이 있다.
②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③ 별로 책임이 없다.
④ 전혀 책임이 없다.

문 8.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①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②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시급하다	⑤ 매우 시급하다
(1) 빈곤(배고픔, 영양실조 등)					
(2) 질병(말라리아, 에이즈 등)					
(3)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 부족)					
(4) 교육(교육시설 및 인력 부족)					
(5) 환경(환경파괴, 자연재해 등)					
(6) 인권(여성, 아동 등)					

문 9. 한국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나 교육 개선,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더욱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해외봉사활동 관련 인지 및 참여 정도

문 10. 한국에서 파견하는 해외자원봉사단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 11. 주변 친구나 선배들, 혹시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청소년들이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①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② 어느 정도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 12. 사람들이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빈곤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② 외국 방문 기회를 얻기 위하여
③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하여
④ 주변의 권유로
⑤ 외국사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문 13. 앞으로 해외의 빈곤국가나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문 14.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 15. 한국의 해외봉사단이 사회,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국가에서 하는 활동이 그 사회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경험

문 16. 국제협력 분야의 개발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과 같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17로 갈 것

② 없다

문 17.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접하였습니까?

① 학교 수업(정규/특별 수업, 초청 특강)

② 방송 (TV, 라디오, 케이블, 인터넷 방송 등)

③ 청소년 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시설 등에서의 교육

④ 기타(종교단체 등)

문 18.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개인적 배경

문 19.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문 20.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비재학

문 21.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비재학

문 22. 해외 방문이나 체류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 문 23으로 갈 것

② 없다

문 23. 해외방문이나 체류 했던 국가명을 적어 주세요. ( )

부록 2. 청소년지도자 면담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간담회 참석에 응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상 9세부터 24세에 해당됩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높아지는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되는 연구입니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예산과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실정이며,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기회도 적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봉사 참여를 통하여 한국이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참가자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지도하셨던 여러분을 모시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참가와 관련된 경험 및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모집 및 인솔 동기

2. 청소년들이 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참가동기 등

3. 사전 교육과정에 대한 개인 소감 및 향후 제안 사항

- 사전교육 일정과 기간 및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사전교육의 유용성은 무엇이고, 사전교육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 현지 경험

- 파견국가:
- 활동일정: 년 월
- 봉사활동 주요 내용:

5. 사후활동에 대한 의견

- 사후 활동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외봉사단 귀국 후 제안하고 싶은 사후활동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년들에게 해외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해외자원봉사활동 기회 확대, 참가연령대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청소년 면담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상 9세부터 24세에 해당됩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높아지는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되는 연구입니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예산과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실정이며,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기회도 적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봉사 참여를 통하여 한국이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참가자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에 참가하였던 여러분을 모시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참가와 관련된 경험 및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참가 동기 및 지원 과정

- 어떤 동기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나요?
- 어떻게 정보를 접하게 되었나요?
-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겪었던 소감은 어떤가요?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2. 사전 교육과정에 대한 개인 소감 및 향후 제안 사항

- 사전교육 일정과 기간 및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 사전교육의 유용성은 무엇이고, 사전교육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 현지 경험

- 파견국가:
- 활동일정: 년 월
- 봉사활동 내용:
  ① 기억나는 에피소드
  ② 현지 경험에 대한 개인적 소감이나 의미:
  ③ 향후에 해외자원봉사를 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하고 싶나요?

4. 사후활동에 대한 의견

- 자원봉사 참가 후 달라진 나의 가치관이나 생활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외자원봉사 참가단원들을 위한 사후활동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인식 고취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주변 지인들에게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s for Yout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specific policies to expand and promote the role of youth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s.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have been investigate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legal framework in Korea and abroad were reviewed. Second, the youth'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volunteering programs -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youth - were analyzed. Third, the current issues and the ideas for improvement for overseas volunteering were surveyed from the youth and youth lea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specific policies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policy issues have been proposed. This research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vey of the youth, in-depth interviews of the youth and youth leaders, advisory inquiry for expert, and consultative meeting on related policy.

The key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youth policies,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nd overseas volunteering are the most domina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However, there are shortcomings in efforts to connect these programs to the spirit and objectiv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xt, the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of the youth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nd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 fall short in clearly defining details in promo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for the youth and the training of relevant professionals. Finally, the survey of the yout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youth and youth leaders have revealed the demands to promote more actively to improve awar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provide more education to improve perception, to expand overseas volunteering opportunities, and to build a system providing easy access to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overseas volunteering.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our major policy issues – establishing support for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mproving the youth'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reasing the youth'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in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nd eleven detailed policies have been proposed.

Key Wor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ctivit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verseas Volunteering,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사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 · 송병국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 · 박선영 · 조남억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정주 · 김정숙

14-R05 아동 ·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 · 조흥식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 · 권재기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 · 신나민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 · 이창훈 · 강지명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 · 송미경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 · 조혜영 · 이태주 · 이덕난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손병덕

14-R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윤나

14-R14-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 · 이호균 · 서여정 · 김광혁 · 김형욱 · 윤상석 · 박병식 · 이석구

14-R14-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 · 김희진

14-R14-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지경 · 하헌주 · 김옥태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 임영식 · 김민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신현옥 · 박주희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 · 맹영임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 · 맹영임 · 문호영

14-R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황진구 · 모상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허효주 · 문은옥 · 이영화

14-R18-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V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14-R18-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V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14-R18-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V : 기초분석보고서 III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 · 서정아 · 유성렬 · 조아미 (자체번호 14-R19)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 · 서정아 · 유성렬 · 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 · 전영실 · 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 · 백혜정 · 진성희 (자체번호 14-R20)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 · 백혜정 · 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 · 배규한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 · 이진숙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 · 임희진

14-R25 아동 · 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박창남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 · 이상준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 · 안선영 · 정은주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 · 안선영 · 정은주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 · 양계민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 · 양계민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김영한 · 이유진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 · 김지연 · 김정주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 · 김혁진 · 김범구 · 정다정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 · 하시연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 · 이종원 · 김희진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 · 이경상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 · 강태훈 · 류성창 · 변수용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김경준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희진 · 황여정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 · 김동일 · 김태완 · 윤철경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 · 윤철경 · 최금해 · 김옥태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 · 조혜영 · 김용훈

14-R52 신고 · 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 · 김민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 · 왕석순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 · 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 2013 한국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20-5 93330